

딩동딩동♪ 안녕하세요?
통계청입니다

11월에 만난

행복

글 | 이해영 外 30명 • 그림 | 윤명희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는 사람들의 31가지 감동 스토리★

가족들에게 신경도 잘 쓰질 못했는데, 따뜻한 환영에 가슴이 뭉클하더군요. 남편의 선물과 함께
의 편지 한 통을 받았습시다. "엄마, 인구주택총조사 하느라 힘드시죠. 제가 처음에 엄마 조
해해서 죄송해요, 선생님이 가족신문 잘 만들었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조사원으로 책임감을
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사랑해요!!"



11월에 만난
행복

딩동딩동♪ 안녕하세요?
통계청입니다

11월에 만난 행복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는 사람들의 31가지 감동 스토리★

글 | 이혜영 외 30명 • 그림 | 윤명희

책을 펴내며



만약 세상을 살면서 내가, 또는 우리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아마도 망망대해에서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고단한 삶이 될 것입니다. 한 개인에게 5년 후, 10년 후를 계획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듯 국가에 있어서도 미래의 모습을 설계하고, 목표를 정하는 것은 무엇보다 어렵고 막중한 일입니다. 국가는 목표에 맞는 방향을 정하기 위해 국민들의 현실을 정확히 판단하고, 앞으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 기준이 바로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입니다. 따라서 인구주택총조사는 우리 국민 모두가 보다 나은 내일로 향하기 위한 하나의 나침반을 만드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5년은 바로 그 인구주택총조사가 시행되는 해였습니다. 때문

에 통계청은 1년 내내 정말 바쁜 한해를 보내야 했습니다. 11만 명의 인원과 1300억원의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로 인터넷 조사 방식을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인구주택총조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도 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번 조사가 무사히 마무리 될 수 있었던 것은 성실하게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모든 것이 변하듯, 조사 또한 과거와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독신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낮에 비어있는 집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사원들은 밤늦은 시간까지 방문 조사를 하느라 마음이 바빴습니다. 도시는 도시대로, 농촌은 농촌대로 전국 가가호호를 방문하다 보면 예상치도 못한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10만 조사원들에게 그것은 장애가 아니



었습니다. 여든이 넘는 노익장으로 조사 현장을 누비신 어르신도 계셨고, 조사원인 부인을 도와 부부가 함께 조사를 하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맡은 바 책임을 다 해주신 분들이 있었기에 이번 조사는 성공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열정과 정성으로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마치면서 우리는 그 분들이 현장에서 느낀 경험과 감동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 책에는 조사 현장을 찾아다니며 직접 만났던 소외된 우리 이웃의 어렵고 고단한 현실과 조사 현장에서 일어났던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담겨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어났던 눈물과 웃음, 감동의 이야기들은 우리네 인생살이 희로애락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소중한 이야기에 귀 기울이다 보면 다시 한번 산다는 것에 대한 참의미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제가 느꼈던 따뜻하고 잔잔한 감동을 이 책을 읽는 모든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번 인구주택총조사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5년 12월 통계청장
오갑원

차례



1차! - 당신이 있기에 행복합니다

- | | | |
|---------------------|-------|----|
| 1. 백마 타고 온 내 남편 | | 12 |
| 2. 조짐 | | 20 |
| 3. 아버지의 노래 | | 27 |
| 4. 지금 몇 시고? | | 32 |
| 5. 천천히 자라는 아이 | | 38 |
| 6. 아버님, 어찌 믿으라시나요? | | 44 |
| 7. 엄마가 떠나신 날 | | 54 |
| 8. 아내의 외출 | | 60 |
| 9. 마음을 채워 준 밥 한 끼 | | 68 |
| 10. 그리고... 아무 말 못했다 | | 74 |



2차! - 함께 손잡고

- | | | |
|---------------------|-------|-----|
| 1. 사과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 | 84 |
| 2. 참새 같은 삼남매 | | 91 |
| 3. 대한민국1% 그들만의 커뮤니티 | | 98 |
| 4. 성산마을 사람들 | | 104 |
| 5. 작은 지구촌 보산동 | | 109 |

6. 남해에서 보낸 편지	115
7. 산다는 것. 그 단맛, 쓴맛, 매운맛	119
8. 다시 쓰는 부모님 전상서	125
9. 무지개 뜨는 나라에서	130
10. 가슴으로 안아주기	135
11.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139



3차! - 그래도 세상은 아름답더라

1. '인구조사' 관측 나왔습니다	148
2. 세상아, 안녕?	154
3. 마음으로 이해하기	162
4. 이제는 아줌마 시대	168
5. 하늘에서 온 편지	177
6. 탐정 수첩, 증거를 찾아라	184
7. 15cm, 사람과 사람 사이	191
8. 방학1동 드림팀	196
9. 나의 첫사랑은 'ing'	202
10. 한 스푼의 사랑으로 만드는 세상	209



...

제 1 장

당신이 있기에 행복합니다



에 두어 번 봉사하러 가는 것이었고. 어찌다 신랑이 쉬는 날, 아이들과 함께 대형 마트라도 가는 날은 내겐 마치 소풍날만 같았다.

그런데, 그런 무미건조한 내 일상에 사건이 터진 것은 바로 2005년 가을이었다.

매주 복권을 구입해 보아도, 마트의 경품에 참여해 보아도 단 한번도 당첨되어 본 적 없는 내가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기분으로 친구의 권유에 그저 한번 신청해 본, '2005년 인구 조사원'에 당당히 발탁 된 것이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해 보는 일. 살림살이가 아닌 무언가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본다는 사실만으로 얼마나 떨리고 흥분이 되던지…….

드디어 조사 첫날.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오랜만에 외출복을 꺼내 단장을 하고. 오랫동안 서랍 속에 잠자고 있던 빨간 립스틱도 꺼내 바르고. 조사원으로 당당한 보무를 내딛어 첫 번째 조사할 집의 대문 앞에 도착했다.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누르고, 옷매무새를 고치며 과연 어떤 사람과 어떻게 첫 대면을 하게 될까 생각하고 있었다. 상냥한 미소로 얼굴을 내밀며 “어머 수고하시네요. 들어오셔서 차라도 한 잔 하세요.” 하는 안 주인의 얼굴을 떠올리며 대답할 말을 찾고 있는데, 갑자기 거칠고 투박한 목소리가 나의 상상을 한 방에 날려 버리는 것이었다.

“아지매, 누요? 뭐하로 왔능교?” 시커먼 얼굴에, 앞으로 돌진하기 위해 씩씩거리는 멧돼지 같은 인상을 한 40대 아저씨가 내 얼굴

을 뻘히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저, 안녕하세요. 인구주택조사 나왔는데요.” 용기를 내어 말을 했지만 내 목소리는 자꾸 기어들어 간다. 게다가 그때 갑자기 벼락 치는 소리로 짓어대는 황소만한 누렁이는 내 스커트를 물어뜯을 듯 달려드니 혼비백산 벌렁대는 가슴에 나는 더 이상 말조차 잊지 못했다.

“내 지금 바쁘거든요. 이답에 오소.” 전혀 바빠 보이지 않는 아저씨는 하품을 하며 쿵 소리를 내곤 쇠대문을 닫아 버리는 것이 아닌가. 처음부터 조짐이 불안했다. 무서운 개와 불친절한 아저씨. 첫 조사자와의 대면에서부터 내 다리는 힘이 빠져 버렸다.

시작하기 전에는 며칠 안에 부리나케 해서 깨끗하게 마무리하고 쉬어야지. 아르바이트 한 돈으로 오디오도 사고 티 테이블도 사야지. 아이들과 외식도 하고……. 이런 내 꿈은 조사를 시작한 지 한 시간도 못 되어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다.

내가 조사해야 할 구역은 읍 지역에서 3~4km 떨어진 마을로 버스도 자주 다니지 않았다. 처음 와 본 동네라 지리도 잘 모르겠고. 그렇다고 택시를 타자니 돈이 아깝고.

한참을 걸어 조사구 골목을 몇 번이고 뱅글뱅글 돌았건만 도무지 그 골목이 그 골목 같아 몇 번이고 같은 길을 오가자니 발가락은 빠질 듯 아파오고 오랜만에 꺼내 신은 하이힐이 너무나 밍고 짜증스럽다. 과연 끝까지 해 낼 수 있을까? 도저히 걸을 수가 없어 이름 모를

집 대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 신발을 벗고 발을 주무르는데 갑자기 그토록 보기 싫던 똥똥이 신랑이 너무나 보고 싶다. 새벽이슬 맞아가며 벌어진 귀뚜리만한 경찰공무원 월급. 매번 받을 때마다 고맙단 말은커녕 이걸 가지고 또 어떻게 한 달을 사나 푸념만 하던 내 모습이 너무나 후회스럽고 알미웠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24개월 할부로 구입한 최신형 휴대폰이 울린다.

아!!! 나의 신랑. 똥똥이 남편이다.

“여보세요.”

그러자 경상도 특유의 무뚝뚝한 사투리가 전화기를 통해 들린다.

“니 어디고? 밥 묵었나? 아~들은 학교 잘 갔나?” 늘 똑 같은 질문을 하는 남편의 목소리에 난 한 마디 대답도 못하고 울음이 터지고 말았다. 다리도 아프고, 배도 고프고, 집도 못 찾겠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한 마디 말도 못하고 그냥 꺼억꺼억 울기만 했다.

“하지 말라고 해도 그래 고집 피더 마는, 내 지금 간다. 그 가마이 있그라.”

하며 남편은 전화를 끊는다.

한참을 운 탓에 오랜만에 한 화장이 눈물로 범벅이 되었을 즈음 내 눈 앞에 나타난 사람.

어디서 구했는지 찌그러진 바구니에 녹이 잔뜩 슬어 있는 여성용 자전거를 타고 있는 경찰 제복의 사나이! 신랑은 백마 탄 왕자처럼 내 눈앞에 서 있었다.

“이봐라 봐라. 녀의 집 대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 뭐하는 짓이고?
퍼뜩 일어나라. 쪽팔리기로. 그라고 울기는 왜우노? 조사는 좀 했
나?”

“길도 모르겠고. 핀잔만 듣고, 발은 너무 아프고, 배도 고프고. 멧
돼지 아저씨는 문을 쾅 닫으며 나중에 오라고 하고. 누렁이도 나
를 무시하고 마구 짓더라고…….” 공연히 서러운 마음에 생각나
는 대로 남편에게 고해 바쳤다. 그러자 남편은 어디론가 전화를
한다.

“넌데요. 한 3일 휴가 좀 널랍니다. 예, 고마 일이 좀 있심니더.”

사무실에 전화를 한 것이다. 사건이 많다며 여름휴가도 하루밖에
내지 않았던 신랑이 3일씩이나 휴가를 냈다. 바로 나를 위해서.

주섬주섬 눈물을 수습을 한 나는 신랑의 손을 잡고 아까 나를 푸
대접 한 멧돼지 아저씨 집으로 향했다. 대문을 들어선 제복 입은 신
랑. 아니 경찰아저씨를 보자 놀란 멧돼지 아저씨는 갑자기 선량한
백성으로, 사납게 짓어 대던 누렁이는 순한 애완견으로 변해 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름은? 생년월일은? 집은 몇 평이고요? 누구 집이구
요? 그렇게 아저씨와 신랑은 심문하는 경찰과 범인이 되어 버렸다.
그걸 보던 나는 아프던 다리도 어디 가고 허기지던 배도 불러 오는
것 같았다. 여기가 거기 같고, 거기가 저기 같던 마을길을 신랑은 어
쩔 그렇게도 잘 찾아내는지.

다음날 아침. 소풍 도시락을 싸는 내 손은 바뻐다. 따뜻한 커피가

도저히 걸을 수가 없어 이름 모를 집 대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 신발을 벗고 발을 주무르는데 갑자기

그토록 보기 싫던 똥땡이 신랑이 너무나 보고 싶다.



담긴 보온병도 챙기고, 김밥도 싸고, 콧노래가 절로 나온다. 애들을 학교에 보내고 신랑과 나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읍에서 한참을 떨어진 조사구로 향했다. 오전 내내 쉬지 않고 신랑은 조사구요도를 보고 집들을 찾아 주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연말 특별방범활동하며 은행에 순찰하러 온 경찰과 은행원으로 처음 만나 사랑을 나눌 때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그들에 돛자리를 깔고 오랜만에 들어서 오순도순 도시락을 먹었다. 그때 땅바닥에 닿을 듯 구부정한 허리로 지나가시던 할머니가 “처녀 총각이 참 보기 좋네. 둘이 결혼하고 살면 잘 살겠다.” 하신다.

우리 보고 처녀 총각이란다. 아이 둘 낳고, 큰 애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보너스 얻은 양 기분이 좋았다. 그 다음날도, 그리고 그 다음날도 도시락까지 싸 들고 나온 나와 신랑은 연애시절 데이트 하는 기분이었다. 물론 신랑이 가끔 조서 받는 말투로 묻는 바람에 나한테 핀잔을 듣기도 했지만.

3일 휴가가 끝난 다음에도 퇴근을 한 남편은 사람이 없어 밤에 조사하러 가는 나를 따라 나섰다. 어두운 골목길에 여자 혼자 가면 ‘퍽치기, 아리랑치기’ 또 무슨 치기를 당할 수 있다며 경찰 용어를 써가며 내 뒤를 졸졸 따라 다녔다.

결혼 생활 9년차. 내 신랑은 30인치 허리가 35인치가 되었고 나는 처녀 때 입던 청바지가 엉덩이로 올라가지 않는다. 그리고 큰 애는 오늘 3학년 교과서를 받아 왔고, 작은 애는 유치원에서 장기자랑을 했는데, 또래 중 제일 키가 컸다.

취꼬리만한 월급 벌어 온다고 푸념하고 내가 가진 것이 제일 조그맣게만 보였는데 조사를 마칠 즈음 나는 내 남편이 제일 자랑스러웠고, 그 남편과 함께 키워온 아이들과 나의 집이 너무나 사랑스러웠다. 인구주택총조사가 가족에 대해 새롭게 눈을 뜨게 했고, 가족에 대한 사랑을 다시 확인시켜 준 것이다.

“따르릉 따르릉” 전화벨이 울린다.

“군청인데요. 인구주택총조사 한거 전산 입력하는데, 컴퓨터 상급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전화 드렸습니다. 하실래요?”

아차차!!! 상급까진 아닌데, 워드 조금하고 인터넷 검색할 줄 아는 것뿐인데 큰일이다.

퇴근한 남편은 “니 그거 공문서 허위기재에 공무집행 방해다.” 하며 겁을 준다.

하지만 그래도 난 할 것이다. 오늘부터 열심히 워드 연습하고 또 하면 되지. 나는 컴퓨터를 켜다. 그리고 작지만 새로운 도전을 다시 시작해 본다.

표 작성은 다했으니 지금 받아 가라'는 것이다. 그런데 아이는 '엄마, 오늘은 쉬면 안 되냐'며 자꾸 떼를 쓴다.

남편은 출근했고, 아이를 맡길 만한 곳도 마땅치 않았다. 잠깐 둘러서 조사표만 챙겨오면 되는 일이니 시간도 오래 걸리진 않을 일이었다. 돌아오는 길에 좋아하는 떡볶이랑 붕어빵을 사주겠다고 겨우겨우 아이를 달래가며 집을 나섰다. 조사는 거의 끝나가는 중이었고, 그렇지 않아도 몇몇 부재 가구 때문에 걱정이 되던 참이었다.

며칠 전 빌려 왔던 자전거 뒤에 아이를 태우고 힘차게 페달을 밟으며 약속 장소를 향해 바빠 달렸다.

얼마나 달렸던 걸까. 갑자기 등 뒤에서 찢어질 듯한 아이의 외마디 비명 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 자전거 페달이 뻑뻑해지고, 바퀴가 움직이지 않았다. 내 등골이 오싹해졌다. 마치 슬로우 비디오를 보는 듯 내 옆을 지나던 사람들의 놀란 얼굴이 시야에 들어왔다.

아이의 외침은 날카로운 울음으로 바뀌고 있었다. 내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다. 어떻게 자전거를 멈췄는지, 아이를 품에 안았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자전거 뒷바퀴에 아이의 조그만 발이 끼어 구겨져 있었다. 아프다고 우는 아이를 부여잡고 나는 어쩔 줄을 몰랐다. 온몸에 진땀이 흘렀고, 머리는 멍해졌다.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사이에 근처에 있던 청년들이 달려와 자전거를 분해하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119에 신고를 해주었다. 청년들이 자전거에서 딸아이의 발을 거의 꺼낼 무렵 119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그제야 나는 정신이 들었다. 그런데 막상 달려온 것은 구급차가

아니라 화재진압용 빨간 차. 그것도 TV에서나 보던 가장 커다란 소방차였다. 이것저것 가릴 새가 없었다. 아이를 품에 안고 화재진압용 소방차에 올라탔다. 사이렌을 울리며 아이는 응급실로 이송됐다.

내 품에 안긴 아이는 병원에 가는 내내 거친 숨소리를 내며 힘겨워 했다. 가슴은 안타까움에 찢어질 듯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렀다. 병원 응급침대에 실려 가는 아이를 보며 나는 기진맥진한 채로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나 때문에 아이가 다쳤다는 죄책감에 후회가 밀려왔다. 가기 싫어하는 애를 데려가지 말걸, 잘 타지도 못하는 자전거는 왜 타고 나섰는지, 애를 태울 때 발 조심하라고 한 번 더 주의를 줘야 하는데…….

아니야, 애초에 인구조사 이판 거 시작도 안했으면 이런 일도 없잖아. 얼마나 별짓다고 내가 정신이 나간거야.

수도 없이 ‘만약……, 하지 않았다면’ 이 떠올랐다. 차라리 내가 다쳤으면 좋으려면, 고작 여섯 살밖에 안된 저 어린 것에게 엄마라는 사람이 무슨 짓을 한 것일까…….

‘아빠가 집에 있었더라면 데리고 나가지 않았을 텐데.’ 바쁜 남편도 탓해 보고, 하필 오늘 조사표를 가져가라던 그 가구원도 탓해 보지만 마음은 갈가리 찢겨져만 갔다.

엑스레이를 찍고, 상태를 살폈다. 인대가 파열됐지만,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다고 했다. 조그마한 다리에 깁스를 하고 아이는 입원실로 옮겨졌다. 아이의 사고 소식을 들은 남편이 얼굴빛이 하얗게

변해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다. 2주 정도 깃스를 하면 된다는 이야기
에 그나마 한숨을 돌렸다. 미안하고 부끄러워 남편에게 뭐라 할 말
이 없었다.

아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남편은 내게 아무런 말도 하
지 않았다. 힘들어 지친 아이를 방에 눕히고, 남편은 미처 끝내지
못한 일을 보고 온다며 밖으로 나갔다. 이제부터는 온전히 내가 감
당할 일이었다.

나에겐 선택의 순간이었다. 2주 동안 누워 있어야 하는 아이와 절
반 이상을 한 조사 업무. 내가 안하면 누군가에게 맡겨야 할 것이
다.

하지만 그 두 가지 모두 포기하긴 어려웠다. 아니, 싫었다.

이것은 나에게 단순한 아르바이트가 아니었다. 강원도로 이사 온
지 2년. 군인이었던 남편의 직장 때문에 친구도 가족도 없는 낯선
지역에서 외롭고 힘들게 2년을 보냈다. 바쁜 남편은 아침에 나가면
밤늦게 들어오기 일쑤였고, 유일한 딸 상대는 딸아이 뿐이었다. 끼
니때마다 아이 먹을 것 챙기고, 따라다니며 뒤치다꺼리 하고 집안
일 좀 하다 보면 하루해가 저물어 있었다.

남자들은 집에서 하는 일이 뭐 그리 많냐고 하지만, 호기심이 부
쩍 는 아이는 하루 종일 나를 붙잡고 잠시도 쉴 틈을 주지 않았다.
그런 아이와 씨름하다 보면, 저녁 무렵에는 기력이 딸려 힘이 쭉 빠
졌다.

낯선 동네에서 아이에게만 스물 네 시간을 통째로 매여 생활하면

서 나는 서서히 변해가고 있었다. 조그만 일에도 크게 상심했고, 소심해졌으며, 식사도 자주 걸려 건강이 나빠졌다. 이곳으로 옮겨오기 전까지는 직장생활도 했고, 나름대로 활기차고 즐겁게 생활하던 나였는데, 어느새 스스로가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느껴졌다.

그런 내가 일을 하면서 달라지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예전에 가졌던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끼고 있었다. 처음으로 이웃 사람들도 사귀었고, 얼굴도 밝아지고, 웃음도 많아졌다. 어디에선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곳이 있어 기뻐고, 시간에 맞춰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긴장감도 즐기게 됐다. 하루하루가 신나고 재미있었다.

그런데 지금, 생각지도 못한 난관에 봉착한 것이다. 여기서 포기하면 나는 다시 동굴로 떨어질 것 같았다. 남편은 이렇다 저렇다 말을 안했다. ‘당신 하고 싶은 대로’가 대답의 전부였다.

부부사이에는 차가운 긴장감이 흘렀다. 하지만 아픈 아이를 버려두고 일을 하고 싶다는 내 고집만 마냥 피울 수는 없었다. 결국 일을 포기해야 하나……. 그 생각을 하니 우울하고 슬프기만 했다.

그런데 그때 하늘이 도우셨는지 지원군이 나타났다. 조사 중에 만나 친하게 된 이웃 한 분이 사정 이야기를 듣고 선뜻 딸아이를 맡아 주겠노라 하셨다. 딸과 같은 또래의 아이를 키우는 그분은 마침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 집에 수두가 유행이라 한동안 아이를 집에서 돌보신다고 했다. 자기 아이와 같이 놀게 하면 될 테니 걱정 말고 일 마무리 잘하라고 하셨다.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행복했다. 그분 덕분에 나는 다시 힘을 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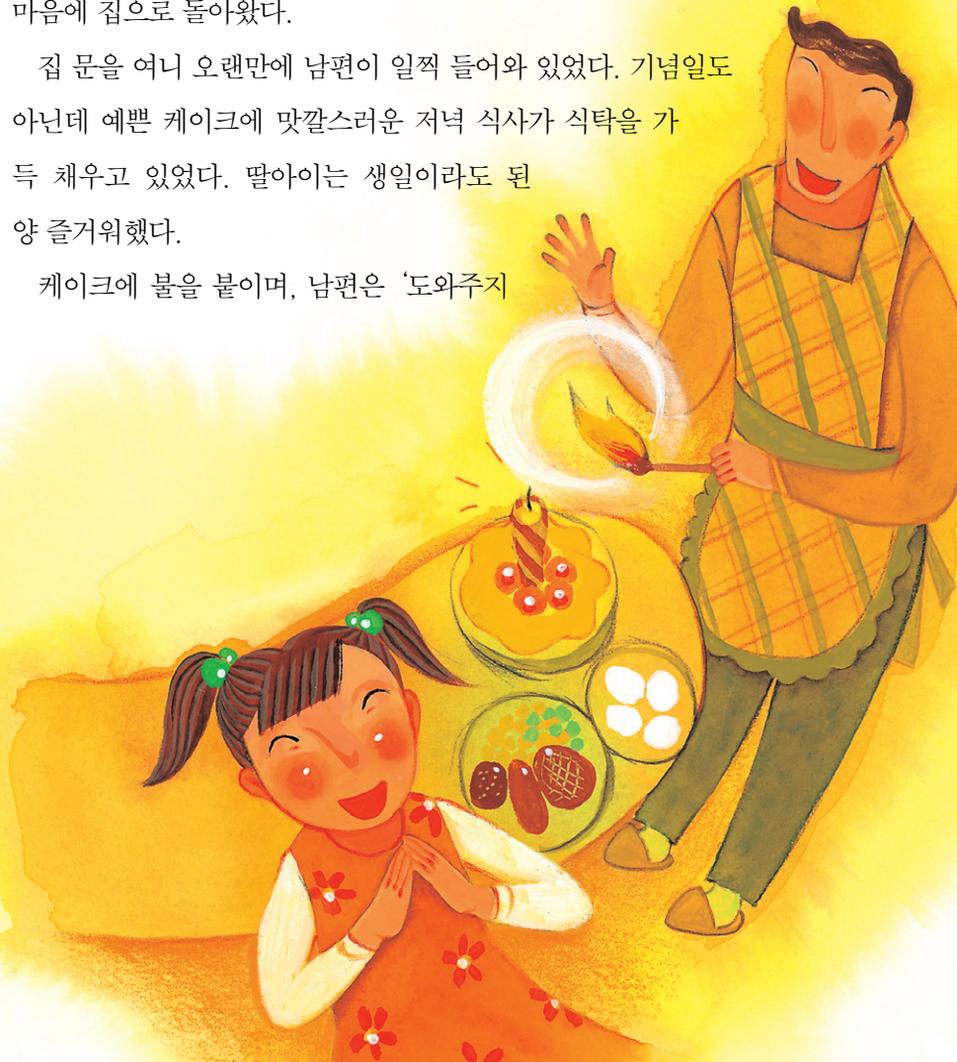
어 조사를 시작했고, 더 빨리, 더 열심히 조사를 마칠 수 있었다.

처음에는 막연하게 아르바이트로 시작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 마음은 조사를 하면서 조금씩 바뀌고 있었다. 내 주변에 있는 외로운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다정한 사람들을 만나며 가족의 소중함과 땀 흘려 일하는 기쁨을 알게 되었다.

조사를 끝낸 마지막 날, 조사표를 제출하고 조금은 시원섭섭한 마음에 집으로 돌아왔다.

집 문을 여니 오랜만에 남편이 일찍 들어와 있었다. 기념일도 아닌데 예쁜 케이크에 맛갈스러운 저녁 식사가 식탁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딸아이는 생일이라도 된 양 즐거워했다.

케이크에 불을 붙이며, 남편은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 고 말했다. 남편의 진심 어린 말을 들으며 '산다는 게 참 행복하고 아름답다' 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다. 우리네 인생, 다들 그렇게 울고, 웃고, 싸우고, 행복해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닐까?

엄마 때문에 발을 다쳐 고생했던 아이는 지금 곁에서 후다닥후다닥 뛰어 다닌다. 아직 상처엔 딱지가 앉아 있고, 자전거만 보면 아픈 기억에 울상을 짓긴 하지만, 캐릭터 스티커를 방방마다 붙이며 "안녕하세요? 통계청입니다. 엄마, 나 지금 통계청 놀이해요." 하며 나를 웃음 짓게 한다.

아버지의 노래

황 점 선 작: 황점선/출판: 새마을출판사



11월 아침은 햇살마저 시렸다.

이미 자신의 색을 잃은 풀 더미 위, 간밤 내린 무서리는 하얗게 반짝였다. 얇게 저민 바람은 허술한 옷가지 사이를 제멋대로 들락거리고, 몸에 든 한기는 낫선 동네를 종일 돌아다녀야만 하는 나를 더욱 긴장되게 했다.

조사를 시작한 첫날.

조사구요도를 보고 찾아간 그 곳은 한 성씨가 모여 살고 있는 집성촌이었다. 대부분 예순을 넘긴 노인들만 살고 있는 시골 동네였고, 가을걷이도 끝난 터라 조사는 쉽게 이뤄질 듯싶었다. 그러나 그것은 내 기대에 지나지 않았다.

온 동네가 텅빈 듯이 고요했다. 대낮이 주는 고요는 쓸쓸함을 넘어 무기력하게 느껴지기 까지 했다. 요즘 농촌은 일흔, 여든이라도 움직이는데 불편하지만 앓다면 과수원이나 하우스로 겨우내 일을 나가 있었다. 하루 종일 마을을 돌아도 부재중인 집만 늘어났다.

지친 발걸음을 멈춘 채 잠시 쉬고 있던 시간, 어디선가 때늦은 콩 타작 소리가 들렸다. 반가운 마음에 한달음에 달려 집안으로 불쑥 들어섰다. 할아버지 한 분이 큼직한 돌 위에 콩 대궁 서너 개를 툭툭 두들기고 있었다. 강아지 한 마리가 나를 보고 양갈지게 짖어 댔지만 할아버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두어 차례 불러 봤지만, 그 일

정한 동작을 멈출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물끄러미 바라보자니 할아버지의 동작은 타작하는 것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게 했다.

한참이 지난 후에야 기척을 느끼셨는지 할아버지가 아는 체를 하신다. 나는 내가 무엇 때문에 왔는지를 설명하며 조사표를 꺼내들고 질문을 시작했지만, 할아버지는 이내 알아듣지 못할 정도의 어눌한 소리로 물음과는 상관없는 말만 주섬주섬하셨다.

연세를 묻는 말에 할아버지는



환갑 진갑 다 지났다고 하셨다. 가족에 대한 질문도 중언부언하시거나 반복하기 일쑤여서 그대로 받아 적을 수가 없었다.

똑같은 질문을 여러 차례 반복하던 나는 기운도 빠지고, 목까지 갈갈해져 뒷마루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그제야 집안 모양새가 눈에 들어왔다.

절반은 허물어진 담과, 담 아래 아무렇게나 피어오르다 말라버린 도깨비바늘과 도꼬마리가 마당 가운데까지 몰려와 있었고, 강아지가 눈 똥은 수북하게 널려 있었다. 방금 전까지 타작하던 콩은 여기 저기 튀어나가 있었고, 마당 한 켠 텃밭엔 벌레가 잔뜩 과묵은 배추가 영성하게 자라고 있었다.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은 집은 빈 집을 연상시킬 정도로 을씨년스러웠다. 나는 문득 “메주콩이 실하네요……. 씨앗으로 쓰면 참 좋겠다.”하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우물우물 인사말을 삼키고, 나는 그 집을 나왔다. 발길은 안동네에 산다는 반장 아저씨 댁으로 향했다. 오랫동안 동네일을 맡았던 그분이라면 할아버지네 사정을 잘 아실 거라는 짐작이었다. 생활은 어찌하시며, 자식들은 없는지, 할머니는 계시는지……. 할아버지에게 했던 질문들을 되물어 보았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야기를 시작하는 반장 아저씨의 손에는 담뱃불이 빨강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할아버지와 집안이 된다는 아저씨는 몇 해 전 그 작은 동네를 쭉 대밭으로 만들었던 사람이 할아버지네 둘째 아들이라는 말을 하면서 그분의 막막한 사정에 대해 못내 속상해 했다.

집성촌의 특성 같은 것이기도 했지만 유독 정이 많은 사람들끼리 모여 살아 친밀감이나 유대감이 강했던 마을 사람들. 할아버지의 둘째아들은 어릴 적부터 천재 소릴 들으며 동네 어른들의 기대와 아낌을 한 몸에 받고 자랐다고 한다. 기대에 보답이라도 하듯 서울의 명문대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다. 그 사람 개인의 탄탄한 인생행로마저 마을에서는 자랑거리였단다. 그러던 중 벤처 열풍과 맞물려 주식 시장의 활황이 이어졌다. 그해 할아버지의 아들은 고향 사람 모두를 금방이라도 벼락부자로 만들어 줄 것처럼 설득해 돈이란 돈을 다 긁어모아 주식에 투자를 했었다. 어릴 적부터 영특하기 이를 데 없었고, 남들과 다를 것이라는 신뢰감 하나만으로 사람들은 스스럼없이 그동안 꼬박꼬박 모았던 전 재산을 내주었다고 한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투자했다던 회사는 유령처럼 사라져 버렸고, 사람들은 알거지가 되었다. 동네 전체가 줄초상이 난 것이다. 평소 경우 바르기로 소문 난 그의 어머니는 몇 개월 동안 속병을 앓다가 끝내 스스로 명줄을 놓아 버렸고, 고향을 떠난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지금껏 생사조차 알 길이 없다고 했다. 자식 둘에 아내까지 잃고 마을 사람조차 찾지 않게 된 할아버지는 그 후 어딘가에 홀린 듯 넋을 놓고 산다는 것이다.

이야기를 다 듣고서야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했던 할아버지의 표정과 산 사람의 집이 빈집처럼 황량하게 느껴지던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반장 댁을 나오는 길에 다시 들른 할아버지에게 나는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세상에 희망을 품기에, 사람에게 희망을 품기에, 그는 이미 너무 늙어 버린 사람이 아닌가…….

이제 간다는 눈인사를 하자 할아버지는 갑자기 시키면 비닐봉지 하나를 붙숙 내미셨다. 열어보니 오후 내내 타작을 하던 메주콩이 한 되박 실하게 들어있었다. 염치없어 손사래를 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낯선 이방인인 내게 건넨 이 콩이 어찌면 그 오랜 세월 단혀 있던 할아버지의 마음이 세상과 소통하기 위한 작은 시도일지도 모른다고…….’ 그 손길을 다시금 거절할 순 없었다.

“할아버지, 5년 후엔 꼭 열 배로 갚아 드릴게요. 건강하세요.”

가볍게 한 옥타브쯤 올린 내 목소리가 나 또한 어색했지만, 어느덧 할아버지의 얼굴엔 아이 같은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어두운 동네 어귀를 빠져 나오니 겨울 초입의 바람이 마지막 남은 햇살 몇 줄기를 지우며 지나갔고, 붉던 노을도 잠겨 들고 있었다.

무심코 내뱉은 5년 후, 그 때까지 저 노인은 어떻게 끝나지 않는 외로움을 어찌 견디며 하루하루를 살아낼는지, 가슴 어딘가부터 시작된 이름모를 미세한 통증이 온몸을 파고들었다.

시금명시고?

김명숙 국립중앙도서관인사관리팀장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대구 북구 복현 1동 경북 대학교 부근을 조사한 조사원 김명숙입니다. 조사원 여러분 모두 늦은 가을날 200여 가구를 돌아다니며 조사하시느라 많이 힘드셨죠? 저도 조사 기간 내내 하루 종일 걷고, 층계를 오르내리느라 몸무게가 3kg나 쏙 빠졌어요. 한동안 꽤 날렵하더니, 요즘엔 다시 살이 붙기 시작해 안타까워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가 경험한 조사 노하우 몇 가지를 알려 드리려고 해요. 혹시 다음번 인구조사하시는 분들이나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요.

제가 조사를 맡은 구역은 주택이나 빌라, 저층 아파트와 원룸이

혼합된 복잡한 동네였답니다. 그중에서 저는 특히 원룸조사를 중점적으로 했죠.

원룸조사가 얼마나 힘든지 경험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한 건물에 다들 모여 사니 돌아다니지 않아 좋겠다고 하시지만, 이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우선 집에 사람이 없어요. 특히나 제가 맡은 동네가 대학 주변이다 보니 학생들 새벽 같이 수업 들으러 나가죠, 게다가 요즘 취업 준비가 대입 시험공부 저리 가라예요. 늦게까지 공부하고 12시가 넘어야 도서관에서 돌아오죠. 공부 안하는 학생들이요? 그 친구들도 만만치 않아요. 그 시절에 무슨 인생 걱정이 그리 많은지 매일매일 술로 세상을 고민하다 들어오니 귀가 시간은 마찬가지로예요.

그러니 원룸 조사하는 조사원들은 본의 아니게 잠복근무하는 형사가 된답니다. 매일 밤마다 서너 명씩 한 조가 되어 조사할 원룸의 엘리베이터 앞에서 주민들을 기다리는 거죠. 1층에 기다리다 학생이 들어가면 같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몇 호에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조사를 안 한 집이면, 바로 벨을 누르고 조사표를 들어 밀죠. 이게 기본 원칙이에요.

좀더 고차원적인 방법도 있어요. 좀 높은 층의 원룸은 엘리베이터가 두 개는 기본이거든요. 이럴 때는 타고 내리는 사람도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럴 때는 다섯 층 단위로 나뉘서 각층마다 조사원을 배치해 놓고, 한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내리는 층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조사원에게 연락

을 해주죠. 그러면 연락받은 조사원이 아래위로 뛰어다니며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조사하는 거예요. 신속, 정확, 친절은 원룸 조사의 생명이지요. 들어보니 무슨 첩보영화 같죠?

참, 주의사항도 있는데요. 연세 있으신 남자 조사원분들은 늦은 밤 아가씨가 있는 원룸 두드리면 절대 그 아가씨가 문을 열어 줄 리 없어요. 이럴 때는 부인과 함께 가서서 남자 방은 남자가, 여자 방은 부인이 조사하는 정도의 센스, 잊지 마셔야 해요.

이쯤해서 제가 원룸조사하면서 있었던 사건 하나 말씀드릴게요.

가정집이야 밤 9시 넘어 방문하면 실례라고 사람들이 막 화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원룸은 9시가 넘어야 사람들이 들어와요. 10시, 11시가 초저녁이지요. 그나마 제가 조사한 지역은 대학생들이 많아서 늦게 벨을 눌러도 그리 험한 말을 듣거나 인상을 쓰진 않더라고요.

하루는 느지막하게 원룸을 돌기 시작했는데, 유독 그날따라 불이 환하게 켜져 사람들이 다 집에 있는 거예요. 조사도 너무 잘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며칠 동안 제대로 조사가 안돼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그날은 어찌나 운이 좋던지, 만나는 학생들 모두 친절하게 조사에 응해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이 나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리더라고요. 남편이었죠. 마음은 급하고, 저녁 대충 챙겨먹었음 됐지 바쁘는데 무슨 전화인가 싶었죠. 전화를 받자마자 대뜸 남편 하는 말이 “니 지금 어디고.” 화난 음성이었다고요. 참내, 제가 어디겠어요. 조사 하러 간다고 이야기도 다 하고 나왔는데. 그래서 난 “지금 원룸 조

그렇지 않아도 며칠동안 제대로 조사가 안돼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그날은 어찌나

운이 좋던지, 만나는 학생들 모두 친절하게

조사에 응해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이 나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있었죠.



사 나왔다 했자나요. 오늘 따라 학생들이 많아서 조사 증말 잘되거든, 나 지금 시간 없으니까 들가서 얘기합시다. 전화 끊습니데이.” 하며 전화기 폴더를 닫으려는 순간 남편의 외침소리가 흘러 나왔죠.

“봐라! 니 지금 몇 신지는 아나?”

아차, 그건 몰랐죠. 그제야 핸드폰 시계를 확인해 보니 세상에, 새벽 2시가 반짝이고 있더라고요. 그때의 황당함이란……. 학생들 만나는 재미에 시간이 이렇게 가는 줄도 몰랐다니까요. 누가 벌써 새벽인 줄 알았겠어요. 여기는 초저녁인데……. 그래도 그날 전 몇 집 조사 더하고 집에 들어갔죠. 그런 날 있잖아요. 유독 잘되는 날. 한창 흥이 나고 있는데, 그냥 들어가기 정말 아깝잖아요.

참, 외국인 조사도 했어요. 조사원 여러분, 앞으로 외국인 조사한다고 너무 어려워 마세요.

그거, 콩글리시로도 되던데요. 우리나라 사는 외국인들 손짓 발짓, 몸짓이면 대충 다 알아듣는답니다. 이곳은 아무래도 대학 주변이다 보니 외국인들이 많이 살더라고요. 유학생에 학교 강사, 외국인 부인들…….

사실 처음에는 저도 암담했죠. 저요? 학교 다닐 때 영어 정말 싫어했답니다. 그리고 졸업한 지 어언 몇 년인데 머릿속에 남아 있는 영어 단어 몇 개 없지요. 그런데 이놈의 영어가 또다시 저를 괴롭힐 줄 누가 알았답니까. 영어사전을 가지고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고, 외국인을 만나지 않기만 비는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도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무심코 벨을 누르니 중국 유학생 2명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뭐라 뭐라 중국말로 하는데 도통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죠. 할 줄 아는 언어라고는 한국어 밖에 없는 저에게 그 학생들은 멀고 먼 만리장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뭐라고 하지? 어떻게 하나……. 이거 참 큰일이네. 중국말이라곤 하나도 모르는데.’ 문제는 그 학생들도 올해 처음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말이라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얼마예요.’ 밖에 모르더군요. 우리말은 아니고, 예라, 영어는 국제어니 어떻게 되겠지. 저는 생각나는 단어와 문장을 조합하기 시작했습니다.

“Hello, Excuse me!!! I'm census office girl. I'm kind. I'm beautiful!!!
you writing this census. It's easy”

사실 문법이라곤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거기서 친절하다는 얘기며 예쁘다는 얘기는 왜 했을까요. 어쨌든 학생들과의 의사소통은 OK! 열심히 외국인 조사표를 받아서 조사를 해주었습니다. 그 후로 저희 동사무소에서 저는 ‘센서스 오피스 걸’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뒤에 만났던 외국인들은 첫 번째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적을 불문하고 통과였죠.

사전 조사 3일, 본 조사 15일, 내검 조사 5일까지, 약 23일 동안 저는 정말 재미있고 신나게 일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조사원 여러분들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5년 뒤 조사하시는 여러분들, 제가 쓴 이 글을 읽고 좀 더 편하고 즐겁게 조사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 “아자, 아자 fighting?”

천천히 지어 가는 아이

조미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저는 세 아이의 엄마로 이번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전수 조사원으로 일했습니다. 대학생이던 1990년에도 인구주택 조사원으로 일한 적이 있었는데 결혼 11년차로 인생의 고비도 넘어 보고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 온 때문인지 이번 조사에선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연 모두가 정말 마음에 와 닿더군요. 그리고 그 중 한 할머니는 저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있기에 정말 더더욱 마음이 아팠답니다.

“계세요? 인구주택 조사원인데요.”

문을 열고 들어선 어둡고 좁은 집에선 유치원생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소리를 지르며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

더니 잠시 후,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셔서 조사에 응해주셨는데 아이는 잠시도 가만있지 않고 계속 소리를 지르더니 이번엔 싱크대로다가 물을 끼얹는 동작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눈에도 보통 아이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래서 “할머니 아이가 어디 아픈가요?” 하고 조심스레 여쭙더니, 할머니는 “보니까 알겠지요?” 하며 눈물을 글썽이시며 아이가 자폐 아동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끊임없이 같은 행동을 반복하며 의사소통도 되지 않고 통제도 되지 않는 아이. 아이의 부모는 그런 아이를 감당하지 못해 버리고 가 버렸고, 부모조차 버린 손녀를 차마 내 칠 수 없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거두어 기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너무 나이가 들어 버렸고, 게다가 우리 할아버지는 몸이 많이 아파요. 그런데 애가 이려고 있으니 안정을 취할 수 없나, 그러다 보니 병세는 더 심해지고. 그렇다고 아이가 하도 시끄럽게 구니 이웃도 싫어하는데 밖으로 데리고 나가지도 못하고. 겨우 특수학교 유치원에서 버스가 오면 데려다 주고, 끝나면 데리고 오고. 내가 뭐 아는 게 있어야 어떻게 해 보지. 그냥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우리 큰아이와 내 모습이 떠올라 가슴에 무거운 통증이 훑으며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얻은 아들. 헌데 아이는 신생아 때 뇌출혈이 일어

났고, 의사는 그 때문에 다른 아이들과 다를 것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린 정말 잘못 한 것이 없는데, 남에게 못할 짓 한 적도 없는데, 왜 하필 내 아이가 그리고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었습니다. 딛고 선 땅이 무너지는 느낌, 검고 어두운 허공에 내쳐지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그것은 단지 시작이었답니다.

모든 것이 늦었던 아이는 돌이 다 되어도 목 가누기가 힘들었는가 하면 세 살이 넘어서야 겨우 걸음마를 시작하더군요. 아이를 안고 나가면 가웃하며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엄마는 아이가 무슨 병이라도 있는 양,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저만치 물러서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럴 땐 눈물이 핑 돌며 ‘장애는 병이 아니에요. 그냥 불편한 거라고요.’ 하며 그 사람을 붙들고 하소연 하고 싶은 충동을 억눌러야 했습니다.

감정조절이 안 되고, 그래서 혹여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칠까 늘 노심초사해야 했던 아이. 절대로 엄마 옆에서 떨어지려 하질 않아서 유치원에 갈 때 조차도 늘 제가 옆에 붙어 있어야 했습니다. 엄마와 떨어지지 않으려 비가 쏟아지는 유치원 마당에서 뒹굴며 막무가내로 떼를 쓰는 아이와 한 시간이 넘도록 실랑이를 해야 할 땐 차라리 이 비가 쏟아지고 또 쏟아져서 우리 모자를 쓸어 가 버렸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만큼 막막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더구나 장애 아동들에겐 일반 아동과 달리 많은 치료가 필요하지

요. 언어치료, 운동치료 등……. 그런데 그 비용 또한 만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곳이 가격도 저렴하고 프로그램도 좋긴 하지만 워낙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라 치료를 받으려면 어떨 때 1년 넘게 기다려야 하는 곳도 있었지요. 하지만 아이들 치료엔 때가 중요하기에 하는 수 없이 사설기관을 찾아야 하는데, 사설기관의 비용은 복지관의 5~6배가 넘어 10년 전, 한 시간 치료에 2~3만원을 부담해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떨 때 경제적 부담 때문에 꼭 필요한 치료마저 시간을 줄여야 할 때도 있었답니다.

이렇게 장애아에겐 교육과 치료가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의 사랑과 정성이지요. 시간이 지나면 쏟은 정성만큼 아이가 좋아지고, 그럴 때 보통 아이들이 어느 날 불쑥 자란 것 같은 대견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느끼게 된답니다.

보통 아이들 열을 키우는 것 보다 더 힘든 장애아들. 하지만 그런 장애를 가진 아이를 기르며 내가 깨달은 것은 아이에 대한 사랑과 그 아이에게 얻는 기쁨은 내가 쏟은 정성과 시간에 비례한다는 것이었지요.

통제가 힘든 자폐아를 키운다는 것이 젊은 부모들에게도 힘든 일인데, 당신 몸을 가누기도 힘든 늙은 몸으로 손녀를 돌보는 할머니의 모습이 너무나 안스러웠습니다. 더구나 아이는 부모의 사랑도 받지 못한 채, 유치원 말고는 집에서 갇혀 지낸다니, 우리 큰아이의 모습이 겹치며 아이의 모습에 마음이 아렸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어떻게 위로와 힘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손을 잡고 저의 이야기를 해 드렸습니다.

“할머니, 사실 제 큰아도 장애아동이에요. 자폐는 아니지만 정신지체 1급으로 지금 초등학교의 특수 학급에서 3학년에 다니고 있거든요. 정말 장애아동 키우면 매일매일 속이 무너져요. 밖에 데리고 나가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 줄까 노심초사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면 그 시선 때문에 가슴 아플 때가 참 많아요. 처음 학교에 보낼 땐 저도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제법 잘 적응하고 있어요. 처음엔 학교 안 간다고 떼쓰고 울던 아이가 지금은 의젓하게 혼자 학교도 가고요. 지금은 힘들시겠지만 분명히 조금씩 조금씩 좋아질 거예요. 비록 더디겠지만 할머니가 희망을 잃으시면 안돼요. 할머니, 제가 한번 우리 아이 데리고 놀러 와도 될까요?”

“아이고, 그럼요. 놀러 와요.”

같은 아픔을 갖고 있는 나의 이야기에 할머니는 동지를 만난 양 반가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할머니와 약속을 하고 집을 나오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도 아이와 실랑이 하느라 많이 지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아이의 웃는 얼굴을 보면서 다시 기운을 얻곤 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는 그런 기쁨 보다 더 많은 눈물로 세월을 보내시는 듯 싶어 발길이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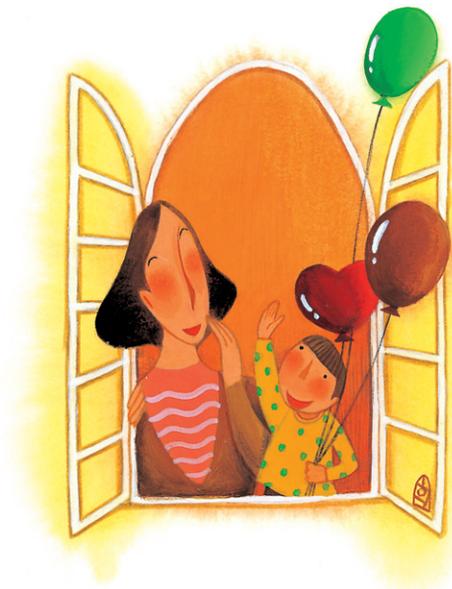
그래도 가족의 사랑을 받고 자랄 수 있는 장애아들은 행복한 셈입니다. 하지만 주위엔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부모에게 조

차 버림 받는 아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만약 장애아를 키우는데 조금만 그 부모의 힘을 덜어 줄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되어 있다면 할머니의 손녀는 부모에게 버려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말아톤’이라는 영화에서 자폐아 엄마의 대사가 떠오릅니다. “장애아를 가진 엄마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아이보다 꼭 하루만 더 살고 싶은 거라고요.”

이제 장애아의 부모들이, 그리고 부모인 내가 세상을 떠날 때, 장애를 가진 자식이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이 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2010년, 5년 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제가 또 한 번 조사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아직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때 지금보다 더 잘사는 나라, 그래서 그들이 짊어진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절망하는 사람이 없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아버님, 어찌 민으로리사나오?

변선희 (국립중앙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기장군에서 인구조사를 맡은 시아버님을 둔 주부입니다.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가 무사히 잘 마무리되어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조사원이 아닙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공식적’으로는 아닙니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저는 부산 기장군 일대를 낮이나 밤이나 휘젓고 다니던 천하무적 조사원이었습니다.

제 좌충우돌 조사 성공기 한번 들어보시렵니까? 사연은 이렇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입니다. 처음 아파트

에 조사원 모집 공고문이 붙은 다음날, 저는 아침 일찍 동사무소로 달려가 지원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자가 많긴 했지만, 나이로 보나, 미모로 보나 부족한 게 없던 저는 서류 접수도 폼 나게 한방에 해치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보기 좋게 낙방을 하고 만 것입니다. 신청자가 너무 많아 경험자를 우선적으로 뽑았다나요. 조금 섭섭하긴 했지만, '나랑은 인연이 없는 일인가보다' 며 마음 편히 생각하고 잊어버렸죠. 제가 그 정도에 마음 상할 조잔한 성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연세 많으신 저희 시아버님께서 조사원에 합격하셨다는 말이 들리는 겁니다. 놀라운 소식에 축하를 하긴 했지만, 사실 황당한 일이었죠. 생각해 보세요. 무려 칠순에 가까우신 시아버지는 딱하니 조사원에 합격하시고, 고작 삼십대, 콧대 높고 짱짱한 며느리는 툭 떨어졌으니, 당사자인 제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한동안 표정관리 하느라 고생캐나 했습니다.

어쨌든, 조사원에 합격하신 시아버님께서서는 군청에서 받는 조사원 교육에 인터넷 사이버 교육에 꽤 바쁘시더라고요. 이런 일이 처음인데다 주변에는 온통 젊은 사람들뿐이니 아무래도 부담되셨나 봐요. 이른 새벽부터 잠들기 전까지 마치 대학 입학 수험생이라도 된 양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셨답니다.

그렇게 시작된 준비 조사 첫 날. 이른 아침부터 저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조사원으로 첫 출근하신 시아버님이셨죠. 그런데 목소리에 기운

이 하나도 없으시더라고요.

“아가 내다……. 니 이따가 시간 대제. 내 쫘 도와줄라나?”

“와 예?”

“인구조사 하는 거 있잖나. 내 조사할라꼬 나왔는디, 이기 뭐 글도 잘 안 뵈고, 쫘매 쫘 헛갈려 부려서……. 와, 무신 놈으 글씨가 와 이리 작노!!”

대략 들으니 조사 현장에 나가셨는데,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고, 마음은 조급하니 저에게 지원 요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까지만 해도 ‘그까짓 거’ 하시며 기운차게 나가셨던 시아버님 목소리가 그새 한풀 꺾이셨더라고요.

저야 뭐, 하고 싶었던 일이고, 또 시아버님이 그리 말씀하시는 데 며느리가 어찌 거절을 하겠습니까. “알았어예. 제가 금방 갈꺼니까 어데 따신 데 잠깐 드가 계시소.” 흔쾌하게 대답하고는 부랴부랴 준비를 해서 현장에 나갔지요. 동네 가갯집 평상에 우두커니 앉아 심난한 얼굴로 담배를 물고 계시던 시아버님, 저를 보자마자 얼굴에 화색이 돌며 반기십니다. 그리고 숨 돌릴 틈도 없이 저에게 ‘조사구요도’며 ‘가구명부’, ‘가구스티커’ 등 종류별로 제각각의 서류를 넘겨주시고는 홀가분해 하시더군요.

일거리를 넘겨받고 보니 생각보다 많고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말씀이 “아가, 이거 그리 어렵진 안타, 지난번 교육받을 때는 이 조사구요도 보면서 조사 가구마다 가구번호 넣고, 가구번호대로 조사구요도에도 똑같이 가구번호 부여하고 울타리 하나로 묶고, 대

문 방향도 그려 넣는다 했거든. 근데 내 여기 나와 본계로 이걸 본 조사 때 또 해야 된다 말이지. 똑가튼거 두 번할 꺼 모있다. 그까네 너는 가구번호만 똑바로 부여하고, 나머지는 본 조사 때 하재 이……. 내가 눈만 잘 뵈든 후딱 할틴디……. 너도 내말만 들으면 딱 쉽다.” 호기 있게 설명하시는 시아버님, 목소리도 다시 우렁차게 바뀌셨답니다. 그동안 교육 받으신 아버님 말씀이 꽤 그럴싸하게 들렸기에 저는 울타리도 묶지 않고 대문 방향도 그리지 않은 채 조사구요도와 가구명부에 가구번호부터 부지런히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기장군이라는 지역의 특성상 가구가 한 곳에 밀집된 것도 아니고, 어느 집은 깊은 산 속 꼭대기에 홀로 떨어져 있기도 하고, 풀 더미 중앙에 집이 있기도 해서, 가구번호 부여하는 일만도 하루 종일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조사구요도를 보며 여기저기 숨어 있는 집들을 찾아내는 게 숨은그림찾기처럼 재미있어 준비조사는 시간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딱 쉽다!’는 아버님 말씀을 그대로 믿은 건 바로 고생길의 시작이었습니다.

드디어 본 조사. 이제 본격적으로 조사에 들어갑니다.

이른 새벽 일어나 밥도 든든히 먹고, 화장도 꼼꼼히 하고, 옷도 깔끔한 정장으로 골라 입고, 남편 출근 길 책임지는 10년 된 애마도 강제로 빼앗아서 부리나케 약속 장소인 마을 어귀에 도착했습니다.

다. 저희 아버님, 일찍 나와 계셨습니다. 결혼식장 가실 때나 꺼내시는 정장으로 아래위 쪽 빼입으셨더군요. 조사용품을 확인하며 아버님께 물었습니다.

“아버님, 밤새 생각해봤는데. 조사구요도에 조사한 집 표시를 하면서 일을 해 가든 더 쉬울 거 같아예…….”

“잉? 조사구요도가 뭐고……. 아. 그 큰 지도 좋아! 근디 그거 내 안 가꼬왔는디.”

“예? 우짜노, 그거 읍씀 어찌 합니꺼. 지도를 보면서 찾아 가면서 해알틴디.”

“아 그게 먼 걱정이고, 내 부산서 한평생을 살았는디. 이 바닥은 젊은 시절엔 다 내 손바닥 맨치로 훑혔다. 뭘 걱정하누, 여기도 대충 아는 동네니께 내 다 기억함 댜다. 딱! 나만 믿어라!”

이번에도 아버님께서서는 ‘딱!’ 당신만 믿으라 십니다. 마음이 확 놓이진 않았지만 아버님께서 워낙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 그래도 혹시나 했습니다. 평생 고향 떠난 적 없으신 게 사실이긴 하거든요.

“알았어예. 그럼, 오늘 조사한 집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데이.”

“오냐오냐”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을 하고 저희는 첫날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아버님께서서는 10분 전에 조사했던 집도 기억 못하시기 일쑤입니다.

“아가. 이 집 아까 조사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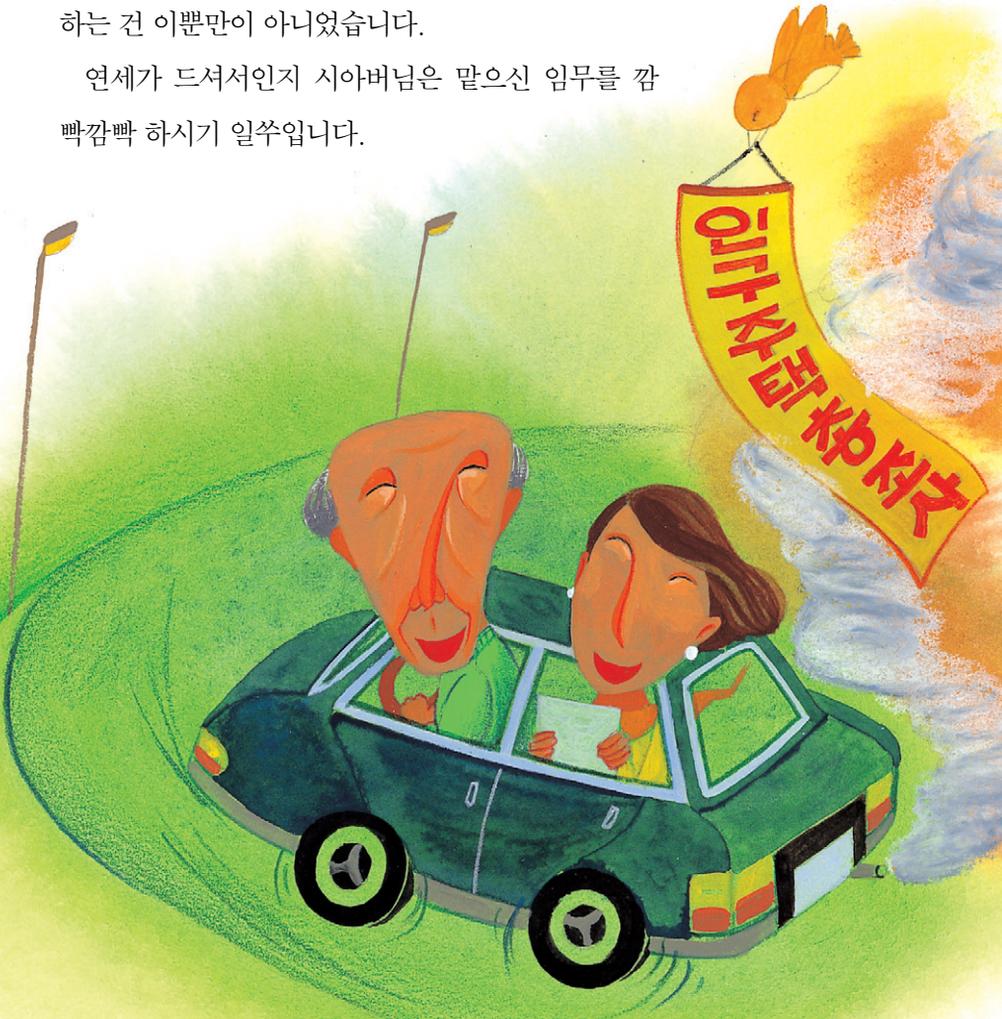
“어? 모르겠어예. 아버님 아신다면서예.”

“어어……. 근데 그게. 참……. 봐라, 젊은 니도 헛갈리제, 근데 나는 오죽하겠나. 그랑께……. 동네가 참 마니 변했다 아이가, 야야, 잠깐만 여기 있으래이, 내 언능 갓다오꾸마.”

“어휴…….”

다시 되돌아간 집 중에는 조사한 집도 있고, 아닌 집도 있더군요. 조사구요도 없이 일을 하자니, 지금 몇 번째 집을 조사하고 있는 건지, 어디까지가 조사할 집인지 매번 헛갈리더라고요 우왕좌왕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연세가 드셔서인지 시아버님은 맡으신 임무를 깜빡깜빡 하시기 일쑤입니다.



“어? 아가. 아까 그 집 내가 체크 하더냐?”

“예? 몰라예. 안 하셨어예?”

저도 조사표나 가구명부 작성이 아직 손에 익지 않은 상황이라 뭘 하나해도 정신이 없어 다른 일은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영……. 아무래도 잘 기억이 안난다. 다시 가 보자.” 이렇게 왔던 길을 되돌아가기를 몇 번, 저희는 하루 종일 왔던 길 되돌아가고, 조사했던 가구 또 조사 하는 것으로 조사 첫날을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 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제 몸은 물에 젖은 솜처럼 친근만근이더군요.

다음날 심기일전한 시아버님과 저는 이번엔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정리해 가며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행이 아버님께서는 조사구요도며 지침서도 잘 챙겨 오셨답니다.

그런데 역시나. 첫 번째 집 문 앞에 서니 시작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시골에는 ‘빈집’이 아주 많습니다. 실제로 비어 있는 집도 있고, 별장처럼 쓰이는 집도 있고, 농번기에 잠깐 쓰이는 집도 있고, 그런데 이 집은 모양새가 거의 빈집처럼 보이더라고요.

“아버님, 여기는 비어 있는 거 같은데예…….”

“그래? 그러믄 그냥 가믄 되지.”

“그래요? 혹시 교육받으실 때 빈집은 어째 하라고 암말 안던가예?”

“맞다……. 그계, 빈집은……. 뭐라 카긴하든데……. 내 도통 기

역이.”

“예에?(저절로 한숨만) 그러든 아버님 가구번호 저번에 다 부여 했는데 우짱니까?”

“그거야, 빈집보고 빈집이라는데 뭐가 걱정이고, 맞겠지.”

“진짜 맞아예?” 나는 반신반의하며 물었다.

“그게, 그러든. 잠깐만 있어보래이 내 이럴 줄 알고 대비책을 마련했으께. 음음. 여보세요. 아 수고하십니다. 내 조사를 나왔는데 예, 여 빈집이 있네요. 이걸 우짱니까? 아, 예예. 아 예……. 그런데……. 관리자님. 잠깐만요. 아……. 내가 헛갈리니. 우리 며느리 바꿔주께요이?”

‘이럴 수가…….’ 무려 10여 분 동안 담당자와 통화를 하신 아버님께서 그 전화를 다시 저에게 바꿔 주십니다. 결국 저는 처음부터 설명을 다시 들어야 했습니다.

담당자 설명을 듣자니 빈집은 ‘빈집조사표’ 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 ‘오늘 저녁에는 반드시 ‘조사지침서’를 전부 숙지하자’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막상 빈집조사표를 작성하자니 일일이 마을 이장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나만 딱! 믿어라?’ 시며 철석같이 약속하셨던 저희 시아버님. 나는 이장님과 사는 얘기며, 동네 돌아가는 얘기 하시느라 만나질은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저 혼자 돌아다니며 조사표 작성에 가구명부 작성, 게다가 사전조사 때 시아버님만 믿고 부실하게

했던 울타리 묶고, 출입구 표시하는 것까지……. 손이랑 머리가 열 개라도 부족할 정도로 정신없이 일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밤을 새가며 초특급으로 조사지침서 암기에 들어갔고, 사이버교육에 개인 교습까지 짧은 시간 베틀치기 공부를 통해 전문조사원으로 거듭났습니다.

좀 아니까, 아무래도 쉽더군요. 우여곡절 끝에 보름간의 조사를 마친 저는 조사표를 정리해 아버님께서 담당하신 지역의 면사무소에 제출했습니다. 담당자의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인사말에 가슴이 정말 뿌듯하더군요. 이제는 길옆에 보이는 창고나 우사, 집들이 평범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빈집일까? 아니야, 주방기구가 있으니,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고, 빈집 처리하면 안되지.’ 뭐 이런 식이었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조사가 끝나니 보람도 있고, 자신감도 한층 보태지더군요. 물론 시아버님과 재미있는 사연을 많이 만들었던 것도 즐거운 추억이었습니다.

조사가 끝난 날 저녁, 시아버님께서는 감 한 봉지를 사들고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아가. 이번에 조사한다고 니 수고 많았다. 내사, 우리 아기하고 길거리에 앉아 가지고 감 깎아 묵은 그는 절대 안 잊을 까다. 그자? 그라고 내 일당 입금되믄 니 용돈 쪼개 주게야…….”

“뭘을 예…….” (근데, 얼마예.^^)

“근데, 아가. 일당이 얼마드노?”

“일당 예? 정확히는 몰라도 좀 되잖나예. 와 예?”

“그게, 아무래도 그 일당보다 니 차 기름 값하고, 내 핸드폰 값이 더 나올 거 같아 그라제. 내 잘 몰라가꼬 면사무소 담당자한테 올매나 전화를 많이 했노. 니 안다 아이가.”

“아버님, 제가 그래서 핸드폰 말고 080-***-2005로 하시라고 했다 아닙니까…….”

“이그 님 무신 배짱이고, 그건 서울번호 아니가. 그라믄 전화비 더 나온게로, 난 글로 안했지. 와?”

세상에, 알뜰하신 우리 시아버님. 무료전화인 080번호를 알려 드렸더니, 오히려 그 번호가 돈 많이 나오는 서울 번호인 줄 알고 다른 번호로 담당자와 통화를 하셨답니다. 그러면 그렇죠, 아마도 이번 달 시아버님 핸드폰 요금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한달 통화 횟수까지 꼼꼼하게 기록하시는 분이신데, 아무래도 고지서 보시기 전에 미리 청심환이라도 챙겨 드려야겠네요.

저희 아버님, 지난 15일간 어떻게 일하셨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칠순이 가까운 연세에도 것처럼 활동적으로 사시는 모습이 며느리 된 입장에서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저요? 5년 뒤 있을 인구주택총조사 신청서 작성할 때는 ‘경력’란에 꼭 쓸 겁니다. ‘2005년 조사원 활동’ 이라고요. 다음번엔 조사원으로 더 잘 할 자신이 있으니깐요.

그건 그렇고, 제 용돈 조금 주신다는 시아버님, 아직……. 아무 소식 없습니다.

어머님께 감사드립니다

한영숙 한글서체디자인연구소 대표



‘좋아하시는 물호박떡 얻어 왔는데.’

아마도 떠나셨을 성 싶습니다. 어젯밤부터 가신다고 서두르긴 하셨는데, 새벽부터 눈이 수북하게 쌓여 정말 가셨을까 싶었습니다. 딸아이 학교 급식 당번이라고 오늘은 아침부터 종일 분주했습니다. 더군다나 급식을 끝낸 후 같은 반 아이 엄마들끼리 커피 한 잔 마신 게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친한 아이 엄마가 싸 준 물호박떡 한 덩이 때문에 마음은 더 급해졌습니다. 고소하고 찰진 맛에 엄마가 유난히 좋아하시는 떡입니다.

‘떡이라도 드시고 떠나심 좋겠구먼.’ 뛰다시피 종종걸음을칩니다. 갑자기 쌓인 눈에 길이 미끄럽습니다. 조심해서 발걸음을 재촉

했는데, 오랜만에 꺼내 신은 하이힐이 마음과는 영 따로 놓입니다. 결국 오른쪽 다리가 삐끗하며 얼음판에 엉덩방아를 찧습니다. 육신거리는 통증이 몸을 휘감습니다. ‘아구구야……. 이놈의 떡이 사람 잡네.’

계단을 겨우 올라 현관문을 급히 여니 집안이 썰렁합니다. 항상 켜져 있던 TV 소리도 안 들리고, 햇살 따듯한 창 곁에서 손뜨개질 하던 뜨개질 꾸러미도 보이질 않습니다. 정말 가셨나 봅니다. 큰 오빠가 모시고 간다 했으니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도 마음 한구석은 행해집니다. 다리에 힘이 확 풀려, 인기척 없는 거실 한켠에 떡보자기를 끌어안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팬스레 마른 목소리로 불러 봅니다. 금방 ‘그래, 다녀왔냐?’ 하며 맞아 주실 것 같습니다.

친정 엄마는 이번 인구주택총조사 하는 내내 우리 집에 올라와 계셨습니다.

마흔 넘은 딸자식이 일이란 걸 한다고, 혹시나 사위나 손녀들 챙겨 가며 하면 힘들까 봐 이것저것 신경 쓰지 말라며 보름이 넘게 집안일을 돌봐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무려 350가구에 달하는 조사를 하는 바람에 몸도 지치고 마음도 힘든 터라 친정 엄마의 도움이 고맙기만 했습니다. 여든이 넘는 아버지를 홀로 남겨 두시고 엄마는 그렇게 훌쩍 딸네 집으로 지원을 오셨던 겁니다. 조사하는 내내 사위랑 손녀들 식사

며 빨래, 집안 청소에 자잘한 뒤치다꺼리까지 엄마는 도맡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분량은 많았지만, 아침저녁 쉬지도 않고 마음 편히 쫓아 다닌 덕에 조사는 수월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한번은 방문했던 가구 중에 친정 엄마 나이 또래의 할머니들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햇빛도 잘 들지 않는 침침한 방, 사람의 온기라곤 없는 곳에서 살고 하루 종일 그저 혼자 떠들기만 하는 TV를 친구삼아 생활하시는 할머니이었습니다. 일곱 남매를 공부시켜 모두 결혼시키고 이제 혼자 빈집을 지키는 신세가 되었다며 깊은 한숨을 쉬시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신세지고 부담 주는 것이 싫어 혼자 사신다는 할머니는 고지식한 성격 탓에 친구도 없으신 듯 싶었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들어 드리고 집을 나서니, 할머니는 너무나 서운한 목소리로 “애기 엄마 또 놀러 와요.” 하는 말을 되풀이 하셨습니다.

다른 한 분도 그 할머니와 처지가 아주 비슷한 분이었습니다. 미혼인 아들과 함께 살고 계시는 데, 아들이 2~3주에 한두 번 밖에 오지 않기 때문에 늘 혼자셨고, 더군다나 이사 온 지도 얼마 되지 않아 친구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집에 들어와 친정 엄마에게 두 분의 사연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나이 들어 외로운 분들에게 친구만큼 좋은 것이 없다’며 그 두 분을 소개해 친구를 맺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올 겨울 나실 내복도 한 벌 못 사드리고,

잘 가시라고, 딸자식 뒷바라지 하시느라 고생하셨다고

배웅도 제대로 못했는데, 그 뒷모습마저 못 본 게

이렇게 마음에 걸릴 줄 미처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생각인 듯싶어 두 분을 소개해 드렸더니, 두 분 모두 기뻐하시며 이제는 날마다 오기는 친한 사이가 되셨습니다.

친정 엄마 덕에 외로우신 할머니들이 서로 말벗도 되고, 의지할 수 있는 인연을 얻게 된 것은 너무나 보람됐지만, 평생 뼈 빠지게 일 하셔서 남부럽지 않게 공부시키고, 자식들 모두 출가시키고 이제는 오히려 그 자식들에게 짐 될까 홀로 외롭게 저물어 가는 그분들을 생각하면 그것이 남의 사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하루가 다르게 육신도, 마음도 약해지시는 부모님을 볼 때마다 마음이 시린데, 지금도 내 부모님은 산 있고, 들 있는 고향이 좋다며 인적조차 드문 촌에서 평생을 하루같이 살고 계십니다. 장성한 6남매 혹시나 부족할까 손수 농사지은 고추며 감자며 햅쌀까지 바리바리 들려 보내주십니다. 그러고도 당신들은 삼시 세끼 잘 먹고, 약도 잘 먹고, 좋은 공기 췌며 일하는데 무슨 걱정 있느냐며 여든 넘은 노인들이 마흔의 자식 걱정도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렇게 나이를 먹어도 자식은 부모에게 애면글면할 수밖에 없나 봅니다.

조사 시작할 즈음 남편은 친구한테 얻었다며 늙은 호박 한 덩이를 들고 왔습니다.

그걸 보시며 엄마는 “명절에 물호박떡 못해 먹어 아쉽다만, 어매야, 우리 시간 나면 이거 가꼬 물호박떡 한 시루 쪄 먹자꾸나.” 하셨습니다. 유난히 물호박떡을 좋아하시는 아버지 덕에 우리 집은 명절 날만 되면 늙은 호박을 갈라서 속을 파내고 껍질을 벗겨 납작하게

썰어 팔고물과 쌀가루와 호박을 쪼개어 얹어 시루에 찌내곤 했습니다. 호박의 찰진 맛이 떡을 한결 감칠 맛나게 해 떡 한 시루가 순식간에 바닥을 보이곤 했습니다.

만들기도 어렵지 않고, 재료가 없는 것도 아닌데, 이리저리 바쁘다는 핑계로 그 떡 한번 제대로 찌 드리지도 못하고 어머니는 가 버렸습니다. 올 겨울 나실 내복도 한 벌 못 사 드리고, 잘 가시라고. 딸자식 뒷바라지 하시느라 고생하셨다고 배웅도 제대로 못했는데, 그 뒷모습마저 못 본 게 이렇게 마음에 걸릴 줄 미처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온통 적막강산인 거실 한 귀퉁이에서 나는 애꽃은 떡보자기 끄트머리만 부여잡고 한숨을 쉽니다. 언제 들어왔는지 남편이 놀라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그제야 나는 푸념 반 원망 반 울음 섞인 넋두리를 늘어놓습니다.

“여보. 물호박떡……. 가지고 왔는데. 미끄러워서 넘어졌단 말이야……. 엉엉.”

게다가 옆에서 보고 있자면 아이들에게도 정말 지극정성이지 싶다. 아무튼 아내는 별반 걱정 없이 살아 온 주부였다.

그런데 그런 아내에게 사건이 생겼다. 생전 바깥세상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 본 적 없는 그녀가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원이 되었다. 나는 여태껏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본 적 없는 아내가 과연 그런 일을 해 낼 수 있을까 걱정이 된다. 하지만 세상을 살며 그런 경험 한번쯤 해보는 것도 괜찮을 듯싶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역시 세상은 아내에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사전 교육이 있던 첫날. 교육장으로 간다며 아내는 설레는 모습으로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그런데 오전이 다 지나갈 무렵 아내가 집으로 돌아왔다. 아직 교육이 끝날 시간이 아니었는데. 풀죽어 들어 온 아내는 교육장으로 가는 버스를 탄다는 것이, 반대 방향으로 가는 버스를 타는 바람에 오전 내내 시간만 허비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 왔다는 것이었다.

다음날 나는 아내가 또 다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까 봐 아내를 교육장까지 태워다 줄 수밖에 없었다. 3일을 받아야 하는 교육을 이틀로 마무리한 채, 아내는 처음 세상과 부딪히기 위해, 조금은 불안한 출발을 시작했다.

본 조사가 시작되기 전 날, 동사무소에 다녀 온 아내는 각종 조사표와 지도, 필기구들이 가득한 봉투를 와르르 거실에 쏟아 붓는다. 이게 다 뭔가 싶어 내 눈이 휘둥그레지는데, 아내는 온통 어질러진 방 한켠에 털썩 주저앉아 '막상 시작하고 보니 어디서부터 해

야 할지 겁부터 난다며, 괜한 짓을 했나 보다.’ 라고 푸념하기 시작했다. 나는 짐짓 모른체 해본다. ‘이제 어떡할 거냐?’ 는 내 물음에 아내는 내가 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했으니 숫자에 밝을 테고, 당신이 좀 도와주면 안 되냐고 한다. 나는 대꾸 없이 신문만 뒤적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식탁엔 내가 좋아하는 보쌈과 소주 한 병이 올라와 있었다. 교회에 다니는 탓에 여태껏 술상 한번 제대로 차려 주지 않던 아내였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하는 내게 아내는 살갑게 소주를 따라주곤 보쌈 한 점을 입에 넣어 준다. 얼떨결에 받아먹긴 했지만 생전 처음 누려 보는 호강이 영 어색하기만 했다. 소주 한 병이 다 비워 갈 무렵, 드디어 아내는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당신이 나를 좀 도와 줘요. 부부란 게 일심동체 아니에요. 서로 부족한 걸 메워 주는 게 부부잖아요.” 푸짐한 보쌈으로 뇌물까지 받은 처지니 냉정하게 자를 수도 없어 “그래, 알았어. 내 알아서 해줄게.” 대답을 하자 아내는 눈물까지 글썽거리며 ‘고마워요’ 를 연발한다.

조사 첫날. 나는 차에 아내를 태우고 동사무소로 향했다. 아내가 동사무소에서 이것저것 준비를 하는 동안 주차장에서 커피 한 잔을 뽑고 기다렸다. 영락없이 사모님을 기다리는 기사 처지가 되었구나 싶다. 그리고 얼마나 기다렸을까 아내가 조사구요도를 들고 나타났다. 일단 아내가 맡은 구역으로 향한 나는 옛날 군대 복역하던 시절 경험을 되살려 지도에서 지형지물을 이용한 중심기점을 찾았다. 그

곳은 바로 연립구조 건물로 아홉 세대가 사는 빌라다. 시골의 작은 빌라이니 조사에 별로 어려움은 없을 듯 싶었다. 빌라에 들어서자 마당 가득 고추가 널려 있었고, 할머니와 이낙들이 모여 함께 이야기하며 고추를 손질하고 있었다.

우리가 들어서자, 사람들은 경계심 어린 눈으로 우리를 쳐다본다. 아내가 다가가 “반갑습니다. 인구주택조사원입니다.” 라고 인사를 건네자 사람들은 금세 호기심 어린 얼굴이 되어 텔레비전에서 선전하는 것을 보았다면 반갑게 맞는다. 정말 텔레비전이라는 매체의 힘이 크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사람들은 서로 앞장서서 자기 집을 먼저 조사해 달라고 손길을 잡아끈다.

아주머니들에 둘러싸여 조사표를 작성하는 아내를 보며, 참 운이 좋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인다. 삼십여 분 만에 아홉 세대를 조사한 아내는 내가



중심 기점을 잘 잡아 시작이 좋았다며, 생각보다 일이 잘 풀릴 것 같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한다. 하지만 내 마음 한편엔 미리 너무 좋아 하는 아내가 조금은 불안해 보인다.

다음 조사구역으로 발길을 옮긴다. 논길을 십여 분 걸었을까? 택지개발 지구로 지정되어선지 논밭은 아무도 농사를 짓지 않은 채 버려져 있고 온통 쓰레기와 무허가 공장, 고물상들이 즐비하게 들어섰다. 아내와 나는 요도에 표시되어 있는 허름한 고물상으로 들어갔다.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에 벌컥 문이 열렸는데 아내는 기겁을 하며 놀란다.

웬 건장한 외국 사람이 전통의상으로 보이는 치마 같은 옷을 걸치고 나왔는데, 동남아 출신인 듯한 그들은 아내보다 뒤편에 서 있는 남자인 나를 불안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아마도 외국인 불법 취업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내는 난감하여 어쩔 줄 몰랐고, 그 사이 또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이 나와, 자기들 끼리 무어라고 하면서 문을 닫고 들어가려 한다. 어떻게든 조사를 해야겠다 생각에 나는 짧은 영어와 손짓 발짓을 동원하여 조사에 대한 설명을 했다. 그런데 이게 또 웬일인가? “조사 오신 거예요?” 세 사람 모두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 사람들은 한국에 온 지 5년 정도 되었으며, 스리랑카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선생님을 하던 사람도 있었다. 그런 그들을 보니 문득 60~70년대 독일에 광부와 간호원으로 간 우리의 젊은이들이 떠올랐다. 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고학력자였지만

잘 사는 나라로 돈벌이를 떠나지 않았던가.

조사를 마치고 나오니 벌써 점심시간이었다. 점심을 먹기 위해 큰 도로로 나오자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3층짜리 건물에 붙어 있는 중국집 간판이었다. 아내와 나는 그곳에서 점심을 해결하기로 하고 들어갔다. 텅빈 홀 안은 썰렁했고, 점심시간을 훌쩍 넘겨 조금 쉬려고 했던 종업원에게 우리는 영 반갑지 못한 손님인 듯싶어. 테이블에 앉아 요도를 보던 아내가 “아!” 하고 반가운 낯빛을 한다. 이 중국집 역시 아내의 조사 구역이었던 것이다. 아내는 “사장님, 인구주택 조사 하러 나왔는데요. 조사하는 동안 자장면 두 개 될까요?” 한다.

자장면이 나오는 시간을 이용하여 조사를 마치니, 딱딱딱한 자장면 두 그릇이 테이블에 놓여진다. 아침부터 쉬지 않고 돌아다니는 탓에 자장면이 꿀맛이다. 마파람에 게 눈 감추듯 자장면을 해치우고 난 뒤, 계산을 하기 위해 지갑을 꺼낸 내게, 주인은 한사코 “수고 들 하시는데 그냥 가시라”며 손사래를 친다. 가게를 나오며 아내는 조사하면서 음식 대접까지 받자 마냥 뿌듯하고 신나했다.

가을 오후, 긴 햇살이 비친 아내의 뺨이 빨갛게 상기 되었다. 하지만 내 맘속엔 이제 겨우 몇 집을 들렀을 뿐이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하는 생각이 든다.

아니나 다를까. 양철로 덮인 대문은 20분이 넘게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다. 아무도 없는 듯 싶어 다음에 다시 오자고 하니, 아내는 그새 기운이 쪽 빠져 발길을 돌린다. 처음으로 조사를 못하게

된 상황을 만나자 아내는 몹시 허탈해 한다. 하지만 내겐 그것이 당연해 보인다. 인생이란 마냥 좋은 일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산이 있으면 골이 있고, 밝음이 있으면 어두움도 있다. 그렇게 세상살이를 하는 것인데, 실망한 얼굴로 어깨가 처져 걸어가는 아내가 곱게만 자란 온실 속 화초 같다.

그럭저럭 해는 서산으로 기울었고, 조사를 계속 더 하겠다는 아내에게 ‘오늘은 이 정도 했으니 집으로 가자’고 달래며 차에 올랐다. 조수석에 앉은 아내의 얼굴이 조금은 피곤하지만 행복해 보였다. 종중걸음 치는 길가의 행인들 목이 한껏 움츠려 있는 것이 바람 때문만은 아닌 듯싶다. 자기 몫을 해야 하는 삶의 무게로 그들의 어깨가 무거워 보인다.

그렇게 며칠 동안 아내의 조사를 따라다니다 보니, 나중엔 피도 나고 귀찮기도 하여 아내 혼자 해보라고 모른 척 미뤄보기도 했다. 하지만 아내는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며 나를 다그친다.

인구조사 마지막 날, 택지개발로 인해 모두들 이사 가고 다 허물어져 가는 주택 몇 채만 남아 있는 동네를 찾았다. 몇 번을 방문해도 사람이 없던 집이었다.

오늘도 없으려나. 몇 번을 두드리다 보니 드디어 안에서 인기척이 들린다. 좀 어눌한 여자의 목소리였다. 문을 열자, 아내는 인사를 하고 인구조사 왔다는 설명을 했다. 하지만 무어라고 대답하는 여자의 말을 통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도무지 대화가 되질 않았다. 그때, 안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 있던 남학생이 벌떡 일어나 나왔다.

그 여자는 학생의 누나였으며, 정신지체에 시각장애가 있다고 했다. 낮에는 누가 찾아 와도 절대로 아는 척 하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 났기에 문을 열어 주지 않았던 것이고, 어머니는 식당에 나가 음식 나르는 일을 하며 생활을 한다고 했다.

조사를 마치고 그 집을 빠져 나오며 아내는 가슴이 아려했다. 몸이 아파도 자식들을 위해 식당 일을 해야 하는 어머니와 장애가 있어도 제대로 시설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어야 하는 누나의 모습이 안타깝다고 했다.

앞으로는 이런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 이들처럼 소외 받는 계층이 제대로 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어느덧 15일 대장정 아내의 조사 작업이 막을 내렸다. 처음 시작할 땐 당황스러웠는데, 무사히 조사가 마무리 되어 다행스러웠다. 조사표를 정리하여 가방에 챙겨 넣고 동사무소에 제출하기 위해 가뻘하게 집을 나서는 아내의 뒷모습을 배웅하며, 마치 작은 아이가 어느새 훌쩍 커 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건 왜일까.

이번 조사를 통해 그동안 몰랐던 세상과 이웃을 만날 수 있었다고 좋아하는 아내를 보며,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얻은 경험이 곱게만 살았던 내 아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이 될 것 같아 나 또한 마음이 뿌듯해 졌다.

* 원작자의 요청으로 등장인물의 이름은 가명으로 처리했습니다.

마음을 채워준 밥 한 끼

홍윤옥 작가, 1965년 11월 15일생, 서울대학교 문예창작과 졸업



가을걷이가 끝난 들녘은 늙은 부모의 마음 같다. 모든 것을 자식에게 다 주고 당신들은 불편하더라도 자식들만 잘 살면 된다며 고개를 끄덕이는 노부모의 가슴처럼 가을 들녘은 텅 빈 공허를 여유로운 미소로 채우고 있다.

처음에 조사요원으로 일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단순히 생활비에 보탬이 될 수 있으리란 생각 때문이었다. 일도 힘들지 않을 것 같았고, 며칠 고생하면 아이들 학원비 정도는 내가 벌 수 있으리란 생각에 가슴이 부풀었다.

내가 조사원으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자 딸아이는 예쁜 원피스를 갖고 싶다고 했고, 아들은 새로 나온 로봇을 갖고 싶다고 했다. 그리고 남편은 별면 얼마나 벌겠냐며 반신반의 했지만 내심 모두들

근사한 외식 정도는 기대하고 있었다. 얼마를 버느냐는 돈의 액수를 떠나 아이들과 남편 모두, 엄마가 다른 때와 달리 활기차고 생기가 있어 보인다고 좋아했다. 그리고 나 역시도 인구조사를 하는 동안에는 아이들과 남편에게 가사 일에 대해 협조를 구하며 배짱도 부려 보았다. 늘 따뜻한 세 끼 밥을 차려 줘야 한다는 전업 주부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퇴근한 남편에게 직접 저녁 좀 차려 먹으라고 호기를 부릴 땐 짜릿한 쾌감마저 느껴졌다.

꽤 있게 시작한 인구조사였지만, 조사는 처음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내가 맡은 지역은 읍내에서 한참을 들어가는 산골이라 발품을 많이 팔아야 했다. 젊은이들은 모두 떠나고 대부분 허리 굽은 노인들만 살고 계시는 집들이라 보니 조사가 순탄치만은 않았다.

“계십니까? 안에 누구 계세요?”

분명 안에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불리도 대답이 없다. 살짝 문을 열어보니 할아버지 한 분이 누워 계신다. 방안은 이리저리 어질러진 그릇이 아무렇게나 끼니를 때우신 듯싶었고, 귀가 잘 안 들리시는지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도 동문서답을 하신다. 찬 바람은 부는데 온기 없는 집안은 바깥보다 더 춥게 느껴졌다. 기름값이 엄청 비싸게 올랐기 때문이라신다. 문득 머릿속으로 기름 한 드림 값을 계산 해 본다.

관절염이 심하셔서 거동을 못하시는 할머니는 조사가 다 끝났는데도 자꾸 뭐든지 더 물어보라고 하신다. 행여 모처럼 찾아온 손님

이 빨리 자리를 뜰까 봐 손을 잡고 같은 말씀을 하시고 또 하시는 할머니. 그동안 입에 군내가 날 정도로 말 할 기회가 없으셨다며 내가 그만 자리를 털고 일어서려 하자 마냥 서운해 하신다. 그런 분들의 집을 방문하고 나면 가슴 한구석이 시리듯 아파온다. 괜히 코끝이 찡해져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안부를 여쭙는다. 지금 우리 부모님도 저렇게 뼈에 사무치는 외로움에 절어 계실까? 돈을 받으면 제일 먼저 쓸 곳이 생겼다. 부모님께 내의라도 사서 찾아 봐야겠다.

산골 구역 이곳저곳, 외딴 집을 찾아가야 할 때, 계곡에 발이 빠지기도 하고, 한 집을 찾아 가기 위해 30분이나 산행을 하기도 했다. 게다가 그렇게 찾아 간 집이 부재중으로 비어 있을 땐 맥이 쭉 빠져 버린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고역스러운 일은 식사를 하는 것이었다. 한 끼 밥을 먹기 위해 차를 타고 30분 거리에 있는 시내로 나갔다가 돌아오자면 한 시간은 족히 지나가 버린다. 그래서 빵이나 간식거리를 가지고 다녔는데, 그날은 급히 나오느라 아무것도 챙기지 못했다.

어느새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세시가 되었다. 드문드문 골짜기에 있는 집들을 찾아다니다 보니 뱃속은 꼬르륵 소리로 요동을 치고 다리에 힘이 풀려 걸을 수가 없었다. 게다가 근처엔 요기를 할 만한 곳도 보이지 않고 정말 집에 두고 온 찬밥 한 덩이가 너무나 그리웠다. 그런데 마침 버스정류장 근처에 조그만 구멍가게가 보이는 것이 아닌가. 게다가 가게 앞에는 동네 할머니들이 모여 10원짜리 화투를 치고 계셨으니…….

얼른 주인 할아버지께 컵라면 하나를 부탁하고 모여 있는 할머니
들을 대상으로 인구조사를 시작했다.

“컵라면 시킨 걸 보니 점심도 못했구먼?”

“요새 우리 동네 인심이 왜 이리 야박해졌나? 아, 손님 대접을 해
야지 지들만 입에 밥을 넣어?”

할머니들이 입을 모아 나의 배고픔을 위로해 주신다.

달랑 컵라면 하나를 시켰을 뿐인데 할아버지께서는
집에 있는 반찬을 다 동원해 푸짐한 상을 내 오셨다.
양에 차지도 않는 컵라면을 게 눈 감추듯 먹고 옆치
불구하고 공깃밥 하나를 청했다. 할아버지께서는
식당이 아니라 공깃밥은 팔지 않는다고 녀살을 피
우시더니 고봉으로 공깃밥을 담아 오셨다. 그 밥이
어찌나 달고 맛있던지, 순식간에 밥을 비우고
나니 배가 부르고, 이제야
서서히 할머니들의 얼굴이
구별되었다.

사람이 앉으면
눅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다더니.
이제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이 그리웠는데,
이런 내 마음을



아시는지 할아버지께서 김이 오르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내미신다.

“이건 서비스야.”

천정아버지가 내미시는 듯싶어 가슴이 뭉클했다.

산골 구멍가게에서 대접받은 만찬과 향긋한 커피 한 잔.

나를 채운 것은 단순히 육신의 배부른 포만감만이 아니었다. 따뜻한 인정이 가슴을 채우며 험한 지역을 돌아다니느라 힘들었던 서러움이 사르르 녹는다.

잘 먹었다는 인사와 함께 라면 값을 여쭙니 천 원이라 하셨다. 나는 공깃밥 값까지 이천 원을 드리고 나왔다. 그런데 할머니 한 분이 나를 따라 오시며 “이거 가져가라.” 하신다. 뭔가 홀리고 왔나 하며 뒤돌아보니 내가 드린 이천 원을 도로 가지고 오시는 것이었다.

“우리 동네 인구조사 하러 와서 애쓰신 분인데 점심 대접 못해 미안하이. 이천 내가 내줄 테니 그냥 도로 가지고 가시게.”

마음만 받겠다고 한사코 뿌리쳐도 할머니는 내 주머니 속에 돈을 집어 넣고 가셨다. 요즘 이천 원은 큰 돈이 아닐지라도 할머니가 주신 천 원짜리 두 장은 만 원짜리보다 더 크게 보였다. 십 원짜리 화투를 치시면서 십 원짜리 하나 잃는 것도 벌벌 떠시는 할머니께서 내 주신 거금 이천 원을 나는 곱게 펴서 지갑 안에 고이 간직해 두었다.

시골 인심이 야박해졌다고들 하지만 아직도 시골에는 사람 냄새 풍기는 따뜻한 정이 가득하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 시내에서 일하는 조사요원들은 문도 잘 안 열어 주고, 묻는 말에 사생활 침해라며 쌀

쌀맛게 대꾸해서 곤란할 때가 많다고들 했다. 하지만 내가 맡은 산골은 길이 험해서 그렇지 한분 한분 모두 친절했고 딸처럼 대해 주셨다. 귀한 나랏일 한다며 나를 존중해주시던 순박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보면서 따뜻한 정을 느꼈다.

단순히 살림에 보탬이 될까 싶어 생각했던 인구주택총조사. 그 일을 하는 동안 나는 낯설었던 시골 길만 이리저리 찾아 다녔던 것이 아니라, 생각지 못했던 내 인생의 골목골목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내 여정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보름간의 짧은 일정은 끝났다.

이제 우리가 정성스럽게 조사한 통계 수치들이 하루속히 반영되어 홀로 사는 노인들과 외로운 아이들, 그리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 되어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본다.

그리고 더 추워지기 전에 나에게 잊지 못할 만찬을 대접해 주셨던 그분들을 찾아가 막걸리 한 사발에 푸짐한 돼지보쌈을 꼭 대접해 드려야겠다.

그리고... 아무 말 못하다

성은선 작: 한국여성노동조합연맹(한국여성노동조합)



우리는 자매다. 언니는 서른여섯에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둔 아직은 처녀적 감수성을 자랑하는 곱고 여성스런 주부이고, 나는 이제 막 신혼살림에 고소한 깨 볶는 냄새가 가득한 서른 살의 새댁이다. 그런 우리가 이번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조사원과 조사관리자로 한 지역에서 근무 했다. 처음에는 현장을 다니는 조사원인 언니와 조사원을 관리하는 내 입장이 아무래도 차이가 있어 알게 모르게 의견 충돌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나는 좀더 언니가 잘해 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언니는 관리자인 동생에게 싫은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신경을 쓰면서 일을 했더니 나중에는 서로 도움도 많이 되고, 일하는 것도 훨씬 수월해졌다.

자매가 함께 일을 하니 신기하고 재미있는 일이 많았다. 한번은

부채중인 가구를 방문하기 위해 늦은 저녁 언니와 함께 길을 나선 적이 있었다. 연약한 여인네 둘이 골목골목 외진 길을 가다보니 아무래도 무섭기도 하고 신경이 쓰이기도 했다. 길모퉁이를 막 돌아설 때였다. 갑자기 언니가 목소리를 낮춰 속삭이며 물었다.

“애……. 지금. 저 뒤에……. 저 남자……. 우리 따라오는 거 아니니?”

“그래? 누구? 누구?”

“어휴……. 애는, 돌아보지 말고……. 저기. 저 남자. 검정색 옷을 입은 사람.”

“몰라. 난 안보여, 그런데 언제부터?”

“몰라, 조금됐어. 저기 코너 돌 때부터가……. 우리 가는 쪽으로 자꾸 오잖아.”

“지나가는 거겠지, 여긴 길이 이거 하나뿐이잖아.”

“몰라 애. 어떻게 해. 따라오는 거면…….”

유난히 겁이 많은 언니는 웬 남자가 따라오는 것 같다며 잔뜩 긴장한 채, 울상이 됐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여기 섰다가 저 남자 지나가면 갈까?”

“그러다가 저 사람이 우리 해코지라도 하면 어떻게 하니, 여기 너랑 나랑 둘뿐인데.”

사실 우리가 지나는 골목은 어둡기도 했지만, 뻑뻑하게 집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티 안 나게 몸을 피하기도 마땅치 않았다. 뒤를 돌아볼 엄두도 내지 못한 우리는 신경만 잔뜩 곤두세운 채 걸음만 재

축했다. 어둡고 인적 드문 골목길에서 우리의 하이힐 소리와 뒤따라 오는 남자의 구두소리만 유난히 크게 울리고 있었다.

“어휴, 힘들어. 이럴 때를 대비해서 호신술이라도 배워놓을 걸……. 무서워 죽겠네, 애, 좀 어떻게 해봐.”

“아니, 나보고 여기서 뭘 어떻게 하라고. 에이, 참. 언니, 갈 집 여기서 멀어?”

“거의 다 왔어. 여기 골목만 빠져나가면 돼, 조금만 더 가면 되는 데. 어떻게……. 진짜.”

“나도 모르지. 에라……. 안되겠다. 언니, 우리……. 뛰자…….”

“엉? 어어…….” 나는 언니의 손목을 잡고 걸음아 나 살려라하며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숨이 턱에 차고, 놀란 다리 근육들은 아우성을 쳤다. 숨 가쁘게 뛰어 겨우 목적지에 도착하니 온몸에 힘이 쭉 빠졌다.

“헉헉. 안 따라오니?”

“헉헉. 휴……. 응. 안 와…….”

“어휴, 십년감수 했다 애…….”

“푸하하……. 그러게. 헉헉. 근데 언니. 나 몇 년 만에 이렇게 똥 건지 모르겠네.”

“그러게 말이다……. 어휴, 힘들다 힘들어 이제는 운동 좀 해야겠다. 휴우? 무서워 죽는 줄 알았네! 이게 뭘 일이니. 애, 아무래도 다음부터는 너희 형부 데리고 다녀야겠다.”

“그렇긴 하네. 그래도 혹시 그 사람 언니가 맘에 들어서 쫓아온

거면 아쉬워서 어떻게 해.”

“어이구. 섬뜩한 소리 하지도 말아 애, 내가 벌써 애가 둘이다.”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도 잠깐이지만 신나게 뒹덕분인지 기분은 개운했다.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막 도착한 집의 벨을 누르려는 찰라, 난데없이 등 뒤에서 굵직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쇼……?”

이럴 수가……. 조금 전까지 우리를 따라오던 그 남자였다.

“까악?” 언니와 나는 화들짝 놀라며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 언니의 조사원 가방이 가뿐하게 허공으로 날아올랐다.

“철~썩!” 정통으로 남자의 얼굴에 꽂히는 노란가방…….

“으으으…….” 남자는 고개를 푹 꺾으며 몸을 앞으로 숙였고, 내 눈은 휘둥그레졌다. “손가락 하나만 까딱 해봐요. 죽을 줄 알아.” 언니의 앙칼진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다. 눈앞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영화 속 한 장면인 듯 나는 입만 벌린 채 눈만 꺾뺨거렸다. ‘기도 작고 여성스럽기만 한 언니의 어디에서 저런 천하무적의 힘이 나오는 걸까?’ 곁에서 신음하는 남자와 사납기 그지없는 언니의 모습을 번갈아 살피며 나는 외려 신기하기만 했다.

이때 신음과 함께 들리는 남자의 말소리 “으으……. 에이……. 이 아줌마들이……. 여기 우리 집인데. 당신들……. 도대체 누구요?”

‘세상에 이럴 수가…….’ 우리가 방문하려는 집이 바로 남자의 집

이란다. 우리는 또다시 두 눈이 둥그레졌다. 아마 지금 마주보는 우리의 표정은 똑같을 것이다. 명랑 만화에 나오는 망치로 머리를 짖한대 맞은 얼떨떨한 기분이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우리는 그 남자를 거의 치한 취급을 했으니……. 게다가 대문짝만하게 커다란 조사원 가방에 정통으로 뺨을 맞았으니. 얼마나 아플까!

“아……. 그러니까. 저는 아니, 저희는 그러니까 자매인데. 아니, 그게 아니라 조사원인데……. 그 뭐냐, TV에서 요즘 CF도 하는 인구랑, 주택이랑…….”

남자는 맞은 자리가 아픈지 얼굴을 찡그린 채 우리를 췌려봤다.

하지만 언니와 나는 놀라고 황당한 마음에 말도 제대로 못하고 계속 횡설수설하기만 했다.

아……. 하늘도 무심하지지, 교육받을 때는 이런 상황을 어찌 대처하란 말은 없던 것 같은데. 이 난관을 어찌 헤쳐 나가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다.

“그래서 어찌라고요. 나 원 참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아니고, 이 아줌마들이 남의 집 앞에서 사람을 개 패듯이 패 놓고선 뭐 어찌라고요?” 남자는 성질을 버럭 내기 시작했다.

“죄송해요. 저희는……. 뒤따라오시기에 너무 놀라서……. 죄송해서 어찌죠. 죄송해요.”

그 상황에서 언니와 나는 “죄송합니다!”를 연발할 수밖에 없었다.

어찌됐는가, 이미 가방은 날라 갔고, 남자는 대차게 한 방을 맞았

으며, 그 오해의 장본인이 바로 우리인 것을…….

손이 발이 되도록 미안해하고 있는데, 대문이 열리고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셨다. 아마도 집 앞의 어수선한 소리가 집안까지 들렸나 보다. 할머니는 자초지종을 들으시더니 허허 웃으시며 우리를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다. 다행이 그날, 우리는 할머니의 도움으로 그 집의 조사를 마칠 수 있었다.

우리의 오해 때문에 치한으로 몰렸던 그 아저씨는 할머니의 아들 이라셨다. 조사를 하는 내내 우리는 아드님의 따가운 눈총으로 자리에 앉아 있기가 고역이었다. 어떻게 조사를 마무리 했는지도 모른체 ‘죄송합니다!’ 만 연발하며, 허둥지둥 그 집을 나왔다.

‘휴우…….’ 문이 닫히자마자 십년 먹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처럼 한숨이 흘러 나왔다. 그런데 서로 눈이 마주치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웃음보가 터지고 말았다.

‘세상에 이럴 수가, 푸하하하…….’ 눈물이 나오고 배가 아플 때까지 웃음은 그치질 않았다.

“크크크……. 언니 힘센데. 한 방 맞으면 거의 KO 되겠어!

“호호호. 어휴. 모르겠다! 애, 나도 무슨 정신에 그랬는지.”

“근데, 그 아저씨. 정말 머리가 멍~한 표정이었어.”

“그러게……. 나라도 그랬겠다. 어찌니. 얼마나 아팠을까. 정말 아팠겠지? 미안해서 어찌니.”

“어, 진짜 아팠을 거야. 이 가방 아무래도 좀 크다 싶었는데, 이제 보니 호신용으로 딱 인 걸.”

'휴우…….' 문이 닫히자마자 십년 먹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처럼

한숨이 흘러 나왔다. 그런데 서로 눈이 마주치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웃음보가 터지고 말았다. '세상에 이럴 수가, 푸하하하…….'

눈물이 나오고 배가 아플 때까지 웃음은 그치질 않았다.



“크크크……. 그런 것 같다 애.”

그날 밤 우리 자매는 오랜만에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어깨 동무를 하고 신나게 밤길을 걸어 내려왔다.

그 후에도 우리 자매는 밤늦은 시간에 방문하는 집이 있으면 조사원 가방을 꼭 챙겨 나가곤 했다. 가방만 있으면 어떤 으스스한 길도 우리에게겐 천하무적이었다. 조사가 끝난 요즘도 언니와 나는 조사원 가방 챙기는 걸 잊지 않는다.

노란 가방, 호신용으로 제격이다.

• • •
제 2 장



함께 손잡고



사과나무를 심는 마을

홍영민 (작: 44/4/2006, 4/2007, 4/2008)



“엄마, 이번 달 우리 집 주요 뉴스가 뭐 있어요?”

가족신문 만드는 숙제를 하던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마침 조사표 정리에 여념이 없던 저는

“글쎄……. 11월 신문이니까, 엄마가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원’으로 일하게 된 걸 쓰면 어때?”

그런데 대답을 듣는 아이의 얼굴이 순간 뾰로통해집니다.

“에이?, 그건 싫은데, 그거 말고 다른 거 없어요?”

초등학교 5학년인 딸아이는 사춘기가 오려는지 조사원인 엄마가 자기 친구들 집이나 다른 사람 집을 방문하는 것을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그런 아이에게 숙제로 써낼 가족신문에 조사원 엄마의 이야기를 쓰라고 하니 아무래도 꺼려지는가봅니다. 공책에 글씨를 쓰는

아이의 손놀림에 투덜거림이 가득합니다. 아무래도 아이의 생각을 조금은 바꿔어야겠다 싶어 작성하던 조사표를 잠시 밀어두고, 신문에 들어갈 가족 뉴스를 함께 만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기사의 헤드라인부터 적었습니다.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원으로 일하는 우리 엄마’

‘국가 기본 통계조사인 인구주택총조사 - 경제와 사회, 정책입안의 기초 자료’

이렇게 제목을 뽑고 보니 아이는 조금씩 신이 납니다.

그래서 딸은 기자, 저는 조사원이 되어 인터뷰 형식으로 기사를 써보기로 했습니다.

기자(딸) : 어떤 동기로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원이 되셨나요?

조사원(엄마) : 저는 평소에 시청에서 발행하는 지역 정보지를 열심히 보는데요. 기사를 통해 올해에 인구주택총조사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나라에서 하는 일이고, 무엇보다 이 조사가 국가 운영의 가장 기본이 되는 통계조사로 경제나 사회 발전을 위한 기초 자료로 쓰인다고 하니 참 중요한 일이다 싶어 꼭 한번 해보고 싶었죠.

기자(딸) : 일하면서 힘들거나 어려운 점은 없나요?

조사원(엄마) : 왜 없겠어요. 조사란 게 생각했던 것만큼 쉬운 일은 아니더군요. 사실 그냥 방문해서 몇 가지 질문만 하면 되는 단순한

일인 줄 알았는데, 요즘은 낮 시간에 비워져 있는 집도 많고, 만나다 해도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이것저것 말하기를 싫어하죠. 특히 생년월일 같은 건 몹시 꺼려합니다. 이 조사가 다른 목적으로 쓰이는 게 아니고, 또 주민등록이나 호적과는 상관없는 실제 생년월일을 말씀하시면 된다고 설득해도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비밀보호용 봉투를 사용하거나 인터넷 조사를 권합니다.

기자(딸) : 개인적인 사생활에 해당하는 질문도 있다는데요?

조사원(엄마) : 네. 아무래도 이혼이나 사별, 학력, 집의 소유 여부에 관한 질문들은 어떻게 보면 사생활적인 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사실 저도 가끔 얼굴을 마주치던 분들에게 이혼을 했는지, 사별을 했는지, 집이 전세인지 아닌지를 물어야 할 때는 정말 난처했어요.

하지만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해주시는 것이 결국은 본인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결코 답변하기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결혼 가정이 얼마나 되는지, 교육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주택은 어떻게 가지고 어떤 형태로 살고 있는지, 이런 모든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고심해서 만들어 놓은 문항들이니까요. 정확한 통계를 만들어 낼수록 그것을 위한 정책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기자(딸) :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가네요. 그렇다면 조사활동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나요?

조사원(엄마) : 기억에 남는다고는 마음이가 아팠던 일이 있어요. 몇

번을 방문해도 만날 수가 없었던 집이 있었죠. 방문스티커가 없어지는 걸로 봐서 빈집은 분명 아닌데, 하루는 밤늦은 시간에 방문을 했더니 중학생쯤 되는 남자아이가 문을 열어 주더군요. 어른들은 안 계신다고 했어요. 만나기 쉽지 않았던 집이라 중학생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정보라도 얻어야겠다는 생각에 부모님 이름부터 차례로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큰누나, 작은누나의 성이 아버지와 다른 거예요. 조사표를 적던 저는 “누나인데 성이 달라?”며 무심코 되물었죠. 그리곤 바로 ‘아차?!’ 싶었습니다. 재혼한 가정일 경우에는 성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조사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을 꿈에도 안 해 본 거예요. 그 짧았던 몇 초의 순간, 당황한 소년의 얼굴을 아직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는 어른이었지만 아직 얼굴에 솜털이 보송한 어린아이. 아마도 자신의 가족사를 저에게 털어놓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아이에게 누나의 ‘성’이 어떻게 다를 수 있냐는 눈치 없는 질문을 했으니……. 아이에게 상처를 준 제 자신이 어찌나 한심했는지 모릅니다.

딸아이와 인터뷰를 하던 저는 그 소년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실 제게도 얼마 전 재혼한 오빠가 있습니다.

새로 들어온 올케 언니에게도 꼭 그 소년만큼 순하디 순하게 생긴 중학생 아들이 있습니다.

항상 말이 없고 공부만 하는 조용한 성품의 아이는 또래보다 좀 어른스럽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란 게 참 묘사스러운 건가 봐요. 기특하고 안쓰러운 아이에 대한 마음과는 상반되게 새로 생긴 조카라는 그 아이의 성씨가 저와 같아진다는 것에는 거부감이 있었답니다. 호주제가 있건 없건 간에 무슨 핑계라도 대서 그것은 막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의 경험을 통해서 재혼 가정의 아이들에게 형제나 자매, 오누이와 성씨가 다르다는 것이 얼마나 날카로운 상처가 될 수 있는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무심결에 던진 낮모르는 사람의 한마디가 자라나는 아이에게 잊지 못할 상처를 남겨 놓는 거였죠. 그리고 그것은 내가 모르는 남의 일이 아닌 내 이웃에서 아니, 바로 내 가족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이제 호주제도 폐지됐지만, 그것이 법적으로 있던 없던 간에 재혼한 가정이나 결혼 가정을 바라보는 편견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랜 세월동안 ‘이렇게 사는 건 정상이고, 저렇게 사는 건 비정상이다.’ 하는 정해진 시각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삶의 방식을 인정하고, 제 스스로가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웠다면 당황하던 그 아이를 앞에 두고 더 당황하는 그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조사를 하는 동안 만났던 이혼이나 재혼, 편부, 편모슬하의 모든 아이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 미래의 주인공들입니다. 아이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천정 모서리마다 풍선이 매달려 있고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소파 위 장식 없던 벽에 '축 결혼기념일! 엄마 아빠

축하해요!' 라는 서툰 글씨가 그제야 눈에 들어왔습니다.



야 말로 어른들이 할 일이란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서는 데, 우리 집 행사란에 적힌 '11월 9일,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이라는 기사가 보입니다. 별것 아니라 생각하고 시작한 인구주택총조사가 어찌나 사람을 바쁘게 하던지 까맣게 잊고 있었던 날입니다. 결혼기념일인 그날도 미처 찾아가지 못했던 집들을 방문하고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먼저 퇴근한 남편이 청소를 해 놓았는지 거실은 오랜만에 반짝반짝 깨끗합니다. 천정 모서리마다 풍선이 매달려 있고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소파 위 장식 없던 벽에 '축 결혼기념일! 엄마 아빠 축하해요!!' 라는 서툰 글씨가 그제야 눈에 들어왔습니다. 요 며칠 바쁘다는 이유로 가족들에게 신경도 잘 쓰질 못했는데, 따뜻한 환영에 가슴이 뭉클하더군요. 남편의 선물과 함께 곱게, 아주 곱게 쓴 딸아이의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엄마, 인구주택총조사 하느라 힘드시죠. 제가 처음에 엄마 조사원으로 일하시는 거 창피해해서 죄송해요. 선생님이 가족신문 잘 만들었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조사원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는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사랑해요!”

* 원작자의 요청으로 등장인물의 이름은 가명으로 처리했습니다.

참새 같은 삼남매

조속희 조속희는 2015년 10월 10일 출생한 10살의 소녀입니다.



달동네란 내겐 그저 책에서 이야기로만 듣던 곳, 드라마에서나 보았던 곳이었다. 그런데, 이번 인구조사 조사원으로 일하면서 내가 맡게 된 구역이 바로 달동네였다.

높은 산꼭대기, 한 사람이 지나다니기에도 좁은 미로 같은 골목에 나지막한 지붕들이 서로 이마를 맞대고 나뭇의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

그곳에는 병든 몸으로 구청에서 나오는 보조금으로 살아가는 아주머니와 자식들이 있지만 아무도 찾지 않아 혼자 살고 계시는 할머니, 새벽이 돼야 집에 들어온다는 술집 아가씨, 날씨가 궂으면 당장 끼니 걱정을 해야 하는 막노동으로 생활하는 아저씨, 부모와 떨어져 친척 집에 얹혀사는 아이들……. 정말 많은 사연들이 달동네

쪽방을 채우고 있었다.

그렇게 15일 동안 조사요원으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도 내 가슴을 아리게 하며 문득문득 떠오르는 잊을 수 없는 얼굴이 있다.

“계세요? 실례 합니다.”

노란 가방을 메고, 조사요원증을 목에 걸고 조금은 떨리는 음성으로 사람을 불렀지만 나를 반기는 것은 왕왕거리며 달려드는 세 마리의 크고 작은 강아지들.

한참을 찾아 대도 아무도 내다보지 않던 그 집은 집 주인 외에 13가구가 세 들어 사는 쪽방이었다. 손바닥만한 마당을 사이에 두고 다닥다닥 붙은 방들이 늘어서 있었고, 부엌이나 화장실은 재래식으로 공동 사용인 듯했다. 이리저리 기웃거리려 보고 기다려 봐도 방마다 출입문에 자물쇠만 굳게 채워진 채 대답이 없었다. 가져온 재방문 스티커에 연락처를 적어 각각의 출입문에 붙이고 있을 때였다. 어디선가 가냘픈 목소리가 “아줌마…….” 하고 나를 불렀다.

고개를 돌려 두리번거리니 작은 쪽문에서 빠끔히 고개만 내밀고서 있는 여자 아이가 눈에 들어왔다. 아마 네댓 살쯤 되었을까……。언제 빚었는지 모를 한참 헝클어진 머리에 내의만 입은 아이는 물끄러미 나를 보고 있었다. 창백한 얼굴조차 너무나 가냘프게 보이는 아이였다. 내가 다가가자 아이는 그새 문틈으로 쪽 들어가 모른 체하고 있었다. 내가 다시 가는 시늉으로 발소리를 내자 다시 쪽문으

로 고개를 내밀고 내다보는 것이었다.

“혼자 있니?”

“응, 좀 있으면 작은오빠 올 거야.”

“그래? 엄마, 아빠는 일 가셨니?”

“.....”

“일 가셨어? 언제쯤 들어오시니? 아줌마가 나중에 다시 와야 되니? 들어오시는 시간 가르쳐 줄래?”

“엄마 없어. 아빠도 없어.”

순간 아차 싶었다. 이 어린 것에게 내가 대체 뭘 물어 본걸까?

“어……. 그래. 그렇구나. 그럼, 이 집에 누구랑 사니? 할머니?”

“아니, 큰오빠야랑 작은오빠야. 그리고 나. 우리 셋이 살아.”

“그랬구나!”

나는 아이의 머리와 어깨를 쓸어 주었다. 마치 작은 참새 한 마리를 만지는 느낌이었다.

쪽문을 열고 방안을 들여다보았다. 어른 둘이 겨우 누울 만한 침침한 방에는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는 옷가지들과 함께 냄비며, 그릇들, 휴지와 교과서들이 뒹굴고 있었다. 축축한 곰팡이 냄새와 음식 냄새가 영켜 방 안은 쾌쾌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고, 덩그러니 벽에 걸려있는 사진 속 엄마, 아빠의 웃는 얼굴은 현실과 동떨어져 보였다.

‘도대체 이 아이들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집 주인을 만나고 나서야 나는 아이들의 사정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사업 실패로 빚쟁이들의 독촉에 시달리던 부모가 산동네 단칸방에 이 아이들만 덜렁 남겨 놓고 떠나서는 이제까지 소식이 없다고 했다. 그래서 고작 열 몇 살인 큰오빠가 동생들 뒤치다꺼리며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한다고 했다.

그랬다. 세상엔 입에 풀칠하는 것조차 숨 가쁜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며칠 동안 내내 그 작은 아이의 집을 지날 때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아이의 눈빛을 떨칠 수가 없었다. ‘지금쯤 혼자서 무얼 하고 있을까? 밥은 챙겨 먹었을까?’

며칠이 지난 뒤, 나는 과자 봉지와 붕어빵 봉지를 들고 아이의 집 쪽문 앞을 기웃거렸다. 그러자 인기척에 문밖으로 얼굴을 내밀던 그 아이, 작은 참새가 나를 보고 반갑게 인사를 했다. 방안으로 들어가 들고 온 과자 봉지와 붕어빵을 내밀어 놓자 아이는 얼굴이 환해졌다. 자기가 좋아하는 과자를 찾는지 보스락거리며 봉지를 뒤적이던 아이는 이불 밑으로 과자봉지를 집어넣었다.

“왜? 먹지 않니?”

“오빠야 오면 먹을래.”

이것저것 얼마나 먹고 싶은 것이 많을 나이, 사주는 사람도 없을 텐데. 정말 기특한 아이였다. 이런 아이를 버려둔 채 멀리 떠나 있을 수밖에 없는 부모는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어른들의 실수가 이 아이들에게 더 큰 상처가 되지 않기를 빌었고, 하루 빨리 부모들이 돌아와 저 작은 아이를 보듬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낮에는 비어 있는 가구들이 너무 많기에 결국 밤 9시가 넘어 남편을 대동하고 다시 그곳을 찾았다. 골목길로 접어들어 삼남매의 집 앞을 지날 때였다. 무엇이 재미있는지 아이들 웃음소리가 문밖에서도 들렸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중1 큰 오빠가 꾸벅 인사를 한다. 여자아이도 쪼르르 다가와 내 옆에 쪼그리고 앉았다.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 이것저것 묻자 큰아이는 또박또박 대답을 잘한다. 부모님의 생년월일과 결혼기념일까지 알고 있었다.

벌써 어른이 된 듯 한 큰아이가 대견스러워 어깨를 두들겨 주었다. 그리고 가져간 음료수와 달걀 한 판을 내려놓았다. 이리저리 이부자리를 봐주고 용돈이라며 작은 돈을 손에 쥐어 주곤 “큰오빠는 엄마 아빠 오실 때까지 동생들 잘 보살피고, 작은오빠는 학교 끝나고 바로 와서 여동생 잘 보살피 줘. 글자도 가르쳐 주고, 알겠니? 그리고 넌 오빠들 말 잘 듣고, 자다가 일어나서 울지 말고, 집밖으로 마구 돌아다니면 안 돼. 알겠니?” 하고 말했다.

세 아이는 고개를 떨어뜨리고 끄덕이기만 한다. 사실 내가 하는 이런 말들이 아이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정작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게 아닐 텐데…….

내가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세 남매는 스스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잘 적응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몇 번 들여다본다고 해서 생활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바꿔 줄 수 있는 게 그리 없는 우리의 현실이 마음 아파 더 이상 앓아 있을 수가 없었다. 아이들의 집을 나와 산동네를 내려오며 울

세 남매는 스스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잘 적응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몇 번 들여다본다고 해서 생활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바뀌 줄 수 있는 게 그리 없는 우리의 현실이

마음 아파 더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러다 본 하늘엔 유난히 총총한 별빛만 반짝이고 있었다.

조사 마지막 날, 밤이고 낮이고 도대체 만날 수 없었던 택시기사 한 분이 조사표를 작성해 때문에 쫓아 놓았으니 가져가라며 전화를 하셨다. 반가운 마음으로 봉투를 찾아 나오는 길에 다시 아이들 집 문을 두드렸다. 문에는 자물쇠가 굳게 잠겨져 있었다. 궁금한 마음에 주인집을 찾아 물으니 아침 일찍 외할머니께서 오셔서 아이들을 데려갔다는 것이었다. 이유는 모르고, 한 열흘 이상 걸릴 것이라는 말만 하셨다고 한다.

모든 조사가 끝나고 정리를 마친 조사표 묶음 속에서 아이들의 조사표가 내 코끝을 찡하게 했다. 눈을 떼지 못하고 한참을 들여다보던 나는 가만히 아이들의 이름 하나하나 위에 조심스레 안부를 묻는다. 다들 건강하고, 씩씩하고, 이 겨울 잘 보내고, 어서 엄마 아빠와 함께 살게 되고…….

그리고 별일은 없는 거지? 작은 참새들아.

대한민국 1% 그들의 커뮤니티

정경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원



21세기 들어 처음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도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것 같다. 지난 8월 교관 교육을 갈 때 만해도 끝이 없을 것처럼 아득했던 일이었다. 조사원 교육에서부터 거리 홍보, 취약 지구 지원 등등, 잠시도 쉬지 않고 이리 뛰고 저리 뛰다 보니 한바탕 홍역이라도 치른 듯 힘이 빠진다. 통계청에서 근무하는 동안 여러 번 해 온 일이지만 횟수를 거듭할수록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걸 보면 그동안 제법 쌓아 왔다고 생각했던 노하우들은 막상 필요할 때가 되면 어디로 가 버리는 걸까?

인구주택총조사를 계기로 만나고 헤어진 수많은 얼굴들이 기억 속을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나는 올해 까다롭기로 소문난 강

남구를 담당했다. 그리고 그 명성만큼 저마다 조금씩 다른 색깔의 삶을 살아가는 다양각색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차이에 서글픔을 느끼기도 했고, 낯설기도 했다.

강남구에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산다.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안 될 만큼 넉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단칸 월세방에서 삼대가 옹기종기 모여 사는 집들도 많다. 자본주의의 장점과 단점, 그 극단의 모습이 어느 지역보다 여실히 드러나는 곳이 바로 강남구일 것이다.

조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불응 조사구의 설득 요청이 들어왔다.

해당 아파트는 국내에서 가장 비싼 곳으로 최고 부유층이 거주한다며 언론에도 자주 거론되는 유명한 곳이었다. 워낙 소문이 난 아파트라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사람이 사는 곳인데 뭐가 그리 다들라고.’ 반신반의 하면서 나랏일을 하는 자부심인 공문서를 보물처럼 챙겨 들고 사무실을 나섰다.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제일 내로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살까?’ 하는 궁금증 반 호기심 반 기대감이 일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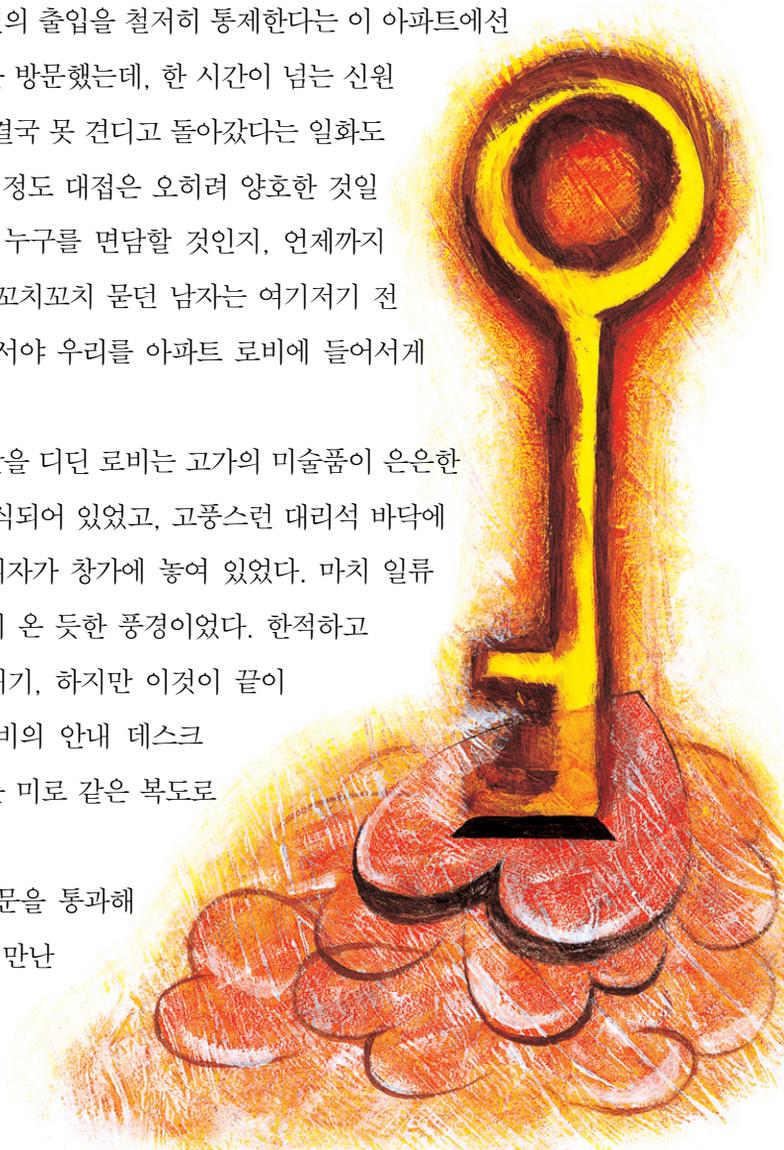
그런데 막상 도착하고 보니, 현실은 그리 녹녹치 않았다. 정문 진입부터가 난관이었다. 성벽을 쌓은 듯 굳건하게 닫혀 있는 철문 앞을 지키던 남자가 우리를 마뜩치 않게 쳐다봤다. 입주자들은 전용도로로 들어가고 우리 같은 방문자들은 정문 경비실을 거쳐야 한다. 진입로에서부터 신분이 갈라지는 것이었다. 방문 신청을 하니

정장 차림의 남자가 귀에는 이어폰을 꽂은 채 찾아온 목적을 묻고 신분증을 요구했다. 신원조회가 까다롭게 이루어지는 동안 나는 지금 서 있는 이 곳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파트 입구가 맞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하긴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한다는 이 아파트에선 친척이 주민을 방문했는데, 한 시간이 넘는 신원조회 때문에 결국 못 견디고 돌아갔다는 일화도 있다 하니 이 정도 대접은 오히려 양호한 것일 지도 몰랐다. 누구를 면담할 것인지, 언제까지 있을 것인지 꼬치꼬치 묻던 남자는 여기저기 전화를 하고 나서야 우리를 아파트 로비에 들어서게 해주었다.

어색하게 발을 디딘 로비는 고가의 미술품이 은은한 조명 아래 장식되어 있었고, 고풍스런 대리석 바닥에 폭신한 안락의자가 창가에 놓여 있었다. 마치 일류 호텔의 로비에 온 듯한 풍경이었다. 한적하고 고즈넉한 분위기,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로비의 안내 데스크에서는 우리를 미로 같은 복도로 인도했다.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해
그 다음으로 만난



사람은 총무과의 보안팀장이었다. 단호하고 엄격해 보이는 보안팀장의 외모는 마치 자격 없는 사람은 절대로 들여보내지 않겠다는 직업의식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듯했다. 사무실 안에는 수십 대의 모니터가 무슨 영화에서나 본 듯한 형태로 늘어서 있고, 주차장이며, 로비, 엘리베이터를 포함해 체력단련장이며 놀이터와 같은 주요 시설과 주변의 교통상황까지 실시간으로 비춰지고 있었다. 그리고 언제 왔는지 모르는 어린 학생 두 명이 고개를 푹 숙이고 경위서를 쓰고 있었다. 아마도 아파트 안이 궁금해 몰래 담장을 넘어온 학생들인 것 같았다.

‘사람 사는 곳에 사람이 좀 들어왔기로서니 이게 무슨 황당한 일인가…….’ 가슴에 묵직한 것이 내리 누르는 것처럼 답답해졌다. 그러나 ‘나는 공무집행 중이다.’ 하며 주눅 들려는 마음을 추스르고 방문한 목적을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 꼭 협조해야 하는 이유와 중요성을 강조하니 보안팀장은 조사 시간에 제약을 두어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만 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도저히 그렇게 해서는 기일 내에 조사를 끝낼 수 없는 시간이었다. 나는 시간 조절을 요구했다. 그러나 보안팀장은 첫인상만큼이나 완강하게 거부했다. 주민들이 워낙 사생활 보호에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다 보니 해 지고 난 후에는 방문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이 조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조목조목 예를 들어 설득하기 시작했다. 바다에서 나침반이 생명과 같듯이, 국가 통계가 바로 이런 나침반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야기했다. 나침반이 없거

나 잘못된 나침반을 사용하면 영원히 망망대해에서 미아가 되듯이, 통계수치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노인 문제나 청년 실업, 저 출산 문제 같은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없고, 1%의 오차에 1천억의 혈세가 낭비되고, 사소한 오차로 수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리고 이곳에 사시는 분들이야 넉넉하시기 때문에 걱정이 덜 할지는 모르지만, 당신이나 나나 우리가 늙어서 힘이 없어서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그 불행한 오차에 우리가 낄 수도 있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나의 설명은 끝났고, 사무실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똑딱거리는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우리 사이를 메우고 있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흐음?’ 하는 깊은 한숨소리가 들렸다. 보안팀장이 말문을 열었다. “그럼 언제까지면 됩니까. 단, 10시가 지나기 전에는 끝내야 합니다.” 나는 떨 듯이 기뻐다. 드디어 우리는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기쁜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서려는 내게 보안팀장은 말했다.

“저도 방 두 개짜리 집에서 일흔이 넘으신 어머님을 모시고 삽니다. 잘 조사해 주십시오. 그런 분들이 편안하게 나이 드실 수 있도록…….”

짧지 않은 공무원 경력에 통계청에 몸을 담고 일해 오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해보기는 올해가 처음인 것 같다. 조사 기간 내내 긴장의

연속이었고 밤낮으로 뛰어다니느라 몸은 지칠 대로 지쳐 갔다. 하지만 그 시간을 보내며 나는 타인의 마음을 여는 가장 중요한 재산은 진실한 마음과 믿음이란 사실을 다시금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앞으로 내 삶의 여정에 단단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이제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값진 유산으로 남을 것이다.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 온 몸으로 땀 한 해가 저물어 간다. 내 공식생활의 마지막 일지 모를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나에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내 생애 최고의 해로 추억될 것이다.

성산마을 사람들

신미경 (작: 44/45/46/47/48/49/50/51/52/53)



단풍이 제철을 만나 울긋불긋 산을 휘감아 놓은 11월 초.
쌀쌀한 바람이 살짝 감도는 기분 좋은 늦가을, 파란 하늘을 맞으며 인구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사실 내 마음은 그리 상쾌하지 않았다. 내가 맡은 구역은 바로 한센병 환자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성산마을. 우리 동네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지만 한센병에 대한 선입감 때문에 20년을 이곳에 살면서도 한번도 가보지 않았던 곳이다. 그러다 보니 인구조사를 나서는 마음 한 구석엔 약간의 긴장과 일말의 불안감이 담겨 있었다.

마을을 들어서니 양계장에서 풍기는 특유의 코를 찌르는 악취 때문에 미간이 저절로 찌푸러졌다. 스물 네 가구가 함께 사는 성산마

을은 주민들은 모두 노동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으로 양계장을 하고 계셨다. 육신이 온전치 못한 분들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양계장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산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손가락이 없어 조사표조차 손등으로 조심스레 받아야 하는 사람들. 일상생활조차 남의 손을 빌어야 할 처지에 불편한 재래식 가옥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더구나 그 중엔 한 집에 11식구가 옹기종기 사는 집도 있었다.

24시간 따뜻한 물이 나오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가 즐비한 21세기 대한민국에 이렇게 낙후한 곳이 있었다니. 평생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천형이라 불리는 병과 싸우며 가난과 생활의 불편함까지 안고, 게다가 이웃과 가족으로부터 따돌림 당하며 살아야 하는 이들의 삶이 정말 가슴 아팠다.

인구조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이런 저런 생각에 머리가 복잡했다. 반나절을 악취에 시달린 탓에 몸은 으슬으슬 아팠고, 속이 메스거렸다. 잠시만 다녀와도 이렇게 머리가 아프고 속이 불편한데, 그 안에서 평생을 살아야 하는 그들은 어떨까? 손가락이 조금 베이기만 해도 하루 종일 육신거리고, 양치질이며 세수하는 것조차 불편한데, 손가락이 없어져 버린 뭉툭한 손으로 밥을 챙겨야 하고, 노동을 해야 한다니 정말 생각만으로도 너무 힘겹고 버거운 일이다. 그분들에게 그 흔하디흔한 아파트라도 지어 드리고 약값 걱정, 밥걱정 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사회가 해야 하는

최소한의 복지 아닐까?

그러면서 언젠가 극동방송에서 들었던 이야기 한 토막이 떠올랐다.

어느 아버지에게 열 아들이 있었다 한다. 그런데 아내가 죽고 형편도 어렵던 중에 막내아들이 나병이 들었던다. 그래서 아버지는 하는 수 없이 그 아들을 소록도로 데려가기로 했다. 섬으로 가는 도중 아버지는 아들을 소록도에 버리고 오느니 차라리 같이 죽자 싶어 아들을 데리고 바다로 뛰어 들려 했단다.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를 만류하며 자신은 죽어도 아버지는 살아야 한다며 서럽게 울었던다. 결국 아버지는 아들을 소록도에 혼자 떼어 놓고 모질게 발걸음을 옮겼다. 아버지는 아들을 버리는 심정으로, 아니 차라리 죽어서 마음에 근심이나마 덜기를 바라며 아들을 떼어놓고 왔다. 그때 헤어지며 하는 아들의 말이 “아버지 저는 잊으시고 형들 잘 키우고 잘 사세요.” 였단다. 그 후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억에 지우고, 나머지 자식들 키우며 먹고 살기에 바빴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을까? 자식들은 다 장성하여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었고, 자식들 뒷바라지에 골병 든 몸만 남은 아버지는 갈 곳이 없어졌단다. 자식들은 나름대로 잘 살았지만 서로 아버지를 모시려 하지 않았고, 이 집에서 한 달, 저 집에서 한 달 이렇게 옮겨 다니던 아버지는 급기야 그것마저 미뤄 대는 탓에 오갈대도 없는 천덕꾸러기가 되어 버렸다. 사는 게 허탈하고, 목숨 부지하는 게 구차하던 아버지는 어디

멀리 가서 죽어
야겠다는 생각
으로 무작정
기차를 탔다.
그런데 문득,
그 오랜 세월
잊고 지내던
막내아들이 생각
나더란다. 너무나
오래 잊고 있었던
아들. 죽음을 앞두고



그 아들이 너무나 간절히 보고 싶던 아버지는 생사조차 모르는 막내
를 찾아 소록도로 향했다. ‘아들이 살아 있을까? 나를 기억은 할까?
그때 그렇게 버리는 게 아니었는데, 살아 있으면 나를 얼마나 원망
할까.’

애타는 마음으로 소록도에 도착한 아버지. 그곳에선 어느새 머리가
회끗해진 아들이 단숨에 아버지를 알아보고 ‘하루도 잊은 적이
없다’며 반가움에 목을 안고 울더란다. 자신을 버렸지만 원망은 커
녕 아버지를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며 살았던 아들. 아들은 평생소원이
이루어졌다며 늙은 아버지를 정성껏 모셨더란다. 그리고 아버지는
여생을 자신이 버렸던 막내아들과 함께 소록도에서 행복하게 살
았더란다.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 계시는 어떤 분의 증언이었기에 더욱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이야기였다. 비록 소록도에 버려졌지만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않았던 아들. 그 아들은 비록 보잘것없는 한센병 환자였지만 출세한 다른 형제들보다 훨씬 풍요로운 사랑 안에 살고 있었던 것이다.

물질과 외모지상주의가 판치는 요즘, 새 옷을 사달라고 며칠째 조르는 아이에게 ‘옷을 사면 하루가 행복하지만, 사랑을 베풀면 평생 행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 줘야겠다. 아이들에게 삶을 얘기할 때 버려진 막내아들의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가르쳐 줘야겠다.

소외받고 잊혀진 성산마을 사람들을 만나고 오며, 산다는 것의 의미와 사랑의 의미를 되새겨 본다. 그리고 성산마을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 그리고 우리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우리들의 작은 관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았다.

작은 지구촌 보산동

유복자 국립중앙도서관출판부



내가 사는 이 곳은 동두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두천 하면 미군부대를 떠올리듯이, 이곳 사람들의 삶과 이 작은 도시의 역사는 미군부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요. 미군부대 앞이 바로 보산동이라는 곳인데요. 보산동 역시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한창 미군들이 많았던 시절엔 미군 전용클럽의 화려한 불빛이 분야성을 이루기도 했지만 주한 미군 감축으로 부대원들이 줄어든 요즘은 클럽의 불빛도 많이 줄어들었고 거리의 활기도 영 예전만 못하답니다.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원을 모집한다는 소식에 영어도 잘 하지 못하는 내가 동두천 지역의 다른 곳도 아닌,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는 보산동을 지원한 까닭은, 이곳에서 나고 자란 나보다 동두

천을 잘 아는 사람도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보산동의 하루는 오후 4시가 넘어야 시작됩니다. 대부분 클럽들이 그 시간이 되어야 영업을 하기 위해 잠에서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클럽 건물을 들어서면 1층에는 홀이 있고, 그 위층엔 클럽에 종사하는 아가씨들이 살고 있습니다. 예전의 클럽 아가씨들은 당연히 한국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필리핀이나 러시아 아가씨들로 하나 둘 바뀌더니, 요즘엔 한국 아가씨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가씨들은 새벽 5시가 넘어야 클럽 일이 끝나고, 낮 1~2시까지 잠을 잔답니다. 그리고 오후 4시가 넘어야 다시 영업할 준비를 마치고 클럽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때부터 영업을 시작되는 오후 6시가지가 우리 조사원들이 아가씨들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랍니다.

필리핀이나 러시아에서 온 아가씨들은 대부분 20대 초반인데, 하나같이 정말 예쁘고 앙증맞아 인형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리고 아가씨들 대부분은 먼 나라에서 늦은 밤까지 일하며 몸이 파김치가 되어 번 돈을 매달 꼬박꼬박 본국의 부모님이나 형제들에게 송금한다는 이야기를 듣자면, 정말 아름다운 청춘에 부모 형제를 위해 희생해야 하는 그들의 처지가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렇게 짧은 시간 아가씨들을 조사한 후, 클럽 반대쪽 철길을 넘어 허름한 다세

대 주택들이 다닥다닥 때문은 이마를 맞대고 서 있는 동네로 갑니다. 이곳에는 이란, 인도네시아, 몽골 게다가 멀리 페루에서 온 노동자들까지. 세계 곳곳에서 온 노동자들이 살고 있답니다.

공장지대도 아닌 이곳에 이렇게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살고 있는 까닭은 이곳이 집세가 싸기 때문인데요, 대부분 노동자들은 고용주가 보내 준 봉고차로 멀리 떨어진 공장까지 출퇴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녁 7시가 넘어야 집으로 돌아온 노동자들을 만날 수 있지요. 그래서 늦은 시간이기도 하려니와 한국말을 모를 것 같아 영어를 잘하는 남편까지 함께 대동하고 찾아 갔지요.

처음 만난 사람은 동남아쪽 사람처럼 보이더군요. 조사표를 내보이며, 영어로 한참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을 때, 들리는 또박또박한 한국말.

“아, 그러니까 인구조사 나오셨다는 거죠?”

민망, 또 민망. 우리는 외국인이라 당연히 한국말을 모를 거라 생각했는데 그는 한국에 온 지 3년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이란에서 온 근로자의 집에 들렀을 때는 너무나 친절하게 조사에 응하면서 커피도 타 주었는데, 문제는 한국말이 서툴러 무조건 반말을 하는 것이었죠.

“언제 태어나셨어요?”

“1978년이야.”

“함께 사는 가족 있으세요?”

“없어.”

그래서 저와 남편은 존댓말의 의미를 가르쳐 주며 앞으로 한국에서 나이 많은 사람이나 처음 보는 사람에겐 존댓말을 하는 게 관습이라고 일러주고 일어서며 우리는 그 이란인에게 인사를 했지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응. 잘 가.”

“ ‘응, 잘 가’ 이거 아니고요, ‘안·녕·히·가·세·요.’ 그리고 혹시 길 가다 절 보면 꼭 존댓말로 인사하고 그래야 해요. 알았죠?”

“응, 알아요! 생각할게. 안녕히 가요?”

남편과 나는 마주 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나올 땐, 작지만 민간 외교사절로 한몫을 했다는 생각에 왠지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들 조사가 늘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불법 체류자일 경우엔 방문을 두들기면 방에 불을 끄고 한참 동안 대답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사가 당신들 체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득, 또 설득해야 겨우 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또, 노동자들 대부분이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더군요.

페루에서 온 노동자 부부는 특별한 기술이 없어서 공사장에서 벽돌 나르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일을 하다가 다리를

다쳐서 상처가 깊이 파이고 고름이 잡혔는데도 병원 갈 돈도 없고 약이 없어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모습은 정말 보기 안타까웠답니다.

또 온수가 나오지 않는 세면장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세탁기가 없어서 추운 겨울에 차가운 물로 손빨래를 해야 하고, 방값을 아끼기 위해 침대하나 들어갈 만한 조그만 방에 덩치 큰 장정 네댓 명이 함께 생활하는 경우도 많았답니다.

게다가 돈을 벌기 위해 타국에서 그렇게 갖은 고생도 마다 않는 그들이 때때로 악덕 업주를 만나 고생만 하고 임금을 떼어 먹혔다는 말을 들었을 땐 왜 그리 창피하고 미안하던지요.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60~70년대, 미군들을 위한 클럽을 채웠던 것은 우리나라의 아가씨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독일로 광부나 간호사를 지원하여 떠났던 사람들도, 열사의 사막에서 땀 흘리던 노동자들 모두 우리나라 사람들이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처지가 되었지요.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보면서, 그들이 좀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기 위해선 우리들 또한 그들에게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하는 게 아닐까 싶었고요.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우리는 과거를 너무 빨리 잊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보면서 이제 보산동은 동두

천의 보산동이 아닌 지구촌의 보산동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미군 부대가 마저 떠나고 나면 텅빈 보산동. 하지만 그곳에 또 다른 외국인 문화가 꽃피는 아름다운 도시가 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남해에서 보낸 편지

최영선 국립중앙도서관장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화계리.

내가 사는 이곳 남해는 우리나라에서 제주도 다음 가는 큰 섬이다. 눈이 시리도록 투명한 푸른 바다와 마음을 설레게 하는 빼어난 절경을 품고 있는 곳, 그래서 어느 한 자락 마음 기댈 곳 없는 이방인들이 외로움이 느껴지는 어느 날 훌쩍 떠나 보고 싶은 넉넉함이 있는 섬, 남해.

인구주택총조사를 하는 이곳의 11월의 남해는 한창 바쁜 시기다.

농부들은 아직도 초록이 짙은 들녘에서 마늘 비닐 씌우거나 구멍 뚫기, 시금치, 고구마 캐기로 분주하고, 어부들은 바다에서 제철을 맞기 시작한 조개와 굴 캐는 일로 밤낮이 따로 없다. 그래서 한낮이면 집집마다 일 나간 주민들로 마을은 텅비어 버리기 일쑤였다. 게

다가 요즘은 섬 전체가 경제력이나 노동력이 거의 없는 노인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점점 노인 천국이 되어 가고 있다. 자식들은 경제 활동으로 모두 외지에 나가고, 60~70년도 더 된 낡은 집에서 세상 떠날 날만 손꼽으며 홀로 고향을 지키시는 어르신들. 더구나 최근에는 그 노인 인구마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5년 전 내가 처음 이곳에서 인구주택총조사에 참여했을 때, 남해의 인구수는 5만 5천 가량이었다. 하지만 2005년 지금은 4만 3천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5년 전에 비해 무려 1만 2천 가량의 인구가 줄어든 것이다. 특히 10대부터, 20~30대 가량의 젊은 세대의 이탈은 이미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 마을에선 갓난아기 울음 소리를 듣기 힘들고 그나마 문을 연 초등학교조차 학생 수가 줄다 보니 빈 교실이 늘어나 마침내 폐교의 위기에 놓이게 된다.

학교의 존립조차 위태로운 상황에서 부모들은 좀더 나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자식들을 도시로 유학 보낸다. 외지에서 대학을 졸업한 아이들에게 고향은 더 이상 삶의 터전이 되어 주지 못한다. 사실 주 소득원이 마늘농사와 논농사 그리고 어업인 이곳에서는 도시에서 배운 교육이 별반 쓸모가 없다. 결국 자식들은 경제 활동으로 모두 외지로 나가고, 60~70년도 더 된 낡은 집에서 어르신들만이 홀로 고향을 지키신다.

나 역시 10년 전, 도시에서 고향인 이곳으로 돌아왔지만 농사를 짓지도, 바다 일을 하지도 않은 탓에 자리잡기가 무척 힘들었다. 가

장 불편한 것은 교통이었다. 도시에서는 일이십 분이면 올 버스도 한두 시간 간격으로 운행 되고, 그나마 마지막 버스조차 저녁 8시엔 끊어져 버린다. 차편이 끊기고 나면 마을은 어둠 속에 고립된 채 깊은 정적 속으로 빠져든다. 교통편이 나쁘다 보니 잠깐이면 끝낼 일도 만나질 이상을 투자하는 수밖에 없다. 움직이는 것이 자유롭지 않다 보니 문화생활을 한다는 것은 엄두도 내기 힘들다. 오직 TV만이 이곳 문화생활의 전부이며, 외부 세상과 이곳을 연결해 주는 통로다. 아름다운 풍광만으로 젊은이들의 다양한 욕구를 채워 주기엔 모든 것이 부족한 남해. 한 해 동안 갯난아기 울음소리 듣는 것도 귀한 일이 되어 버렸다.

조사를 위해 방문한 마을에선 허리 굽은 어르신들만이 나를 반긴다.

외지로 나간 자식들조차 자주 찾지 못하는 곳. 외로움과 벗하며 살던 노인들은 낯선 조사원을 자식처럼 맞아 주신다. 그리고 오랜만에 만난 말뚝을 붙잡고 시간 가는 줄 모르신다. “쫄매만 더 앉았다 가그라, 새댁.” 하시며 한마디라도 더 건네고 싶어 하는 마음을 뿌리칠 수 없어 조금만 지체하다 보면, 한 가구를 조사 하는데도 시간이 한참씩 걸린다.

중년이 넘은 내가 아직도 새댁이라 불리는 이곳의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이번 조사가 끝나고 다음 조사를 하게 될 5년 후, 이곳의 집과 들은 누가 지키고 있을 것이며, 저 초록빛 넓은 들녘과 푸른 바다에서

일하는 손길은 얼마나 남아 있을까?

이 아름다운 땅이 젊은 활기로 가득 찰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하면서 급격히 늙어 가고 있는 고향의 모습이 나를 안타깝게 했다.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 아닌, 떠날 수 밖에 없는 곳이 되어 버린 쓸쓸한 섬, 남해.

이번 조사가 바탕이 되어 병들고 힘없는 노인들에게는 풍요로운 복지혜택이 주어지고, 고향을 떠난 젊은이들이 다시 남해로 되돌아 올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는다. 그래서 머지않은 날, 아이들 울음 소리가 들리고 왁자지껄 사람 소리, 웃음소리에 진정 사람 냄새가 나는 활기찬 남해를 다시 볼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산다는 것. 그 단맛, 쓴맛, 매운맛

한 종 석 국립중앙도서관 명예사서장



살아 있는 모든 것은 나이를 먹습니다. 나무는 나이테로 나이를 말하고, 사람은 연륜으로 나이를 말합니다. 언제부터인가 나이 먹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당당하게 나이 먹기’가 쉽지 않다고들 합니다. ‘사오정(45세 정년퇴직)’이니 ‘오륙도(50~60세까지 회사에 남으면 도둑)’니 하는 신조어들이 농담만은 아닌 세상입니다. 살아가야 할 시간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돈 벌 수 있는 시간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내 나이는 82세 입니다. 많다면 참으로 많은 나이지요.

지난 9월, 우연히 대전 동구청 소식지에서 인구주택총조사에 임할 조사원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봤습니다. 85년도와 90년도에 조사

원을 해보았던 저에게는 그다지 낯선 일은 아니었습니다. 컴퓨터도 못하고, 나이도 많아 잠시 망설이긴 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막내딸에게 인터넷 신청을 부탁했습니다.

“힘드신데 그런 거 뭘 하려고 하세요. 젊은 사람들도 많이 놀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 하게 두시지 그러세요.” 딸아이의 첫 반응이었습니다.

듣고 보니 내가 젊은 사람들 일을 뺏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 이 나이 먹어서 조사해 달라고 사람들 찾아다니면 주책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겠더군요. 딸아이에게 신청이나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합격자 명단에 제 이름 석자가 있더라고요. 무슨 시험이든 붙으면 기분이 좋은 건 나이와 상관없이 없나봅니다. 누군가한테 실력을 인정받는 느낌이라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막상 시작하고 보니 가장 큰 난관은 컴퓨터였습니다. 진작 배웠어야 했는데, 드디어 올 것이 온 겁니다. 하는 수 없이 또, 딸아이한테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컴퓨터 앞에 앉아 딸아이가 가르쳐주는 대로 자판도 눌러보고 마우스도 만져 봅니다. 그런데 이 마우스란 게 요상한 물건이더군요. 저는 움직인다고 요령껏 해보는데, 이거 원, 마음대로 가질 않습니다. 손바닥만한 것이 눌러지지도 않고, 아래로 내려오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제멋대로 움직입니다. 딸아이 말은 잘 들으면서 늙은이 손놀림엔 도통 반응이 엉망입니다. 이번엔 손자 녀석이 지원군이 됐습니다. 사이버 교육을 받는

내내 마우스 버튼을 눌러 명령어를 선택해주고 컴퓨터 자판도 눌러 주며 보조교사 노릇을 톡톡히 해줬습니다. 익숙해지니 컴퓨터로 교육받는 게 정말 쉽고 편했습니다. 20년 전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세상에 눈도 번쩍 뜨고, 귀도 활짝 열렸습니다. 조사구요도니 가 구번호니, 가구원이니 하는 용어들을 듣다 보니 지난 기억들이 새록 새록 되살아나고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준비 조사부터 본 조사는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지난 경험을 통해 노련함도 쌓였던 모양입니다. 가구명부를 작성하고 요도와 이 상이 없는지 차근차근 대조해가며 가구번호 부여하고, 가구원 수, 거처 종류, 농림어가 여부 작성하는 것들은 한두 번 해보니 완전히 손에 익어 수월했습니다. 오히려 15년, 20년 전에 비해 인심이 좀 삭막해져서 사람들 만나는 게 어렵다면 어려운 일이더군요. 젊은 사람들이 매정하게 문도 열어주지 않거나 무뚝뚝한 얼굴로 귀찮다고 돌아설 때는 ‘이걸 내가 왜 한다고 했을까.’ 하는 자괴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경로당에서 바둑이나 두고 있을 친구들이나 할일 없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내 연배의 다른 노인들을 생각해 보면 ‘내 나이에 이런 일을 또 다시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면서 보람과 행복감이 밀려왔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골목길을 누비다가 집에 돌아오면 밥맛도 좋아지고 잠도 잘 왔습니다.

사실, 시골에서는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적당한 소일거리가 흔치 않습니다. 농사일이야 건강만 허락하면 정년이 없다지만, 농사를 짓

'70의 젊음은 40의 늙음보다 더 생기 있고 희망적이다' 란

말이 있습니다. 저도 다가올 2010년까지 늘 생기 있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해 봅니다.

인생을 살면서 너무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지 않는 이들에겐 일자리 얻기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 주변의 친구들도 처음에는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하는 일을 나이 들어서 어찌하느냐’며 걱정을 하더니, 활기차고 재미있게 일하는 저를 보면서 이제는 모두 부러워합니다. 게다가 신문이나 방송에 ‘인구주택총조사 전국 최고령 조사원 한종석, 세 번째 조사 활동 참여한 82세 노익장’이라는 기사와 뉴스가 나간 이후로는 보는 사람마다 축하 인사와 격려의 말을 해와서 어느새 지역의 스타가 되었답니다.

인터뷰 하던 날 기자 분이

“어떤 점이 제일 어려우십니까?”

하고 묻더군요. 제 대답은

“허허. 그리 어려운 건 없는데요.”

였습니다.

사실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어려운 게 왜 없겠습니까. 조사를 하면서 별별 사람을 다 만납니다. 자기 식구들 생년월일은 물론 함께 사는 조부모 이름도 잘 모르는 젊은이, 남편이 어느 직책을 맡아 일하는지도 모르는 아내, 조사 문항 하나하나를 세금과 연관지어 대답하다가도 획 토라져 버리는 알부자들까지.

여든 넘게 세상을 살았지만, 알다가도 모를 인간 군상들 모습에 어떤 날은 허허롭게 웃기도 하고, 답답함에 혀를 차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약간의 애로는 있어도 이 정도를 어렵다고 하면 그동안 살아온 날들이 무색해 질 것 아닙니까? 요즘은 전보다 삶에 자신감이

높아진 것을 느낍니다. 사실. 조사 10일 전에 다리를 다쳐 걸음도 잘못 걸었는데, 조사하는 동안 다 나아 이제는 걸음걸이에도 힘이 생겼습니다.

오랜만에 1985년 당시에 조사용으로 받은 불펜과 인주, 성씨 별 본관조건표들을 꺼내 봅니다. 불펜에 찍힌 로고를 보니 당시에는 경제기획원에서 인구조사를 했나 봅니다. 하나하나 물건들을 볼 때마다 감회가 새롭기만 합니다. 앞으로 5년이 지나면 2010년입니다. 그때 내 나이는 여든 일곱이 됩니다. 그래도 또다시 시켜만 준다면 지금보다 더 잘 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70의 젊음은 40의 늙음보다 더 생기 있고 희망적이다.'란 말이 있습니다. 저도 다가올 2010년까지 늘 생기 있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해 봅니다. 인생을 살면서 너무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다시 쓰는 부모님 전상서

임금주 © 2014 by EBS. All rights reserved.



“할아버지. 이쪽으로 오세요. 머리는 어떤 스타일로 깎아 드릴까요?”

“아이고, 깎아 주는 것만도 고마운데, 아무렇게나 해줘요.”

“그래도 좋아하시는 스타일이 있으시잖아요. 말씀해보세요.”

“아, 그럼 그냥 깔끔하게만 깎아 줘요.”

“할머니는 이쪽으로 오세요. 머리 커트 좀 하셔야겠네요. 그리고 롤은 굵은 걸로 해 드릴까요, 가는 걸로 해 드릴까요?”

“너무 빠글빠글하게 하지 말고, 남의 영감이 예쁘다고 쫓아 올만큼만 예쁘게 해 줘.”

할머니의 익살스런 대답에 마을회관에 모인 사람들이 한바탕 크게 웃습니다.

경북 김천시 구성면 구미리에 있는 마을회관에 오늘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 마을에선 여태껏 없었던 이·미용 봉사 활동이 열린 것입니다. 이·미용 봉사라면 주로 양로원이나 복지관 같은 곳에서만 하는 것으로 2005 인구조사요원들이 구미리 장애인들과 영세민, 노인을 위해 봉사를 하겠다고 하니 이장님 이하 마을 분들은 정말인가 의아해 하셨지요. 하지만 정성껏 준비해 간 떡이며 과일, 음료 등을 내어 놓고 여러 어르신들과 같이 먹고 즐기면서 이·미용 봉사를 시작하자 모두의 마음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매년 무슨 조사가 그리 많은지. 사람 귀찮게 조사만 해가더니 이번엔 무슨 조화야? 살다 보니 별일도 다 있네. 허허.”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왜 진작 찾아뵙지 못했던가. 죄송한 마음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인구주택총조사. 우리는 인구조사를 통하여 여러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열심히 종이에 옮겨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것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다시 되돌아보게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누군가 찾아와 이야기라도 나눠주길 바라는 어르신과 장애인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조사표 문항을 채우며 연세는 어떻게 되시고, 거주지 환경은 어떻고 뭘 먹고, 수입은 있으신지, 가족은 어떻게 되는지 묻는 동안 우리는 그동안 몰랐던 그 분들의 형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녁 늦게 사무실에 돌아 왔을 때, 조사원들은 하나 같이



“도와 드리고 싶어요. 이불이든, 옷가지든 필요한 물건이면 뭐든지 다 모아서 갖다 드리고 싶어요.”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작은 정성을 모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무언가 도움을 드리자고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아이들의 웃음이 사라져 버린 삭막한 시골 마을. 몸이 불편한 장애인과 마을을 떠나지 못한 가난한 이들만이 남아 있는 이곳에 조출 하나마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그동안 적막했던 마을은 하루 종일 웃음소리와 사람 소리로 시끌벅적 해졌고, 정말 오랜

만에 활기를 찾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 둘, 마을회관으로 모여들자 이장님과 사모님께서서는 햄살과 두부를 송송 썰어 넣은 구수한 청국장과 금방 버무린 입맛 도는 김치를 아낌없이 내 주셨습니다.

햄살밥에 볶게 버무린 김치를 길게 쪽쪽 찢어 얹어 먹는 맛이란……. 그 구수하고 맛깔스런 음식에 떨어진 밥 한 톨조차 아까워하며 우리의 웃음과 수다는 지칠 줄 몰랐습니다.

그러는 동안 어느새 머리를 말끔히 깎으신 어르신께서는 옷까지 바뀌어 입고 등장하셨습니다. 머리가 새것이니 옷도 새로 갈아 입으셔야 한답니다. 마을 할머니, 할아버지의 덩수룩했던 머리는 어느새 시내 중앙통로에서도 보기 힘든 세련된 모양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인구주택총조사로 모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귀한 경험을 할 수 있었을까요? 구성면사무소에 참여한 인구조사 요원들은 봉사뿐 아니라 조사표의 내용도 가장 충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사원 모두에게 담겨 있기에 사소한 일에도 애정을 가지게 됐고, 그러다 보니 조사 문항 하나도 대강 적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어느새 뉘엿이 해가 지고 헤어져야 할 시간. 봉사자나 마을 어르신들이나 아쉽기는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조사요원들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건강하시고요. 5년 후, 조사하러 올 때도 웃는 얼굴로 다

시 반겨 주셔야 합니다.”

우리들의 인사 속엔 헤어지는 서운함이 역력했습니다. 맞잡은 두 손으로 어르신들의 굵은 손마디와 거친 손바닥의 느낌이 우리들의 가슴속 깊은 곳을 찌르며 다가왔습니다.

생전 부모님 손조차 정답게 잡아 드리지 못했던 우리들. 남의 부모님의 손을 잡으며 오늘은 왜 이리 어머니, 아버지가 보고 싶은 걸까요.

“이번에 집에 가면 어머니, 아버지 꼭 안아 드려야지.”

조사 기간 보름 내내 우리는 밤낮없이 산길과 들길을 누볐고, 심지어 할머니 한 분을 만나기 위해 신발을 벗어두고 차가운 냇물을 맨발로 건너기도 했습니다. 그땐 눈물이 나올 만큼 힘이 들어 몇 번이고 중도에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로 인해 고생스러웠던 그 순간들은 가슴 뿌듯한 사랑과 자부심으로 바뀌었습니다. 통계를 위해 시작된 만남이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잊고 있던 이웃에 대한 애정을 다시금 확인했고, 지금 그 마음은 아름답게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2005년의 사랑. 우리는 오랫동안 그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김천시 구성면에서 활약한 봉사들. 우리의 작은 힘이 합해질 때, 사랑은 더욱 커지고 빛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깨닫는 나라에서

강종선 (국립중앙도서관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2005년 11월 1일 0시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과 이들이 살고 있는 주택을 조사하는 인구주택총조사.

‘모든 사람’이란 단어 속에는 한국인을 포함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도 해당됩니다. 예전에는 외국인이라고 해야 유학생이나 주재원들이 대다수였지만, 요즘에는 도시건 농촌이건 상관없이 외국인 근로자나 산업연수생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게다가 지방에선 국제결혼도 무시 못 할 수준이죠. 우리 지역에도 일본인을 비롯해 방글라데시인, 스리랑카인, 말레이시아인, 몽골인, 조선족까지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서로 부대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조사도 준비부터 현장 조사까지 품이 많이 들어갑니다.

문제는 불법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조사입니다. 아무래도 이 분들은 자신이 불법체류자 신분이다 보니 조사에 잘 응하지도 않고, 서로에 대해 이야기도 잘 안합니다. 외부인들은 철저하게 경계하는 데다 정부에서 나왔다고 하면 무조건 단속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숨거나 도망 다니기 일쑤라 조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 번은 공장단지 부근을 조사 나갔을 때였습니다.

20대 중반의 몽골 여성이 빨래를 하다 우리를 맞아 주었습니다. 긴 머리를 하나로 묶어 단정하게 틀어 올린 그녀는 우리네 얼굴과 많이 닮아 있어 외국인이라는 느낌도 그리 들지 않더군요. 방 하나에 부엌하나 딸린 작은 집은 소박하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그녀의 성품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어도 꽤 능숙하게 하는 분이라 조사에 별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구원 수를 물으니 한 명이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얼핏 보기에 그 집은 분명 한 명이상이 거주하는 집이었습니다.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여자 혼자 산다고 보기에는 살림도 꽤 많았고, 분명 남편인 듯한 사람의 사진도 한두 장 액자에 끼워져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얼핏 본 빨랫감에는 남자의 셔츠임에 분명한 옷도 몇 벌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우리에게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 듯해서 여러 번을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대답은 한결같이 ‘혼자 산다.’였습니다. 이 조사를 통해서 어떤 피해도 없을 것이고, 단순하게 몇 사람 거주하는지 파악만 한다고 설명을 해도 그녀는 고집스럽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수차례 설득을 해도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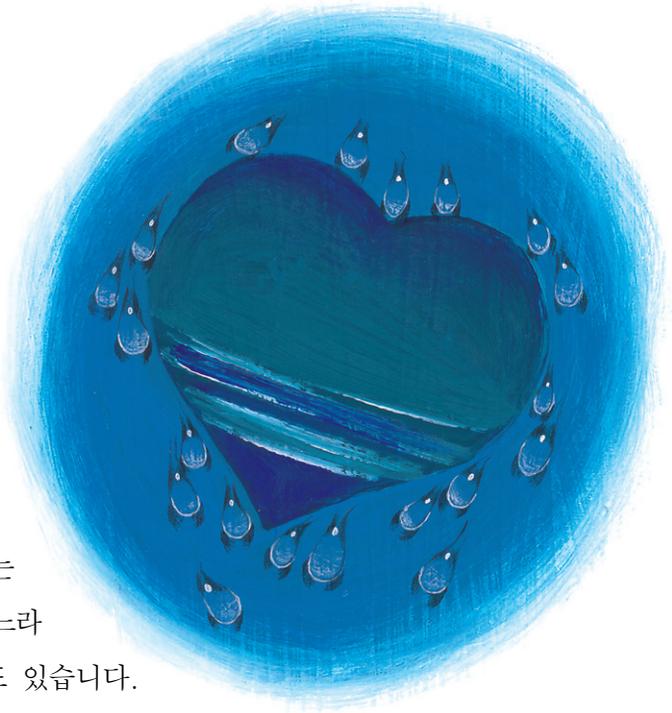
무슨 바윗덩이 같더군요. 아무래도 대답을 들을 수 없을 것 같아 일단은 인사를 하고 일어섰습니다. 신발을 신고 집을 나오려는 순간, 불쑥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사진 속에서 보았던 남자가 성큼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일순 모두가 멍칫 했습니다. 우리를 배웅하던 그녀도 말을 잃었고, 들어오던 남자도 우리를 보고는 놀란 게 분명했습니다. 급하게 뒤돌아 나가려는 남자를 붙잡고,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남자는 우리를 외면한 채 아무 말도 않더군요. 그러자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그녀가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들어온 사람은 남편이고, 자신은 합법적인 체류자이지만, 남편은 올 초에 비자가 만기되어 불법체류자 신분이 됐습니다. 만약 법무부에 통고를 하면 바로 강제 출국을 당하기 때문에 사실대로 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돌아가려도 한국에 올 때 진 빚이 있어 돌아가서 살길이 막막하다고 합니다. 몽골 현지에서는 대학까지 나온 엘리트였던 부부지만, 배운 지식을 써먹지도 못하고 그녀는 공장에서, 남편은 건축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은 돌아갈 때가 안됐다며, 열심히 살 테니 제발 모른 척 해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불안해하는 그녀를 안심시키며 조사를 마치고 나왔지만, 코리안 드림을 따라 낯선 나라에 와서 이제는 불법과 합법을 넘나들며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을 보니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낯선 조사원이 집으로 들어오는 기척만 있

어도 순식간에
맨발로 달아나
버립니다. 한번은
우리가 문을 두드
리니 단속반인
줄 알고 건물
외벽의 홈통을
타고 도망가려 하는
바람에 그걸 말리느라
십년감수했던 적도 있습니다.



케다가 어렵게 만난 사람들도 협조가
잘 되질 않았습니다. 이름만이라도 가르쳐 달라고 해도 무조건 서툰
우리말로 절대로 자기는 잡혀가면 안 된다고 오히려 통사정을 합니
다.

아이들도 대물림 되는 ‘불법체류자’ 라는 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
합니다.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받고 있어도 적응을 못
하는 아이들이 대다수였고,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다 해도 다른 외모,
다른 신분 때문에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또
부모 중 한쪽이 단속으로 강제 출국 당해 가족끼리 생이별을 한 이
들도 보았습니다. 마치 인간이 새겨놓은 또 하나의 ‘주홍글씨’ 를 보
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난 대부분의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조사를 마치고 일어서는 우리에게 몇 번이고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을 받곤 했습니다. 그만큼 그들에게 현실은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그들에게 한국은 여전히 '희망의 땅'이었습니다. 한 외국인은 자신이 한국에서 버는 돈의 대부분은 필리핀에 있는 부모와 동생을 포함한 아홉 식구 모두의 생명줄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월급 대부분을 고향에 보내고 자기는 최소한의 생활비만으로 근근이 살고 있지만, 몇 년 만 더 고생하면 고향에 돌아가 작은 가게를 낼 수 있을지 모른다는 소박한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가족 모두의 '미래와 희망'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오래전 우리도 그랬습니다. 굶주림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로, 일본과 유럽으로 미국으로 삶의 터전을 옮겼습니다. 차별을 견디고, 시련과 고난을 넘어서 그들은 타국에서 뿌리를 내려 이제는 우리의 자존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또다른 이들의 '송골로스(무지개 뜨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어렵긴 하겠지만, 꿈과 소망을 가지고 낯선 나라에 등지를 튼 그들이 좀더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사람답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조사 끝 무렵이라 미처 채우지 못한 부재 가구 몇 곳을 방문하느라 좀 늦은 참이었다. 나물 몇 가지 남루하게 펼쳐져 있는 좌판에서 불편한 플라스틱 의자에 쫓그리고 앉아 손님을 기다리고 계신 할머니. 그런데 정작 웅색한 당신의 모습은 제쳐놓고 딸 자식뻔 되는 제가 밤늦게 다니는 걸 보고 안쓰러워하신다.

“할머니, 여서 장사 하십니까? 앞으로 뭐 살 거 있으면 지도 이리로 올게요. 추운데 얼른 들어가셔야지요.”

해는 기울어 거리엔 어둠이 내린지 오래고, 오가는 자동차 불빛만이 인적 드문 밤거리를 훑으며 지나가고 있었다. 스산한 기운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겨울 초입에 할머니가 걸쳐 입은 옷은 허술하기만 한데, 좌판은 아직 정리될 기미조차 보이질 않았다.

하루 만 원도 벌고 오천 원도 버는 노점, 하루 열네 시간 꼬박 앉아 있지만 몇 천 원 손에 쥐기가 쉽지만은 않은 일이라. 올 겨울 날게 큰 걱정이라 하셨지만 그래도 자신은 몸 아픈데 없으니 다른 노인들보다 괜찮다며 미소를 짓던 분이였다. “봄 날씨 같다고 하드만 겨울은 겨울이제, 그래도 내는 사정이 좀 낫재. 구청에서 나오는 돈으로 월세는 내고 산다 아이가. 더 이상 딴 사람 귀찮게 안할라꼬 하나님께 제발 퍼뜩 데불고 가달라꼬 기도하고 있재.” 고단한 할머니의 말씀이 뉘두리로만 들리지는 않았었다.

‘식사는 하신 걸까?’

까칠까칠 투박한 손마디에 부스러질 것 같이 여윈 몸, 켜켜이 주

름이 내려앉은 할머니의 얼굴에도 외로운 세월의 흔적이 날날이 묻어 있었다. 허기진 배보다 더 애잔한 것이 죽음보다 무서운 외로움은 아닐는지. 자식들 다 떠나보내고 난 후의 홀로 남은 그 허허로움이란 얼마만큼의 무게인지 짚 수는 없지만, 주름진 얼굴에는 그들이 져 있고 자식들에 대한 그리움의 흔적이 역력했다.

인구주택총조사를 하면서 나는 나이 들어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이 그렇게 많은 것에 놀랐고, 너무나 힘들고 고단하게 사는 그들의 모습에 마음이 아팠다. 나를 동사무소 직원으로 여겨 기름값이라도 좀 보태 달라며 손을 놓지 않던 팔순의 어르신과 찬기운이 스멀스멀 기어오르는 일층 단칸방, 곰팡이 냄새 자욱한 냉골에서 달랑 전기장판 한 장으로 추운 몸과 시린 마음을 녹이고 있던 독거노인들. 죽지 못해 사는 거라며, 당신 몸 돌본다는 것은 생각도 못한 채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그분들은, 그래도 벌어먹고 살기 힘든 자식들에게 행여 당신들 존재가 짐이라도 되지 않나 노심초사 하셨다.

체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루 한 끼를 해결하느라 길거리 노점에서 하루 종일 햇볕을 받아내고 온갖 먼지를 마셔 가며, 허리 한번 체대로 펴지도 못한 채 손발 부르트도록 일하는 외로운 이들을 스케치한 지난 보름. 그들은 내 이웃의 모습이었고, 내 부모의 모습이었고, 장차 우리의 모습일지도 몰랐다. 함께 숨쉬고 있을 때 좀더 아껴 주고 챙겨 주면 될 것을 우



리는 꼭 떠나고 난 뒤에 그 부재를 인식하게 되고 뒤늦은 후회로 자조하게 된다.

좌판 곁을 떠나지 못하고 잠시 머뭇거리는데, 깨끗하게 다듬어져 있는 콩나물 바구니가 눈에 들어왔다.

“할머니? 콩나물, 이게 전부입니까? 제가 살 테니, 이제 그만 들어가이소.”

나는 바구니 가득한 콩나물 봉지를 건네받았다. 몇 발자국 걸어가다 돌아보니, 할머니는 어두운 불빛 아래서 멀어지는 내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셨다. 그 후로 오랜 시간 댁으로 돌려보내려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할머니는 내내 그 자리를 지키고 계셨는지도 모른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오유진 국립중앙도서관 사서



결혼에 이은 출산과 양육으로 살림에 묻혀 살다보니 일을 한다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가을 나는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원이라는 뜻밖의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름 남짓한 조사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저마다 다른 형태의 인생사를 엿보게 되었습니다.

평소 저는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의 삶에 그리 관심이 많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화목한 가정에서 태어나 교육을 받았고, 대학을 졸업해 잠시 직장 생활을 한 뒤에 결혼해 전업주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족할 것도 넘칠 것도 없는 평탄한 삶을 살고 있는 평범한 중산층 주

부의 모습입니다. 오히려 이런 환경에 살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좋은 것, 편한 것이 눈에 밟혀 짜증내고 답답해 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가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원이 되어 잠시 엇본 세상은 내 상상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실직자들이 눈에 띄게 늘었고, 궁색한 형편에 하루 끼니 걱정으로 한숨쉬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부모 없이 할아버지, 할머니 슬하에서 자라는 아이들과 기름보일러 값이 무서워 전기장판 하나로 추위를 견디며 외롭게 생활하고 있는 독거노인들도 만났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더 이상 TV나 신문으로만 보았던 동떨어진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내 주변, 몇 걸음만 걸으면 닿을 수 있는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 이웃의 현실이었습니다.

아마도 조사원으로 일하지 않았다면 전혀 관심조차 갖지 않고 무심코 지나쳤을 얼굴들……. 그동안 난 변해버린 세상 물정도 모른 채 우물 안 개구리가 되어 10년의 세월을 도둑맞고 있었습니다.

조사를 진행하던 어느 날.

밤 9시가 넘어 방문한 집이 있었습니다. 여러 번 방문한 곳인데 그날도 여전히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삼사십 분을 기다리다 지쳐 돌아서려는데, 50대 중반은 넘어보는 아주머니 한 분이 무거운 보따리를 이고 다가왔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고, 거리에서 행상을 하시는지 옷에는 온통 뿌옇게 먼지가 덮여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길옆에 비켜서서 아주머니 모습을 주시했죠.

지친 손놀림으로 열쇠를 꺼내시던 아주머니는 바로 제가 조금 전까지 기다리던 그 대문 앞에 걸음을 멈추시는 겁니다.

‘오늘은 생각보다 운이 좋네.’ 하며 저는 기쁜 마음으로 한달음에 아주머니께 달려갔습니다. “저기요…….” 하며 아주머니 소매 끝을 살짝 잡아 당겼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깜짝 놀라시며 제 손을 호되게 뿌리치시는 거예요. 갑자기 아주머니가 세계 내리치는 바람에 저도 맞부딪힌 팔에 찌릿 전기가 통하며 너무 아팠습니다. 보따리도 툭하니 발아래 떨어져 버렸죠. 물론 제가 갑자기 아주머니를 불러 세우기는 했지만 그래도 좀 격한 반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늦은 밤에 낯선 사람이 놀라게 한듯해서 죄송하더군요. 미안한 마음에 보따리를 주워드리려고 하는데, 아주머니께서 사납게 저를 밀쳐냅니다.

‘어허. 이 아주머니 성질 있으시네!’ 저도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고개를 들어보니 아주머니는 기분 나쁜 얼굴로 저를 빤히 보십니다. 이제는 보따리를 가슴에 꼭 안고 계시더라고요. 마치 제가 보따리 훔치러 온 사람인 것 같더군요.

기분이 좀 나빠진 저는 딱딱한 목소리로 “인구주택총조사 아시죠? 여러 번 이곳에 왔었는데, 이 댁에 사신다면 조사에 응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는 똑같은 경계의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만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전달이 덜됐나 싶어 조사원증을 보여주며 또박 또박 다시 설명을 시작했죠.

그래도 조금은 경계심이 풀어지셨는지 아주머니는 잠시 나의 하
는 모습을 쳐다보시더니 고개를 가로 저으시며 손사래를 치시더군
요. 아마도 피곤하니 조사를 안 하시겠다는 뜻인가 봅니다. 하지만
저는 어떻게 하던 이 댁 조사를 해야 했거든요. 벌써 몇 번째 헛걸음
을 한데다 아까 부딪친 팔뚝이 육신거리기까지 하는데, 이대로 돌아
갈 수는 없었죠.

‘어휴, 답답해’ 저는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여 아주머니에게 조사
의 취지를 설명하며 시간을 내 달라고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여전히 묵묵부답. 제 목소리 톤은 조금씩 높아져 가
고, 그렇게 실랑이하기를 십여 분. 자꾸만 고개를 가로 저으시던 아
주머니께서 이번에는 갑자기 ‘어…으…어어.’ 하시는 이상한 소리
를 내시면서 한 손으로 입을 가리키며, 또 고개를 저으시는 겁니다.

아주머니의 눈이 애처롭게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빨싸…….’ 저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자
신이 말을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목소리를 높
여 말을 하던 저는 그 순간 말문이 꼭 막혔습니다. ‘이런! 어찌
지…….’

사실 조사를 하는 동안 저는 장애인을 조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답니다. 그리고 조사원 교육을 받는 동안에도 외국
인 조사에 대한 교육은 있었지만 장애인 조사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
보지도 못했습니다.

당장 누구한테 물을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 궁여지책으로 종이에

몇 마디를 적어드리니 이번에도 고개를 가로저으십니다. 글도 모르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젠 도무지 엄두가 나질 않았습니다. 그저 상상만 했지, 신체 어느 한 곳에 장애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일인지 겪어보지 못했던 저였습니다. 게다가 막상 장애인을 만나니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알 수가 없더군요. 머릿속이 백지장마냥 하얗게 변했나 봅니다.

그런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나를 보며 대략 상황을 파악하신 아주머니께서 마디 굵은 손으로 나의 손목을 덤석 잡더니 아까 그 집의 대문을 여십니다. 그리고는 주인집으로 저를 데려가셨습니다.

결국 아래층에 사는 주인가구가 계약서를 보시고 아주머니의 이름과 나이, 관련 항목들을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하는 내내 아주머니께서는 제 곁에 서서 저를 지원해주셨습니다.

겨우 조사를 마치고, 집을 나오려는 저에게 아주머니는 허름한 보따리를 끌러 한 움큼의 도라지를 내미셨습니다. 거절하는 나의 등을 떠밀며 한사코 가방 속에 나물을 넣어주시는 아주머니. 그리고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어어어어…….’ 하는 말을 하십니다.

아마도 아까 미안했다고 말하시는 모양입니다. 오히려 제가 사과를 해야 할 판입니다. 어두운 길에서 낯선 사람이 덤석 팔을 잡으니까 듣지도 못하는 분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저도 아까는 죄송했다는 말을 하며 아주머니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인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제 가슴 한 구석은 아픔으로

저릿했습니다.

‘말도 못하고, 글도 못 읽는 분이 무엇을 팔아 어떻게 먹고 살고 계신 걸까…….’

머리에 이고 오신 보따리에는 수많은 사연들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아주머니의 남모를 아픔과 고된 일상, 그리고 사지육신 멀쩡한 내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장애인들의 고단함을 떠올리니 지금도 마음이 아립니다. 얼마나 나는 내가 보고 싶은 대로만 세상을 보고, 내가 생각하는 잣대로만 세상을 판단하고 살았던 것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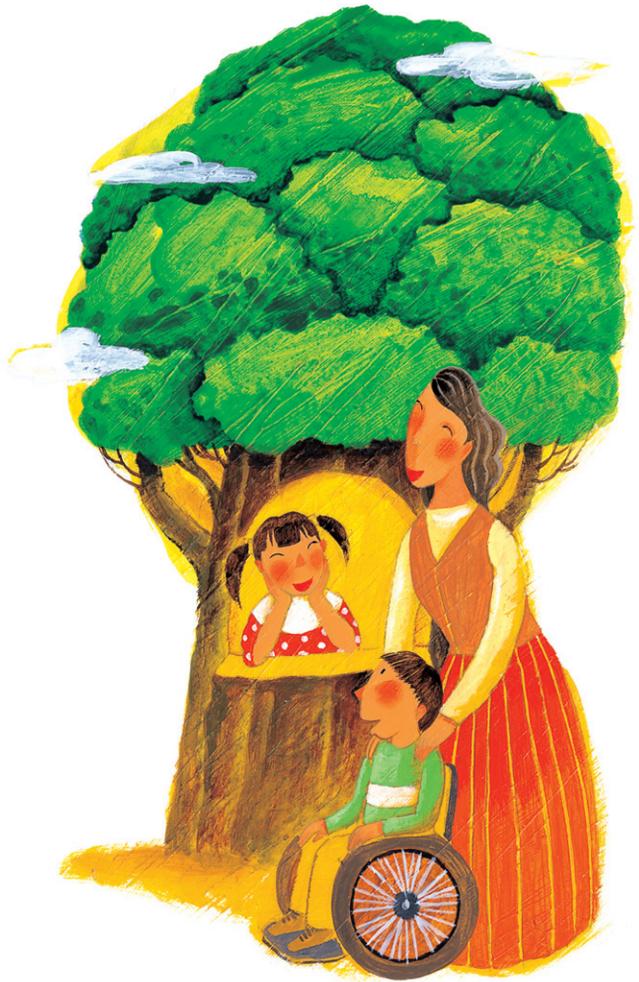
현실에 눈을 뜨고 보니 내 주변에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생활하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나와는 상관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덧 그들은 나에게 이웃으로, 친구로, 동생으로, 가족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그동안 장애인에 대해 이해가 없었던 것은 그들이 특별한 어딘가에 살고 있어서가 아니라 은연중에 가지고 있던 우리의 무관심과 편견 때문일 것입니다.

저 또한 그동안 급하다는 핑계로 널찍한 장애인 주차장에 무심코 주차를 하기도 했고, 장애인 엘리베이터니,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 좌석 같은 것에 특별히 신경을 써 본적도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나의 무신경이 얼마나 그들을 불편하고 상처받게 했던 걸까요.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건 아닐 텐데. 우리는 아주 사소한 것을 너무 잊고 산 건 아닌지 모릅니다.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저는 그동안 알고 있던 세상보다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조금씩 더불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보리라 다짐합니다. 비록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작고 미약하더라도 그런 노력들이 모이면 좀 더 훈훈하고 따스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바로 그것이 '나'가 아닌 '우리'가 세상을 함께 살아갈 때 필요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일 것입니다.



• • •
제 3 장



그래도 세상은 아름답더라



‘인구조사’판촉 나와드립니다.

길소연 작: 010-9250-9250 / 010-9250-9250



“딩동 덩동”

경망스런 벨소리가 울리는가 싶더니 연이어 터지는 사이렌 소리.

“으아앙. 아앙.”

겨우 겨우 재워 놓은 아기가 초인종 소리에 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기를 키워 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낮에 한숨도 안자는 아기를 돌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 일인지. 또 그렇게 낮잠 없는 아기들일수록, 얼마나 재우기가 어려운지 말입니다. 행여, 깰 새라 전화기 뽑아 놓고 숨죽이며 조심조심 재워 놓았는데, 눈치 없이 울리는 초인종 소리나 자동차 경적, 비행기 소음은 정말 밍고 또 밍습니다.

게다가 제가 사는 아파트는 입주를 시작한지 겨우1년쯤 되는 곳
인지라, 신문에서부터 학원, 교회, 중국집, 슝틀집 등등 판촉을 하
는 불청객들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곳이지요.

시도 때도 없는 벨 소리에 안 되겠다 싶어 ‘아기가 자고 있어요.’
라고 써 붙여 보기도 했죠. 하지만 필사적인 판촉요원은 기어이 초
인종을 눌러 놓곤 “아유, 아기를 깨운 거 아닌가 몰라요.”하며 알뜰
게 얼굴을 들이 뱉니다.

처음에야 ‘그래 다들 먹고 살려고 하는 짓인데…….’ 하는 생각에
넓은 아량으로 “다음에 들리세요.” 하고 돌려보내곤 했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끊임없이 반복되는데 정말 인내심에 한계를 느끼겠
더라고요.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법의 대응이 시작됐죠.

“딩동!! 저기 00신문에서 나왔는데요. 무선주전자 드리거든요.”
하면

“주전자 많아요!”

“딩동!! 안녕하세요, 요 앞 학원에서…….”

“우리 아기 지금 두 살이에요.”

그렇게 뽀족한 목소리로 대답을 하곤 인터폰을 쾅 내려 버리죠.

그렇게 가뜩이나 초인종 소리에 노이로제가 걸려 있는데, 그날
또 벨소리가 우리 아길 깨우지 뭐니까? 그것도 하필 예방접종하고

와서 밤새 보챌 아기를 겨우 재워놓고 막 일어나려는 순간에 말이죠. 정말 짜증이 극에 달하더군요.

하지만 이젠 어떤 관측도 능수능란하게 대처하는 관록이 붙은지라, 우리 아기의 단잠을 깨운 저 관측 사원을 어떤 말로 한방에 날려버릴까 생각을 굴리며 인터폰으로 다가갔죠.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인구주택총조사 하러 나왔는데요!”

아……. 하지만 세상은 만만치 않더군요. 여태껏 보도 듣도 못한 관측이었거든요. 아기를 키우다 보니 TV며, 라디오를 딱 끊고 살아야 했고, 그러다 보니 ‘인구주택총조사’라는 관측이나 상품에 대해선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쨌든 저는 새로운 관측의 등장에 긴장감을 높이며 꾀꾀이 맞서기 시작했죠.

“뭐라고요?”

“인구주택총조사요.”

“아니, 우리나라 인구를 왜 나한테 와서 물어요?” 하곤 인터폰을 끊었죠.

아, 그런데 벨을 또 누르는 거지 뭐니까.

“모른다니까요. 왜 자꾸 눌러요, 애 깨는데.”

나는 더욱 소리에 날을 세웠죠.

“그게 아니라고. 나라에서 하는 조사예요. 협조해 주셔야 하는데…….”

“무슨 나라요? 난 그런 높은 분들이랑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니까 인터폰 누르지 마세요.”

그리고는 아예 인터폰을 내려놓아 버렸죠.

하지만, 일단 잠이 깬 아이는 다시 자기는커녕 평소 인터폰만 올리면 현관문 밖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터득했기에, 이미 현관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아 버티더군요. 그리곤 기다려도 기다려도 아무도 들어오지 않자, 밖에 나가자며 “어야, 어야…….”를 외치며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무슨 관측을 하는 사람인지 몰라도 미워 죽겠네.’



속으로 욕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떼쓰는 아기에게 옷을 입히고 외출 준비를 마친 후, 현관문을 열었는데…….

아, 웬 아주머니가 문 앞에 우두커니 서 계신 거예요. 어찌나 놀랐는지 “누구세요?” 날카롭게 물었죠.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는 아주 난처한 말투로 말씀을 하시더군요. “저기, 아까 벨 누른 조사원인데요. 정말 인구주택총조사 얘기 못 들어 보셨어요?”

“이 아주머니가 아직까지 안 가시고……. 그런 거 몰라요. 빨리 가세요. 주택은 무슨. 정말 주책이셔.”

그런데 현관 앞이 시끄러웠는지, 옆집 문이 열리며 주인아주머니가 나오시더군요.

“새댁, 무슨 일이야?”

“아니 글썄. 이 아주머니가 자꾸 인구가 어쨌다고 뭘 하라고 그러면서 안 가지 않아요. 도대체 우리나라 인구를 왜 여기서 묻냐고요.”

“새댁, 그 아주머니가 해 달라는 거. 그거 우리는 했는데.”

“예?”

“그거 해야 돼. 국가에서 하는 조사거든.”

지원군이 생기자, 조사원 아주머니는 마음 놓고 인구주택총조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하시더군요.

아! 민망. 창피. 미안…….

무식하면 용감해 진다더니, 알지도 못하면서 마구 대한 내 자신이

부끄러워 얼굴이 화끈거리는 게 느껴지더군요.

“죄송해요, 전 뭐 팔러 오신 줄 알고…….”

제 사과에 조사원 아주머니는 “아니에요. 애 키우는 집이 다 그렇죠 뭐. 애가 귀엽네요!” 하며 넉넉하게 넘겨주시더군요. 연세도 꽤 있으신 분이 딱딱거리는 새파란 새댁한테 당하고도 언짢은 내색 한번 안하시고 가는데, 정말 쥐구멍을 찾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생각하게 되었죠. 일단 누구든 간에 사람한테 막 대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요. 제가 그 아주머니 같았으면 “젊은 것이 그러면 안 된다”고 멍살이라도 잡아야 분이 풀렸을 거 같은데, 일언반구 없이 땀만 뻘뻘 흘리다 가신 그 아주머니께 이렇게 지면으로나마 죄송하단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5년 후, 또 다시 ‘인구주택총조사’ 판촉 활동을 나오신다면 그때는 정말 열심히 그리고 친절하게 판촉 사원을 응대해 드릴 것도 약속드리겠습니다.

세상아, 안녕!

문선인 작: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따르릉, 따르릉”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뒤, 부지런히 청소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다.

“형님, 저예요.”
전화기 속 동서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잔뜩 들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

“어, 잘 지냈나? 아침 묵었나?”
“저기요. 형님, 저 취직했거든요”
아니, 취직이라니요? 이게 무슨 똥판지같은 소립니까? 9살, 5살 짜리 두 아들 키우기도 숨 가쁜 동서가 취직을 했다니! 갑자기 나만 경주에서 한참 뒤쳐진 거북이가 된 것 같은 느낌에 가슴이 덜컥 하

는 겁니다. 네 아이 엄마로 살다 보니 단 하루도 집안일에서 헤어날 수 없었던 나는, 못 먹는 떡이 더 커 보인다고 깔끔한 차림으로 출근하는 주부가 정말 부러웠거든요.

그런데! 이젠 나의 손아래 동서까지도 취직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나만 경쟁에서 밀린 낙오자가 된 것 같은 외로움이 밀려들더군요.

“근데 무슨 일을 하는데?”

“인구주택총조사 있잖아요. 거기 조사요원이 됐거든요.”

“아, 맞다! 나도 그거 모집한다는 거 봤는데. 잠깐만, 지금 응모해도 되나?”

“에이, 벌써 끝났죠.”

아! 가슴이 쓰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 느낌을 읽었는지 동서가 얼른 덧붙여 말하더군요.

“그래도 동사무소 한번 가보세요. 예비 조사원이란 게 있거든요. 그건 자리가 있을지도 몰라요.”

전화를 끊자마자 한달음에 동사무소로 달려간 나는 담당자를 붙들고 간곡히 부탁을 했지요.

“꼭 하고 싶거든예. 잘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빠지는 사람 있거든요, 저 좀 꼭 불러 주이소.”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를 하며 집으로 돌아 왔지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던가요. 다음날 동사무소로부터 호출이 왔지 뭐니까. 어떤 조사원이 갑작스런 사정에 그만 됐는데, 제게 그

구역을 맡을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럼요, 할 수 있고말고요. 나도 이제 무언가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뭔가 보여주자. 이런 저런 생각에 어찌나 흥분이 되던지 밤에 잠도 오질 않더군요.

그렇게 2005 인구주택총조사 요원으로 나라의 막중한 부름을 받은 저는 보무도 당당하게 조사 구역을 찾아 갔죠.

그런데……. 역시 인간사라는 게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니더군요.

문을 두드리면 잡상인 취급을 하며 문을 닫아 버리질 않나, 아예 문을 열어 주지 않는 사람도 있었고, “정부가 내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이래 귀찮게 구노?”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디 그 뿐인 줄 아십니까? 문을 두들겼더니 달랑 팬티 한 장 입고 나타난 아저씨는 혼인 여부 항목에 이르자

“결혼 했는지 알아가 뭐할 낀데? 당신 그거 조사해 가문 내한테 여자라도 붙여 즐끼가?”

차마 옮겨 쓰기 민망해 표현은 못하지만 상욕까지 섞어 말할 때면 얼굴이 달아오르며 가슴은 두방망이질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도망을 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사를 마치기 위해선 언젠가 이 사람을 다시 찾아 와야 하고, 그때 또 같은 곤욕을 치를지도 모르니까요.

그런데, 바로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것이 아줌마 경력이다라고요. 아가씨 같으면 부끄러워 도망을 쳤을 테고, 남자 같으면 열 받아 떡살잡이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줌마 경력 20년쯤 되고 보니 얼굴에 첩판 딱 깔고 시선 돌린 채 맞장구를 칠 수 있게 되더군요.

요.

“맞습니다. 말라꼬 이런 항목까지 만들었나 모르겠네요. 참, 문제라예, 문제. 근데 그건 그렇고 일단 해 주실 건 해주셔야지예. 다음 항목은…….”

또, 몇 번을 가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안 해주는 사람에겐 약간의 협박을 섞기도 하죠.

“이거 조사 안하시른 벌금이 나올깐데예. 거기 돈이 꽤 된다 카는데……. 뭐 할 수 없지예.”

하고 나오면 오히려 나를 쫓아 나와 지금이라도 하면 안 되냐고 사정하는 사람도 있었지요.

생전 처음 일을 하면서 사십 년을 넘게 산 세상 경험이란 게 정말 헛거는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런 다양한 공략 작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까지 속을 썩이는 강적이 있었습니다.

찾아갈 때마다 항상 불은 켜져 있는데 도통 문 열어 줄 생각조차 않는 것입니다. 매일 매일 하루 한두 번씩. 어떤 날은 아예 집 앞에서 한 시간을 넘게 기다린 적도 있었죠. 하지만 이웃들도 그 집에 대해선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워낙 술꾼이라 술주정에 건디다 못한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 버렸다는 것 밖에도. 이제 조사할 집은 그 집밖에 남지 않았는데, 마감 날짜가 다가올수록 마음은 다급해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그 집을 찾아 간지 무려 14일 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도 제쳐 둔 채, 오늘은 꼭 조사를 하고 말리라 전의를 불태우며 문제의 집으로 향했죠. 다짐을 하며 골목을 들어서는데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 집은 3층 옥탑 방이었는데, 계단에 올라서는 순간 내 시야에 들어오는 광경! 그 집에서 자욱하게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안에는 불이 켜져 있고, 분명히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두들기고 불러 봐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 동네는 워낙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 뽁뽁하게 붙어 있는 집들 옥상마다 기름통이며 가스통과 가스 배관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곳이었죠. 그러니 이 불이 옮겨 붙었다 하면 집집마다 가스통이 폭발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제 머리 속엔 블록버스터 영화 속 연쇄 폭파 장면이 떠오르더군요.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너무 급하니까 목소리도 마음대로 안 나오더군요. 마구 질러 대는 제 고함 소리에 이웃 사람들이 뛰어 나오고, 119에 신고를 하고, 온 동네가 소란스러운 가운데 소방관 아저씨들이 오시더니 얼른 가스 밸브를 잠그곤 문제의 집 현관문 잠금 장치를 부수고 들어가셨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혹여나 까맣게 그은 시신을 볼까 봐 겁이 나더군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 뒤에 숨어 슬금슬금 다가가 보았지요.

술쟁이 아저씨는 술에 취해 잠들어 있고, 가스레인지에 올려놓은 음식이 타면서 연기가 솟구쳤던 것입니다. 다행히 가스레인지에 막 불이 붙고 있던 터라 불은 쉽게 끌 수 있었지요.



모두들 웅성거리고 들여다보는데, 술쟁이 아저씨는 그제야 기척을 느꼈는지 부스스 일어나더군요. 그리고 얼마를 기다려 사태가 대충 수습이 되는데, 옆에 계시던 할머니가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아이고, 이 술쟁이야! 니 때문에 동네 홀라당 다 탈 뻔 했다. 오늘 이 아줌마 아니었으면 나는 죽었다, 죽었어. 으이구, 망할 놈 같으니라고…….”

사태를 파악한 술쟁이 아저씨, 저를 힐끗 보시더니,

“세상 살기 싫은데, 아줌마 뭐한다고 살렸소? 가만 내버려두지. 근데, 아줌만 우리 집에 뭐할라고 왔능교?”

말은 통명스러웠지만 아저씨의 얼굴은 씩 웃고 있었죠. 그 때를 놓칠세라 저는 얼른 조사표를 내밀었죠.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인구주택총조사 땀에 왔는데예, 이거 잠깐이면 되거든요. 먼저 이름하고, 연세 하고…….”

그렇게 마지막 조사표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만약에 내가 그 집의 조사를 포기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보았죠. 정말 생각만으로도 끔찍했습니다. 그 후로 나는 그 동네 유명 인사가 되어 버렸고 지금도 가끔 그곳을 지나면 모두들 반가워 해주십니다.

처음엔 동서 때문에 덩달아 시작했던 일이었는데, 하지만 2005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참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아이들에겐 엄마의 끈기와 인내심, 책임감을 보여줄 수 있어서 뿌듯했고, 나 스스로에겐 자신감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 행복했습니다. 전에는 일하는 여성을 볼 때면 공연히 위축되기도 했죠. 하지만 지금은 비록 짧은 15일의 경험이었지만 나도 무슨 일이 주어지든 다른 사람 못지않게 잘 할 수 있다는 확신을 합니다.

파이팅! 문선인. 오늘 아침도 나는 스스로에게 파이팅을 외치며 예전보다 훨씬 즐거운 마음으로 청소를 하기 위해 창문을 활짝 열어젖힙니다.

마음으로 이루어진 사랑하기

윤혜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아휴, 정말 속상해 죽겠네!”

“뭘데 그래?”

“아니…….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가지고 오는 걸 보면 또 이렇게 엉터리잖아요. 도대체 사람 말을 어떻게 듣는 건지 나 원…….”

“당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한거야? 자기 기분만 앞세우지 말고, 관점을 달리해서 생각해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거야.”

남편은 속상해 하는 나를 달랬다.

올해 치러진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나는 조사관리자 업무를 하고 있었다.

사실 처음 시작할 땐 신바람이 났다.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다.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니 흥겨움이 절로 났고 그런 모습이 이롭답다는 남편의 칭찬도 듣기 좋았다. 그런데 이제 불평을 늘어놓지 않을 수가 없다. 나는 조사관리자로서 함께 일하는 조사원들에게 자주하게 되는 실수나 주의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곤 했다. 특히 조사표 정리 방법은 내가 조사원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살려 토씨 하나까지 꼼꼼하게 전달했고, 주의도 당부했다. 그런데 조사원 한 명이 며칠동안 비슷한 실수를 계속하며 조사표를 틀리게 작성해 오는 것이다. 지적을 해도 그때뿐이고 강조한 것들을 잊지 않았다면 그렇게 틀릴 이유가 없다고 추궁하니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무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참을 수가 없었다. 결국 화를 내며 얼굴까지 붉히고 말았다. 일은 하나도 진척이 안 됐는데, 여러 가지가 감정만 얽혀 하루 종일 속이 상했다.

그런데 남편은 이해하라고 한다. 이제는 남편까지 미워졌다.

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일하는 것이니 의견 충돌은 필연적인 것이고, 갈등이 생기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다. 게다가 조사관리자와 조사원 사이는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다. 협조하고 도와주는 사이여야 한다. 그래야만 업무도 잘되고, 시너지 효과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그렇게 머릿속과 똑같이 움직여지질 않았다. 편치 않은 마음에 밤새 뒤척이다 보니 날이 밝았다. 아침 일찍 서둘러 동사무소로 나갔다. 아직 사람들은 출근 전이겠거니 생각하

며 사무실 문을 열었다. 쌓여진 서류더미 사이로 한 여자가 보였다. 밤새 내 머릿속 한구석을 찌르던 그녀였다. 어찌나 조사지침서에 집중하고 있던지 내가 들어오는 소리도 듣지 못한 모양이었다. 어색한 침묵이 사무실 안을 감돌았다. 뭐라 인사말을 붙이기도 어려웠던 나는 펜스레 헛기침을 하며 발을 옮겼다. 그런데 그녀가 먼저 말을 붙였다. “관리자님 안녕하세요? 일찍 오셨네요? 커피 하실래요?”

“뭐……. 그래요.”

그녀는 나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넸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하고 있었다.

‘뭔가 말을 하긴 해야 하는데. 뭐라고 하지? 왜 벌써 나온 걸까? 그래도 내가 연장자인데, 먼저 사과하는 건 좀 이상할까?’ 머릿속엔 많은 생각이 흘러 다니는데, 입 밖으로는 한마디도 튀어 나오질 않았다. 그렇게 몇 분이 흐르고, 뒤이어 사람들 몇이 사무실로 우르르 들어왔다.

결국 우리는 어떤 대화도 나누지 못하고 애꿎은 커피 잔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바쁜 오전 시간을 보내고 잠시 한숨을 돌리고 있을 즈음, 잠시 사무실에 들어온 조사원들을 통해 나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지금까지 일이 더더 내 속을 타게 했던 그녀는 갓난아기를 키우는 데다 얼마 전부터는 몸이 불편하신 어른까지 함께 돌보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창 엄마 손이 필요한 어린 아이에 편찮으신 어른 시중까

지 들면서 조사를 진행하다 보니 아무래도 조사 속도도 느렸고, 오류도 많이 발생한 것이다. 그렇다고 매번 집안 사정을 핑계로 특별 대우를 받을 수도 없는 일이어서, 요 며칠 간은 꼬박 밤을 새며 조사지침서를 달달 외우고 있다고 했다. 그런 사정을 모두 알게 되니 화를 내고 속상해 했던 나 자신이 오히려 부끄러워졌다.

화내며 책망하던 내 앞에서 얼굴이 빨개져 말조차 제대로 잊지 못하던 그녀의 얼굴과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을 것이라는 남편의 말이 교차되며 귓가에 맴돌았다. 그러면서 나의 위치를 다시금 생각해 보았다. 조사관리자는 말할 것도 없이 조사원들을 위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 조사원들이 잘못하면 그것을 바르게 교정하는 일이 조사관리자가 해야 할 당연한 일이 아닌가!

결국 내가 화가 난 것은 그녀 때문이라기보다 나 자신 때문이라는 결론이 났다. 잘해 보겠다는 의욕이 앞서다 보니 욕심이 됐고, 그것이 정작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보여야 하는 부분에서 도리어 감정이 격해진 것이다. 틀리게 했다면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게 옳은 행동이었다. 그런데 도리어 언성을 높였으니 모두가 미숙한 내 탓이란 생각이 들었다. 미안함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아기 키우는 고단함과 어른 모시는 고달픔을 모르는 바도 아닌데, 그리 매정하게 말했으니,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지 몰랐다.

그날 오후는 하루 종일 그녀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 볼 수가 없었다. 어떻게 마음을 전해야 할지 뻔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다. 우선



은 그녀의 서운한 마음이 사그라질 수 있도록 친절하게 정성을 다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그 뒤로도 그녀의 조사 진행 속도는 느렸고, 실수도 종종 발생했다. 잠깐 사무실에서 틈이 나면 책상에 머리를 올려놓고 잠을 자기도 했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안전부절못하지 않았다.

존중과 배려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봄 햇살에 눈이 저절로 녹아내리듯, 나의 배려가 그녀에게 통했고, 마음이 전해졌다. 신뢰가 형성되고 관계가 돈독해지니 정이 깊어졌다. 시선을 달리하니 같은

일이라도 이해가 됐고, 아름답고 넉넉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조사가 끝나고 마무리 정리를 하던 어느 날. 사무실에서는 그녀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소박한 고구마 파티가 열렸다. 그동안 감사했다며 따뜻하게 썬 온 고구마를 나에게 쥐어 주는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다. 고구마를 처음 먹어 본 것도 아닌데, 그날의 고구마는 어찌나 달콤하던지……. 아마도 그것은 새롭게 느낀 존중과 배려의 맛이었을 것이다. 내가 먼저 존중해 주고 배려한다면 상대방도 나를 존중하고 관심을 가져 준다는 평범한 진리를 왜 오랫동안 잊고 살았는지 후회가 된다.

이번 인구주택총조사는 나에게 많은 것을 주었다.

일을 할 수 있게 해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일을 통해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 더 행복한 일이었다. 행복이란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인구주택총조사. 아마도 내 인생에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2005년 11월을 겪으며 그동안 제가 생각하고 있던 ‘아춤’의 모습은 산산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11월 3일 새벽이었지요. 16개월 난 아들 놈이 갑자기 필필 끓는
가 싶더니, 체온계의 눈금이 40도에 육박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침
을 안 하니 감기도 아닌 것 같은데, 고열은 그 정체를 알 수 없기에
더욱 불안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아이를 들쳐 업고 응급실로 향했
고, 아이는 곧장 입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아이가 입원을 했으니,
아내는 내내 병원을 지켜야 했고 저는 아이가 입원 해 있는 동안 독
수공방 홀아비 신세가 되어야 했습니다.

제 아내는 정말 깔끔했죠. 언제 어느 때든 집안의 물건들은 언제
나 그 자리에 놓여 있었고, 걸레를 들고 살다시피 하는 탓에 바닥엔
작은 먼지 한 톨 밟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짝반짝
하던 집은 아내가 집을 비운 그날부터 마치 한바탕 총격전을 치르
고 난 액션영화의 한 장면처럼 난장판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거실과 소파는 보다가 던져 놓은
책과 신문들, 먹다 남은 간식 봉투들이 텅굴고 있어, 다리 뻗고 앉
을 만큼의 빈 공간도 찾기가 힘듭니다. 그런 거실을 지나 방으로 진
입하면 침대 위는 아무렇게나 벗어 던져 놓은 옷가지들이 이미 점
령했고, 양말과 속옷을 벗어 세탁실로 가면 며칠 동안 쌓인 빨랫감
들이 산더미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세수 좀 해볼까 들어간 욕조엔 아내가 입원 전날 내놓은 이불 채가 습기 찬 욕조에 버티고 들어 앉아 있고, 뭐라도 시장기를 채우자 싶어 다가간 싱크대엔 음식 찌꺼기가 말라붙은 그릇들이 아우성을 치며, 더 이상 다른 동료들 받아들일 공간이 없다고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내가 집을 비운 뒤부터 갑자기 나타난 먼지들은 단합대회라도 하는지 덩어리가 되어 여기저기를 뒹굴며 휘젓고 다니지요, 어디 그뿐인 줄 아십니까? 분명히 물을 간지 며칠 안된 것 같은데, 아내의 빈자리를 눈치 챘는지 어항 속 이끼들까지 제 세상을 만난 듯 엄청난 속도로 번식을 하더군요.

어지러운 집안의 광경을 보고 있자니, 머릿속이 아득해지고 눈앞이 깜깜해지는 겁니다.

솔직히, 저녁에 피곤하다며 여기저기 쑤신다는 아내를 볼 때 ‘그깟 살림 사는 게 뭐 그리 힘들다고 유세냐?’ 할 때도 있었죠. 헌데, 어리석은 저는 소중한 것을 잃은 후에야 그 가치를 안다고 했던가요? 아내가 겨우 며칠 집을 비웠을 뿐인데, 정말 아내의 자리가 이렇게 큰 것이었구나 하고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있었기에 쾌적한 생활이 가능했고, 아내가 만들어 준 휴식의 공간 덕분에 또,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음날.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엄두가 나지는 않았지만, 아들 녀석이 언제 퇴원할지 모르겠기에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아내의 노고에 조금이라도 고마움을 표해보고 싶어 대충이라도 치워 보자 마

음을 먹었지요.

퇴근 후, 금강산 구경도 식후경이라고 일단 배를 채울 요량으로 라면을 끓여 먹은 뒤, 설거지부터 끝내고 났더니, 그래도 제법 멀끔해진 싱크대 모습에 조금은 자신감도 붙고, 다른 곳도 손 좀 봐야겠다는 용기도 생기더군요.

손발을 걷어 부치고, 욕조에 따뜻한 물을 채운 뒤 세제를 풀어 이불을 담그고, 밀린 빨래들은 세탁기에 넣어 돌려놓고, 어항은 뽀득뽀득 이끼를 닦아서 베란다 수도꼭지에 긴 호스를 연결하여 물이 조금씩 흐르도록 조절 해 놓은 뒤, 세탁기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욕조로 들어가 열심히 이불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콧노래 리듬에 맞춰 뽀글뽀글 비눗방울이 발가락 사이를 간질이는 느낌도 꽤 괜찮더군요. 송골송골 땀이 배이며 한참 이불빨래 삼매경에 빠져 있는데 갑자기 “딩동 덩동” 하는 인터폰 소리가 울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라?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늦은 시간에 웬 잡상인이야? 이렇게 늦게까지 찾아다니는 걸 보면 꽤나 질긴 인간이겠군.’ 싶었습니다.

거품 묻은 발을 얼른 닦고 인터폰을 든 나는 잡상인을 쫓아 버리기 위해 최대한 불친절하고 기분 나쁜 목소리로 응대를 하자 작심을 하곤, 목소리에 잔뜩 짜증을 섞어 물었죠.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인구조사 나온 조사원인데요.”

인구조사원? 인구조사원이 뭐하는 거더라……. 잠시 후, 내 머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으니, 집골목 앞에서 휘날리던 2005 인구주택총조사 현수막과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던 홍보 노래였습니다. 아이의 입원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까맣게 잊고 있었던 인구조사였는데, 그 조사원이 지금 이 늦은 시간에 내 집을 찾아 온 것이었습니다.

대답을 했으니 문을 안 열어 줄 수도 없고, 하는 수 없이 현관문을 열자 웬 아줌마가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몇 번 왔는데 안 계셔서요.”

“아줌마, 저 지금 엄청 바쁘거든요.”

“잠깐이면 되요. 시간 많이 안 걸리니까 조금만 시간을 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데 ‘이거 조사에 응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잠시 고민을 하며 힐끔 쳐다본 어항이 체계 경보를 울리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까 틀어 놓았던 수도꼭지를 그새 깜박 한 탓에 물은 어느새 어항 입구에서 찰랑거리고 있었습니다.

“아, 아줌마, 제가 지금 정신이 없거든요. 아기도 병원에 입원해 있고요, 집도 엉망이고요, 다음에 할게요.”

“아유, 죄송합니다. 근데, 잠깐이면 끝나는데요.”

어항의 물은 이제 위협의 단계를 넘어 서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 안된다니까요. 아? 참. 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인터넷 조사 방식도 있고요. 또…….”

내 불안한 모습에 조사원 아줌마는 포기한 듯 인터넷 조사 방식에 대해 설명을 하더군요. 나는 현관문을 열며 급하게 말했죠.

“알았어요, 아줌마, 내가 인터넷으로 꼭 헤드릴 테니까 가세요. 저 지금 정신없거든요.”

“그럼 연락처랑 이름 좀 알려 주세요.”

짜증이 난 나는 총알처럼 전화번호와 이름을 불러 주었고, 조사원은 그제야 “다시 연락드릴게요!” 하고 가더군요. 나는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열린 수도꼭지를 잠그기 위해 베란다를 향해 전력 질주를 해야 했지요.

그날 이후, 하루 이틀이 지나며, 아기의 상태도 조금씩 나아지고 덕분에 마음도 훨씬 가벼워진 저는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평범한 일상에 충실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나흘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핸드폰에 웬 낯선 번호가 뜨더군요.

“안녕하세요, 며칠 전 방문했던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원인데요…….”아뵘싸! 그때서야 조사원과의 약속이 떠올랐던 것이지요. 그런데 인구조사원은 입원한 아이는 좀 나아졌는지, 그 사이 많이 바쁘셨나 보다면서 내가 약속을 안 지킨 것을 질책하기는커녕 걱정을 해 주니, 정말 사람 미안해지더군요.

회사 일이나 다른 사람과의 약속은 정확히 지키면서, 이 작은 약속을 그냥 잊고 지냈구나 싶어, 죄송하다는 인사와 함께 오늘은 꼭 인터넷 조사에 임하겠노라 다시 약속을 했지요.



자신의 일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고, 나처럼 바쁘다는 핑계로

늦은 시간까지 발품을 팔게 하는 사람들에게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프로의 모습이구나, 그리고

이게 바로 대한민국 아줌마들의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오자마자 나는 인터넷으로 신원등록절차를 거친 뒤, 조사에 응했지요. 조금 생소했지만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었는데. 몇 번씩 발걸음 하고도 모자라 며칠을 신경 쓰이게 했구나 싶어 조사원에게 참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 다시 핸드폰이 울렸는데 바로 그 조사원이 인터넷 조사에 응해줘서 감사하다는 전화였지요. 조사 확인만 하고 끝내도 될 일이었는데 마지막 감사의 전화까지 하는 모습을 보며, 정말 자신의 일을 끝까지 완벽하게 마무리 하는 책임감 있는 아줌마구나 생각했죠.

인구주택총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조사원 모집 공고를 보면서 이번에 선정된 조사원들도 다 평범한 아줌마들이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만나고 보니 자신의 일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고, 나처럼 바쁘다는 핑계로 늦은 시간까지 발품을 팔게 하는 사람들에게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프로의 모습이구나. 그리고 이게 바로 대한민국 아줌마들의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의 입원으로 아내라는 이름의 아줌마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고,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응하면서 조사원 아줌마들의 노력 하나하나가 우리 사회에 커다란 도움이 되었구나 싶습니다.

‘대한민국 아줌마’

그 이름은 이제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얽잡아 보는 의미의 단어가 아닙니다.

내 아내처럼 수많은 아내들이 각각의 가정을 지키고 있기에 우리 사회가 건강 할 수 있고,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성실하고 열성적으로 일하는 아줌마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은 더 많이 발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한민국 아줌마들의 힘이 있기에 5년 후, 우리의 통계지표는 틀림없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 봅니다.

하늘에서 온 편지

김미숙 한글서체연구회 이사



맘소사! 온통 책과 먹다 남은 과자 봉투, 아이들이 아무렇게나 벗어 놓은 옷가지들로 거실은 말 그대로 난장판이다. TV 리모컨이며, 전화번호 적은 수첩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고. 벌써 저녁 시간도 훌쩍 넘겼으니 아이들 밥도 챙겨 줘야 되고.

얼른 코트만 벗어 놓고 청소기부터 부지런히 돌린다. 인구조사한다고 겨우 며칠 집을 비웠을 뿐인데, 엄마 없이 아이들만 지키고 있던 집은 온통 엉망이다. 이러니 내내 맞벌이 하는 엄마들은 어떻게 사나 싶다.

정신없이 대충 치우고 저녁 먹고, 한숨 돌리면서 오늘 조사한 조사표들을 정리하려고 가방을 여는데, 아! 할머니가 주신 사과 한 알이 살그머니 얼굴을 내민다. 유난히 크고 탐스런 사과다. '아이들

간식으로 깎아 줄까?’ 하다가 할머니 얼굴이 떠올라 하루라도 더 두었다가 내일 깎아 먹자 마음먹고, 예쁜 접시를 꺼내 었어 식탁 위에 올려놓는다.

오늘은 일요일. 황금 같은 휴일이란 말이 있지만, 인구조사원에게 일요일은 정말 황금 아니, 다이아몬드 같은 휴일이다. 낮에는 물론 밤늦게까지 집을 비우는 가구들이 많기 때문에, 일요일이야 말로 평일엔 도무지 만날 수 없는 가구주들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 다이아몬드 같은 일요일 오후, 한 집이라도 더 방문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마음은 몹시도 분주했다. 하루 종일 이집 저집을 돌고 나서, 어둠이 깔릴 무렵 한 가구의 벨을 눌렀다.

“안녕하세요? 인구조사원인데요.”

문을 열고 나타난 사람은 자그마한 키에 은빛 백발이 고운 할머니였다.

“몇 번 왔는데 안 계셔서요.”

그런데 여태껏 만났던 사람들 대부분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사무적인 대답을 하던 것과 달리 할머니는 나를 몹시 반갑게 맞아 주시는 것이었다.

“내가 며칠 집을 비워서, 좀 들어와요.” 정말 친절하고 상냥한 목소리였다.

“아니에요, 다른 집도 들려야 하거든요.”

“아이 그래도 우리 집에 온 손님인데, 들어 와요.”

할머니는 자꾸만 내 손을 이끄신다. 분명 나와 이야기라도 나누고 싶으신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한 집이라도 빨리 조사를 마쳐야 한다는 조급함에 사양을 했다.

그러나 할머니는 자꾸만 내 손을 끌어당기시고, 어쩔 수 없는 마음에 잠깐만, 얼른 들어갔다 나와서, 다음 집으로 가면……. 머릿속으로 재빨리 시간을 계산하며 신발을 벗었다.

집안의 첫 느낌은 할머니 모습만큼이나 깔끔했고 베란다엔 꽤 많은 화분이 놓여 있었는데, 한눈에 집 주인의 정성을 듬뿍 받고 자란 것이 느껴졌다.

집안을 둘러보던 내 눈에 거실 한쪽에 놓여 있는 한 할아버지의 사진이 들어왔다. 사진 속 할아버지는 따뜻하게 웃는 얼굴이었다.

“응, 우리 영감. 먼저 가버린 지 3년 됐어. 잘 생기셨지? 근데, 난 요즘도 가끔씩 우리 영감한테 편지를 받는다고요.”

아니, 돌아가신 할아버지께 편지를 받으시다니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

눈을 동그랗게 뜬 내게 할머니는 할아버지와 의 사연을 이야기 해주셨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부부의 인연을 맺은 것은 60년 전. 선비 집안에서 곱게 자란 할머니는 여기저기 중매가 많이 들어 왔는데, 그

신랑감 중에 한 살 어린 명문학교 학생이 눈에 띄었다. 나이가 좀 어린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제일 착하고 성실할 듯싶어 그 어린 신랑감을 평생의 반려자로 삼게 되셨단다.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들의 어머니들은 남편의 뒤에서 몇 발 자국 떨어져서 걸어야 했고, 남자아이들이 부엌에 들어가면 뭐가 떨어진다며 할머니들이 펼쩍 뛰곤 하셨다. 대부분의 집에서 남편은 신문을 보고 아내는 고이 밥상 받쳐 들고 들어오던 것이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요즘 신세대 부부 부럽지 않은 신식 부부였단다. 밥상도 할아버지가 들고 들어오시고, 아내가 힘들세라 청소며, 심지어 설거지까지. 그 뿐만이 아니라 아내가 무거운 시장 바구니 들고 오게 할 수 없다며 시장까지 할아버지가 손수 봐 오셨단다. 세상에! 지금이야 마트에 남편들이 카트 밀며 다니는 것이 당연한 세상이라지만, 그때만 해도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입방아가 오죽 했을까.

그러다 보니 할머니는 싱싱한 과일이며 해산물도 제대로 고를 줄 몰랐고, 은행일이며 바깥일도 도무지 아는 것 없이, 남편이라는 온실 속에 화초처럼 곱게만 사셨단다.

하지만, 세월 이기는 장사가 없다고 그렇게 할머니를 아끼시던 할아버지도 여든의 문턱에 들어서며 지병을 얻었고, 꽤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계실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는 그토록 아끼던 할머니에게 각방을 쓰

자며 건넌방에 자신의 자리를 펴 달라 하시더란다.

“왜요? 내가 옆에서 자야 혹시 밤에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 보지요.”

같이 방을 써야 한다며 버티는 할머니께, 할아버지는 “내게 병자 냄새가 날까 봐 신경이 쓰여서 그래. 그럼 마음이 불편해. 각 방 쓰는 게 내 마음이 더 편할 거 같네.” 하시는 말씀에 할머니는 할아버지 마음 편하시라고 건넌방에 침대를 놓아 드렸더란다.

그리고 얼마 후, 할아버지는 숨을 거두셨는데, 내내 할머니 혼자 어찌 살려나? 걱정하시며 마지막 순간에도 눈을 감지 못하셨더란다.

자식들은 모두 외국에 나가 살고 오붓이 두 노인네가 서로에게 기대어 살던 공간에 할아버지마저 떠나자 세상은 적막장산이었고, 집안 곳곳에 배어 있는 할아버지의 손길에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귀에 쟁쟁 들리는 듯만 싶으셨단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너무나 그리워서 할아버지가 즐겨 읽던 책들을 뒤적이게 되었다. 그런데 거기에 할아버지께서 미리 적어 둔 편지가 끼워져 있는 것이 아닌가. 돌아가시기 몇 달 전부터 거의 매일 쓰신 편지가 즐겨 읽으시던 책마다 끼워져 있었다. 편지에는 시장에서 포도를 사거나 참외를 살 때 좋은 물건 고르는 방법이나 은행에서 돈을 찾는 방법이 적혀 있기도 했고, 당신은 정말 좋은 아내였다는 편지,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했었다는 편지들이 들어 있더란다. 그리고 할머니는 아직도 찾아 내지 못한

편지가 책장 속에서 자기를 기다릴 거라 하셨다. 하지만 천천히 찾아 낼 거라고 하신다. 너무나 할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 그렇게 편지로 할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아껴 둔다고 하신다.

당신이 먼저 갈 것을 알고 혼자 남은 아내를 생각하며 몇날 며칠 밤새워 편지를 쓰신 할아버지, 그리고 3년이 넘도록 남편을 그리워하는 할머니. 두 분의 사랑이 얼마나 애틋하던지 나는 가슴이 저리는 묵직한 아픔을 느꼈다. 그리고 이내 할머니를 따라 내 눈에도 물기가 가득 차고 있음을 느꼈다. 눈에 맺힌 눈물이 떨어질까 봐 자꾸 눈을 깜박거리고 있던 내게 할머니는 내 손을 다독이시며

“괜찮아, 내가 얼마나 씩씩하게 잘 살고 있는데. 봉사 활동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래야 우리 영감도 마음이 편할 거 아냐.”

일어서는 나에게 할머니는 시간을 빼앗아 미안하다시며 탐스런 사과 한 알을 쥐어 주신다.



“할머니, 다음에 이 부근 지나는 길 있음 들릴게요.”

“그래요. 꼭 들려요. 그래서 이야기도 하고.”

식탁 위의 사과에 할머니의 얼굴이 겹쳐 보인다. 연약하지만 씩씩하게 사시는 할머니. 내 나이 80이 넘어 나와 남편은 어떤 모습의 부부로 세상을 살고 있을까? 그리고 만약 나 혼자 남게 된다면 나는 할머니처럼 씩씩하게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가끔씩 ‘아이고 저 인간.’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남편밖에 없는 것 같다. 젊어 바쁠 때, 보다 늙어서 외로워 질 때, 더 필요한 게 부부인데, 생각할수록 남편과 함께 건강하게 사는 것이 제일 행복하게 늙어 가는 길인 듯싶다. 그러니 남편을 아껴 가며 오래오래 살아야겠다.

시계를 보니 벌써 11시가 넘었다. 오늘도 늦는 것을 보니, 남편은 또 한 잔 하고 들어 올 모양이다. 그래, 우리를 위해 고생하는 남편인데 콩나물국이라도 끓여 줘야겠다. 나는 엇그제 사 두었던 콩나물 봉지를 찾기 위해 냉장고를 뒤적이다.

탐색, 수첩, 증거를 찾아라

박 준 영 작: 44/45/46/47/48/49/50/51/52/53



2005년 9월 어느 날,

어머니는 나에게 신문 한 장을 주시면서 거기에 적힌 인터넷 주소로 응모를 해 달라셨다. 컴퓨터를 전혀 다루실 줄 모르시는 어머니께서는 종종 비슷한 일들을 시키셨기에 나는 기사를 본체만체 서랍 속에 던져 놓고 며칠 동안 관심조차 꺼 버렸다.

며칠이 지나 어머니께서 재차 확인을 하시는 바람에 나는 부랴부랴 책상 구석에서 구겨진 신문을 찾아냈다. 그것이 바로 '2005년 인구조사'와 내가 첫 대면을 한 순간이었다.

어머니의 인적사항을 적어 조사원에 응모한 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내 이름도 적어 보았다.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청년실업자였던 나에게 조사원 일은 기간도 길지 않고, 용돈을 벌기에도 제격인

아르바이트였다.

얼마 뒤 군청에서 연락이 왔다. 어머니는 탈락하셨고, 내가 조사원으로 뽑혔다는 것이다. 그것도 군에서 단 한 명뿐인 ‘시설조사원’으로 말이다.

시설조사는 양로원이나 보육원, 기도원 같은 집단시설의 현황을 파악하는 조사였다. 내가 담당할 조사구는 10군데에 지나지 않았지만, 우리 군은 전국에서 면적이 가장 큰 지역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동거리며 조사하는 양은 만만치 않았다. 그래서 초반부터 부지런히 조사를 나가기 시작했다.

본 조사 첫날 방문한 곳은 산 중턱에 위치한 어느 보육원이었다. 말이 좋아 산 중턱이지 가파른 지형을 무려 30분이나 숨이 턱에 찰 정도로 올라가야 하는 외진 곳이다. 한번 찾아가기도 시간이 너무 많이 드는 지역이라 그렇지 않아도 원장님과 미리 전화 약속을 하고 방문한 터였다.

늦은 오후, 낯선 사람이 보육원 마당에 등장하자 아이들은 호기심과 경계어린 눈빛으로 문틈 사이에서 나를 빼꼼이 쳐다봤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20평 남짓한 공간에 아이들이 가지고 놀았음직한 장난감과 학용품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오후 2시가 다되었는데도 식탁에는 미처 치우지 않은 빈 그릇들과 먹다 흘린 밥알이 나뒹굴고 있었다.

어수선한 보육원 내부를 둘러보며, 나는 문득 어린이 보육시설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동학대에 관한 뉴스가 떠올랐다. ‘수경사 사태’

였던가? 갈 곳 없는 아이들을 정성껏 보살핀다고 사회적으로 칭송 받던 한 노스님이 알고 보니 무연고 아이들을 데려다가 적절하게 보호하지도 못하고 치료도 하지 않았다는 보도였다. 한동안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던 사건이었는데, 당시 그 방송을 유심히 봤던 나에게 지금 바라보는 보육원의 모습은 뉴스의 현장을 그대로 옮겨다 놓은 듯한 느낌이었다.

‘혹시, 이곳의 아이들도 비슷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건 아닐까?’

불현듯 의혹이 일어났다. ‘난 지금 사건 현장에 있는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드니, 갑자기 입안에 침이 마르고 손에 땀이 찼다. 가슴은 긴장으로 조여 왔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기 시작했다. ‘만약 내 짐작대로 이곳의 아이들이 부족한 시설에서 학대를 당하고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겁이 덜컥 났다. 그리고 곧바로 비밀을

지켜야 하는 조사원 신분이긴 하지만 더

큰 공익을 위해서라면 이 사실을 제보해야겠다는 비장한 각오가 생겼다. 아무래도 이런 일은 신중해야 할 것이다. 좀더 치밀한 사실 확인이 필요했다.



마음을 다스리고 있던 그때, 아이 하나가 방으로 들어왔다. 원장님이 어디 계신지 물으니 좀 떨어진 뒤쪽 텃밭에 계신다고 했다. 아에게 원장님을 뵙고 싶다고 말했다. 원장님을 모시러 간 사이 내 머릿속에는 그동안 봤던 첩보영화의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갔다. ‘증거 확보를 위해 핸드폰 카메라로 현장을 찍어 놓으면 어떨까? 녹취 같은 것도 좋을 텐데. 도청이 불법이던가? 합법이던가? 신고는 어디다 하지? 하나하나 추궁하면 사실대로 대답을 할까? 아니지, 만약 그것도 아니면 일단 분위기만 파악하고 사람들을 데려오는 게 낫지 않을까?’ 제임스 본드 같은 첩보원 노릇도 해봤어야 알지, 뭐부터 시작할지 감이 잡히질 않았다.

내가 미처 마음을 결정하지도 못한 사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40대 가량의 원장님이 들어왔다. 오후 늦게 비 소식이 있어 텃밭에 말린 콩을 걷느라 정신이 없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그녀에 대해 의혹을 품고 있던 터라 사무적인 인사말만 짧게 던지고 그 모습을 살폈다. 원장님은 곧 다시 나가봐야 한다면 조사를 서둘렀다. 나는 우선 시간을 벌어 볼 요량으로 조사표 작성을 시작했다. 그런데 원생들이 스무 명밖에 안 돼 예상보다 너무 빨리 조사가 끝났다. 동네 아주머니 같은 원장님의 인상과 몇 가지 질문만으로는 특별한 정보를 얻어낼 수 없었다. 지금 나에게 중요한 문제는 과연 이 보육원에서 아이들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일. 하지만 조사를 마친 내가 그곳에 계속 머물 만한 적당한 명분이 없었다.

우물쭈물 하고 있는 나에게 오히려 그녀가 ‘자원봉사자 두 분이 보건소에서 정기 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혹시 나가는 길에 좀 태워 줄 수 있냐’고 물었다. 어려운 부탁도 아니었고, 오히려 그분들을 통해 보육원의 실체도 알아봐야겠다는 생각도 들어 흔쾌히 제안을 수락했다. 인사도 하는 등 마는 등 하고 나는 조급하게 아주머니 두 분을 태우고 길을 나섰다.

보육원 언덕을 내려오면서 아주머니들은 대뜸 나에게 질문을 하셨다.

“근디 젊은이는 이 먼 곳까지 무슨 일로 왔당가?”

“예, 인구주택총조사 때문에 왔어요. 여기 보육원을 조사해야 돼서요.”

“아. 그러, 인구조사……. 그차너두 아까 원장님이 그런 말을 언뜻 허기는 했는디.”

“그러셨나요? 그런데 이곳 보육원은 사정이 어떤가요? 아이들 돌보기가 어려우시죠?”

나는 아주머니들 진술로 보육원의 실체를 파악할 요량으로 은근슬쩍 질문을 던져 보았다.

“아이고, 그럼……. 아들 테불구 살기가 어디 쉽나……. 젊은 선상도 나라에서 왔으면, 여기 보육원 지원도 좀 해주고, 아그들 편히 보살피게 방도 좀 찾아줌 좋겠구먼.”

“왜 그러시는데요. 지원이 없나요?”

“있긴 있지만 서두. 젊은 원장님 혼자 스무 명이 넘는 애들 테불

구 살기가 오죽 허겄쑤. 친자식도 아닌 것들을 자그 자석마냥 키우는 게 쉬운 게 아녀. 요즘에는 그 후원금 가던것뽀 잘 들어오질 아녀서, 농번기에는 여기 원장님이 품삯을 바더 애들 밥 사맥이 구 옷 사입히구 그런 당께. 올 가을에두 추수할 띠 이 마을 저 마을 일 다니느라 몸이 뿌서지드만, 어디 내 보기두 안쓰러워 서리…….”

“예! 그래요?” 나는 아주머니들의 입을 통해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니, 이런 게 아니었는데.’ 나의 놀라움과는 상관없이 아주머니들은 신이 나서 원장님 칭찬을 시작하셨다. 요즘 보기 드문 착한 사람이라며, 그 따뜻한 마음 씀씀이에 기특해 하셨다.

이 보육원은 마흔 중반을 넘기신 원장님이 7년 전 남편과 사별한 뒤에 유언에 따라 만든 곳이라 한다. 잘 알려진 보육시설이 아니어서 사람들의 봉사도 적고, 후원금도 거의 없지만, 텃밭에 농사를 지어 필요한 야채는 충당하고, 농번기에는 동네 농사일을 도와 받는 품삯으로 아이들 옷이며 장난감을 부족하지 않게 채워 주신단다. 재정도 넉넉지 않은 형편에서 아이들을 보살피려니 원장님의 몸이 남아나질 않은 모양이다. 나이 드신 자원봉사자들이 돕기는 하지만 그것도 큰 힘은 안 되는 모양이다. 오늘도 오후에 비 소식이 있어 원장님 혼자 아픈 몸을 이끌고 점심조차 거른 채 말린 콩을 거두고 계신다고 했다.

스물 네 시간 외로운 아이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며, 봉사

와 헌신으로 생활하시는 원장님. 그 사연을 듣고 보니, 보육원의 낡은 외양만 보고 잠시나마 성급하게 ‘수경사’ 나 ‘아동학대’ 를 떠올리며 의심을 품었던 내가 한없이 부끄러웠다. 먹고살기 힘들다며 자기 자식까지도 내다 버리는 부모가 있는 현실인데, 뼈뺀 살림에 지극정성으로 버려진 아이들을 보살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보통 사람은 엄두도 못 낼 그 마음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지는 않지만, 매일 밤 다정하게 이불을 덮어 주며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원장님과 생활하는 아이들이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했다. 아주머니들과 헤어지면서 나는 가진 돈을 모두 털어 아이들의 과자와 음료수를 사서 건네 드렸다. 조금이나마 그것으로 나의 죄송스러움을 달래보고 싶은 마음이었다.

조사기간 동안 내가 다닌 시설 대부분은 양로원, 보육원같이 소위 ‘사회적 약자’ 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다. 그들을 만나 보면서 어려서 부터 가난했던 집안 형편으로 부모님과 세상을 원망하기도 했던 내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되었다. 그리고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따스함과 사랑으로 이렇게 무사히 키워 주신 부모님께 새삼 감사했다.

흥미진진한 첩보영화의 주인공은 되지 못했지만, 건강한 몸을 가지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하루하루 열심히 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축복받은 일임을 느끼게 해준 이날의 깨달음은 앞으로도 오래도록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을 것이다.

그런 나이다.

예비조사원이란 기약 없는 자리를 하염없이 기다리느니 고향에 내려가 김장이나 해오자 싶어 짐을 챙겼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동사무소에 나오란다. 어찌나 반갑고도 반가운지…….

내가 주로 할 업무는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집이나 조사에 비협조적인 집들을 집중 조사하는 것이란다. 하지만 발길이 가볍다. 그깟 15층 아파트,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리 없지 않겠는가? 하루 열 번 스무 번이라도 오르락내리락 거리면 될 것이라 마음먹고 조사를 시작했다.

어느 집 현관 문고리에는 너댓새 동안 빵 봉지가 내내 걸려 있다. 장기 외출인가 싶었는데 옆집에 물어보니 몸이 편찮으신 독거노인이라 했다. 혹시나 싶은 불길한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린다. 한달음에 내려가 경비실을 찾아가니 며칠 전 강원도 사는 조카가 모셔 왔다고 했다. 얼마나 다행인지. 노인을 외면하지 않고 먼 길을 달려 와 준 조카의 마음이 참 고맙고 또 고맙다. 나 역시 나이 먹어 가는 처지에, 코끝이 맵싸하다.

때론, 마음 민망한 경우를 만나기도 한다. 매일 끼워 놓는 조사용 지나 스티커가 없어지는 걸 보면 밤늦게라도 귀가를 하는 건 분명한데, 묵묵부답이다. 다시 조사 용지를 끼워놓고 스티커도 붙여 보지만 경비실 보관도, 전화 연락도 없다. 대기족도 아니고, 조사하는데 전화 한 통이면 2~3분 만에 끝낼 수 있을 것을.

오늘은 밤 11시에 방문하기로 계획을 하고 찾아가 보니 창밖으로 새어 나오는 불빛이 보여 반갑게 벨을 눌렀다. 그런데 예쁘장한 젊은 여자가 빠끔히 문을 열더니 ‘할머니, 지금이 몇 신데 남의 집을 방문하시는 거예요.’라며 핀잔을 준다. 도리어 미안한 마음에 몇 번이나 찾아왔던 사연을 장황하게 늘어놓는다.

하지만 젊은 여자에겐 모든 게 다 마음에 거슬리나 보다.

“우린 부부가 둘 다 직장을 다녀서 그런 건데, 집이 비어 있는 게 우리 잘못 이에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야멸치게 따져 묻는다.

“아니, 그게 잘못이라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늦게 방문한 거죠.”

“그래도 이 시간은 안 되는 거지요. 상식이 있다면 말예요.”

사납게 한 마디 하더니 매몰차게 문을 닫아 버린다. 멍하니 현관 문만 바라보다 터벅터벅 복도를 내려온다. ‘상식과 몰상식’의 기준이 아무래도 저 예쁘장한 여자는 특별한가 보다. 수더분한 며느리 얼굴을 떠올려본다. ‘그러게 어머니 왜 그런 일을 하고 다니시느냐’고 또 핀잔을 들을 일이다. 하지만 오늘 세상 구경 한번 잘했다고 허허 웃으며 하늘을 올려다 보는 내 마음은 부끄럽지 않다.

다니다 보면 정말 가슴 한켠이 멍울지도록 아픈 사연도 있다.

그 집은 늘 문이 열려 있었다. 그런데 들어가 조사를 할라치면 할머니는 무조건 화부터 내며 나가라고 밀쳐 낸다. 두말할 여지도 주

지 않으면서 그토록 화를 내는 까닭이 이해되지 않았다. 내가 무얼 잘못했나 싶어 몸을 한껏 낮추고 접근해 봐도 입가에 거품을 물며 분개하는 모습에 원한이 가득 차 있었다. 더 이상 접근이 어렵겠다 싶어 '000호 거부' 라고 빨간 펜으로 힘주어 적어 놓았던 집.

어느 늦은 밤,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내 눈에 들어오는 열려진 현관문이 있었다. 무조건 화만 내던 바로 그 할머니의 집. 빨간 글씨로 써 놓았던 '거부' 가 마음에 걸렸던 터라 잠시 머뭇거리며 그 집 문을 살며시 열어본다. 그러자 내 눈앞에 펼쳐진 놀라운 광경. 방 안엔 이불이 그득하고 독기 품고 나를 밀쳐 내던 그 할머니는 벌거벗은 환자를 눕혀 놓고 온몸을 어루만지며 전신마사지를 하느라 온통 땀에 젖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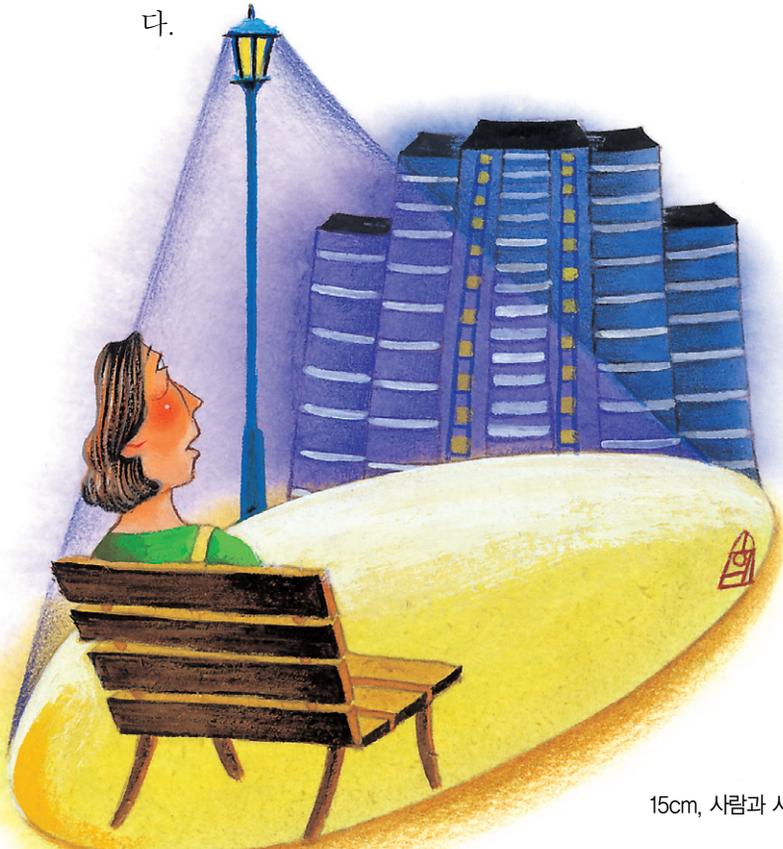
“많이 아픈가 봐요?”

“예, 많이 아프다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많이 아프다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바짝 메마른 입술 속으로 말려들어 가고 있다. 자식을 키워 본 어미라면 알 것이다. 목숨보다 더중한 자식이 삶과 죽음 사이를 넘나들고 있을 때, 까마득한 벼랑 끝에서 있는 듯한 어미의 마음을. 나를 보고도 이제는 나가라고 악조차 쓸 수 없을 만큼 기진한 그 할머니에게 더 물을 말이 어디 있겠는가. 수십 년 동안 그토록 정성을 다해 품어 왔던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을 이 세상에서 지워야 할지도 모를 만큼 절박한 상황. 며칠을 더 버틸지 모르는 아들 앞에서 있는 노쇠한 어미에게 대한민국 인구주택총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 늦은 밤 공원에 앉아 불 켜진 고층 아파트의 창문을 올려다본다. 찍어낸 듯 똑같이 지어진 집들. 고작 15cm 두께의 벽으로 나뉘져 있는 상자 속에 사는 사람들이지만, 그들 모두 제 나름의 사연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조사원’이란 이름으로 그들을 찾았던 짧은 시간. ‘좋은 조사원’이 되기 위해 인구수나 집 구조는 열심히 세웠건만, 정작 우리 이웃들의 사연은 진심으로 보듬지 못했던 듯싶다. 오히려 내 잣대로만 이리저리 판단하며 예단했던 어리석은 순간들. 지난 시간들을 생각하니 웬지 모를 허전함이 공원의 깊은 어둠처럼 나의 마음을 덮는다.



방학 1동 드림팀

남경화 국립중앙도서관 사서



인구조사라는 말만 들어도 그간의 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갑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조사원에 지원했다는 친구 이야기에 솔깃해서 저도 접수를 한 것이 방학 1동 조사관리자로 일하게 된 인연이 되었습니다. 제가 몸담았던 방학 1동의 조사원 9명은 표본조사팀으로만 이루어진 ‘최강의 드림팀’이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표본조사라 함은 거주자의 교육정도에서부터 경제 상황, 혼인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것, 현재의 자녀가 친생자 관계인가 하는 세세한 것을 조사해야 하는 것이다 보니 만만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의 탈락자도 없이 무사히, 완벽한 조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방학 1동만의 팀워크가 그 비결이 아닐까 합니다.

처음 조사원과 관리자로 뿔혀 얼굴을 마주 했을 때, 우리는 모두 어색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대부분 아르바이트 하는 기분으로 왔기 때문에, ‘잠시 만나고 말 사람들인데 뭐.’ 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어색함은 단 하루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다름 아닌 ‘밥’ 때문이죠.

첫 출근을 하는 날, 총관리자가 한턱낸 점심을 먹으며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내일부터는 도시락을 싸오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식욕이 의욕이다!’ 일을 하기 위해선 잘 먹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모두 흔쾌히 동의했고 우리는 다음날 점심시간이 되자 가지고 온 도시락들을 활기차게 펼쳤습니다. 그리고 잠시의 놀라움…….

어쩌면 그렇게 성의 있게 도시락 반찬들을 준비했는지, 8명의 반찬을 합치니 어느 유명한 한정식집 상차림이 부럽지 않더군요. 싱싱한 야채며, 깔끔하게 볶은 나물들이며, 고소한 불고기에 다섯 가지 종류의 맛깔스런 김치까지. 무엇하나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락 점심의 단점 한 가지가 있었으니, 바로 밥이 식는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결국 ‘반찬은 싸오고 밥은 여기서 하자’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따뜻한 점심과 푸짐한 수다. 행복한 점심을 기다린다는 것은 결국 행복한 내일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였지요. 그런데 그 행복한 점심이 또 한 번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동태찌개는 어때? 재료는 내가 다 준비해 올 게.” 우리의 요리사

경숙 씨의 한마디가 다시 우리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요리라곤 전혀 못하는 저에겐 요리를 배우는 덩까지 얻을 수 있었지요. 나중에 일이 점점 바빠지자 조사원들 보다 조금 한가한(?) 총관리자님이 점심을 거의 다 책임 지셨죠. 미안한 마음에 대충 자장면으로 때우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미 우리의 입맛은 높아질 대로 높아져 모두들 심드렁한 표정이었습니다.

일은 밀려들며 고개도 못 들고 하루 종일 조사표와 씨름하고,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아까워 모아서 가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저희들을 위해 총관리자님은 정말 열심히 점심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시간만큼이라도 좀 쉬라며,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묵묵히 뒤에서 우리를 지켜 주고 든든한 백이 되어 준 총관리자님. 언니들의 밥 먹은 설거지를 불평 없이 해 주었던 사무보조원 은미 씨.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조사원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열심히 자신의 몫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 팀엔 11월 20일이 첫 출산 예정일인 새댁이 있었지요. 이제 나이 갓 스물 다섯인 진희 씨. 몸이 무거운 임신부이면서도 어려운 조사를 끝까지 책임감 있게 잘 치러 냈답니다. 혹시나 너무 힘들어 조산이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으로 이미 출산 경험이 있는 인생 선배로서 조언을 아끼지 않으면서 진희 씨를 격려하고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진희 씨가 거의 울상이 된 얼굴로 사무실을 찾아왔지 뭐니까. 어느 집을 방문했는데 문도 안 열어주고 다짜고짜 화를 마구 내신다며 어쩌야 할지 모르겠다면서요.

얘기를 들은 저는 일단 함께 가보자며 심호흡 크게 하고 아파트 현관에서 벨을 눌렀습니다. 인구조사 나왔다고 하자 주인아주머니는 얼굴을 불쑥 내밀고, 진희 씨에게 큰 소리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 아가씨 또 왔네. 왜 자꾸 와요? 내가 안 한다 그랬잖아? 정말 이상한 아가씨 아냐?” 차분히 설명을 드릴 틈도 없이 얼굴까지 붉히며 언성을 높이시더니 대뜸 문을 ‘쾅’ 닫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집안에서 또 큰소리가 났습니다. 경비아저씨에게 이상한 사람들 올려 보냈다고 난리가 난 듯싶었습니다.

일이 커지는 듯싶어 저와 진희 씨는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태 파악을 채 못해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다시 문이 확 열렸습니다. 저희는 ‘또 화를 얼마나 내실까?’ 싶은 생각에 잠시 아찔하더군요.

그런데 다시 나타난 아주머니의 얼굴은 좀 전에 뵈었던 그 분이 아니셨습니다. 분명 같은 사람인데 얼굴이 180도 달라진 겁니다. 게다가 세상에……. 목소리까지 다정해 지셨더라고요.

“어머 어떡해요. 진짜 인구조사 하시는 분들이라면서요.”

얘기인 즉, 며칠 전 인구조사라고 해서 문을 열어 주었더니, 여자들이 조사원을 사칭해 질문을 몇 개 던진 뒤에 물건을 강매했다는 것입니다. 무려 8만 원짜리나 되는 물건을 사라고 했다는군요. 그리고 안 산다고 했더니, 심한 말을 하고 갔다고 합니다. 아주머니는 그때 너무 당황하고 불쾌하고 화가 나서, 이 못된 사람들이 또 왔구

나. 그리고 진희 씨를 그 일당으로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경비아저씨께 확인해 보니 진짜 인구조사원이라는 말에 아주머니는 정말 몸 둘 바를 몰라 하셨습니다.

저는 웃으며 이렇게 만삭의 몸으로 일하는 진희 씨가 너무 당황해서 뱃속의 아기도 많이 놀랐을 것 같다고 말하니 아주머니는 “어머, 저는 똥똥한 아가씨 줄 알았어요.” 하시고 우리는 셋이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저희가 돌아가는데 아주머니는 뱃속의 아가한테 미안하다고 거듭 미안하다고 하시며 사과의 의미로 굴 한 보따리를 안겨 주셨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닫히는 그 순간까지 아주머니는 “죄송해요. 아가야 미안해.” 하십니다. 나는 진희 씨에게 “아마 그 아기는 나중에 외교관이 될 거야. 미리부터 다양한 대인관계를 폭넓게 경험했으니까 말이야.”

라고 위로 했습니다.

그 예쁜 진희 씨가 정말 예정일 보다 조금 빠른 18일, 씩씩하게 인구조사를 마친 후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보니 우리 방학 1동 드림팀의 인원은 9명이 아니라 아기까지 10명이 함께 일한 셈이네요.

마지막 쫄파티를 하던 날, 막내 은미 씨의 말이 생각납니다.

“총관리자님 어디 딴 데 가서 다른 사람 많이 사귀지 마세요. 우리들 잊어버릴까 봐 안 되겠어요.”

얼마나 아쉬우면 그런 소리를 했을까요. 하지만 우리들 마음 또한

같았습니다. 22일간 한술밥을 해먹은 정이 얼마나 컸는지, 모임을 가지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우리 모임 이름은 '2005 인사모(인구주택총조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저희는 총관리자님을 선장이라고 부릅니다. 묵묵히 방학 1동 조사팀이라는 배를 이끌었고, 그 배려에 우리는 편안히 그리고 한술밥의 힘으로 하나가 되어 열심히 일 할 수 있었습니다. 길지 않았던 22일간의 추억. 살면서 쉽지 않은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게 해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좋은 친구와 언니, 동생을 얻게 해 준 '2005 인구주택총조사'와의 만남은 내게 행운이었습니다.



나의 첫사랑은 'ing'

이윤미 작: 김민정/출판: 도서출판 창비



저는 이번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조사원으로 일했던 이윤미라고 하는데요, 제가 사는 이곳은 물 맑고 공기 좋은, 역사와 문화의 도시 경주랍니다.

제 나이는 올해 스물다섯. 작년에 대학을 졸업을 한 뒤, 일자리를 찾고 있는 취업 재수생인데 인터넷에서 인구주택조사 요원을 모집한다는 배너 광고를 보고 세상 경험도 쌓고, 돈도 벌고, 일석이조라는 생각에 주저 없이 신청을 하게 됐죠.

거기다 이번 조사를 통해 저는 제 인생에서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가슴 짙한 경험까지 했답니다. 그 경험은 이번 조사원의 대부분인 아주머니들은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미혼인 저만이 겪을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네요.

참, 제 이야기를 들려 드리기 전에 13년 전의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할 것 같네요.

그 때는 바야흐로 13년 전, 제가 초등학교 6학년, 12살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의 일입니다.

그 당시 저는 조용한 아이로, 반에서 있는 듯 없는 듯, 마치 투명 인간과 같은 존재였답니다. 수줍음이 많았던 저는 반 친구들 앞에 나서서 얘기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으니까요.

그런 제게 저와는 너무나 달라 더욱 멋져 보였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반 반장이었던 정영준이란 친구였죠. 영준이는 아이들 앞에서 늘 당당했고, 자신감이 넘쳐 있었죠. 게다가 40~50명에 달하는 개구쟁이들을 특유의 카리스마로 척척 통솔하는 모습이란.

많은 여자아이들은 영준이를 보며 마음을 설레이고, 저 역시 활달한 그 아이의 성격에 더 끌렸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아이로 인해 제 초등학교의 후반기 생활은 열두 살 풋사랑에 꿈길을 걷는 것 마냥 몽롱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벌써 13년이 지난 지금,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를 배정 받는 순간, 이제는 흐릿해졌던 그 아이의 기억이 뚜렷하게 살아납니다. 내가 맡은 조사구역이 바로 그 아이의 집이 있는 동네였기 때문이었죠.

조사구요도를 들고 들어선 0000 마을은 제가 발을 들여 놓는 순간, 벌써부터 술렁이기 시작했지요. 외지 사람이 별로 찾지 않는 마을에 웬 낯선 아가씨가 목에 조사요원증을 걸고, 두툼한 서류를 뒤적이며 여기저기 둘러보고 있으니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기는 충분했지요.

사람들의 궁금증을 한 몸에 받으며, 아직 조사에 익숙지 않아 설레고 떨리는 마음을 단단히 하고 저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집 조사를 마치고 방문한 두 번째 집. 거쳐 번호를 확인하고 “계십니까?” 하고 대문 안으로 들어가자 50대쯤 되어 보이는 중년의 남자 분이 나오시더군요. “통계청에서 인구조사 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씀드리니, 흔쾌히 응해 주셨습니다. 가구원 수와 가구원의 이름과 나이를 여쭙고 보고 불러 주시는 대로 열심히 적고 있는데, 갑자기 귀에 익은 이름 세 글자가 들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3년 동안 아련히 가슴에 묻어 두고 있던 이름 정·영·준!!

혹시나, 아니 설마 하는 마음에 ‘혹시 아드님이 00 초등학교를 나왔느냐’고 여쭙어 보았지요. 그랬더니 영준이 아버님께서서는 약간 놀라시며 맞는데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발밑으로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그토록 다시 만나고 싶어 했던 그 아이의 아버님이 바로 내 눈앞에 계셨으니……. 머릿속은 둔탁한 뭉가에 부딪힌 것처럼 멍해지고 뒤죽박죽이 되고 말았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 얼른 정신을 차리고 영준이는 잘 있냐고 여쭙었

더니 아버님은 표정이 흐려지시면서 우물쭈물 말끝을 흐리셨습니다. 무언지 모르지만 사정이 있는 듯싶어 더 이상 묻지 않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하루 종일 조사를 하면서도 가슴이 뛰어서 구름 위를 뚱뚱 떠다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0000 마을을 찾았습니다.

위낙 좁은 마을이고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사시는 곳이라 그런지 어느새 낯선 이방인 아가씨가 영준이 동창생이었던 사실이 동네에 콕 퍼져 있더군요. 게다가 지나가는 어떤 할머니는 아주 반가워하시며 “아이고 아가씨, 참하기도 하제. 영준이 친구라 면서? 고마, 영준이 한테 시집 온나.” 하시며 농담까지 건네시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지나가는 농담으로 던진 말이었지만 괜스레 저는 얼굴이 빨개지며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점심때가 다가오고, 마지막 가구를 조사하러 발길을 옮기는데, 저 멀리서 낯선 청년 하나가 천천히 내게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뽀뽀 깎은 머리에 뿔기 하나 없는 하얀 얼굴은 얼핏 보기에 병색이 완연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다가오더니 “너, 윤미니?”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처음 본 얼굴이라 “그런데요, 누구시죠?” 하고 되물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보니 어딘가 낯익은 느낌에, 들어본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순간! 마음은 설마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이 “나, 영준이야.” 하는 순간 주위가 캄캄해 지며 시간은 멈춰 버린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 당황하는 내 모습을 감추고, 애써 어색한 분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나는 말을 붙였습니다.

“머리는 왜 짝은 거니? 와! 스타일리쉬한 걸?” 하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너무나 뜻밖이었습니다. 신장암이라고……. 그래서 대학 생활도 중간에 접고 이곳에서 요양 중이라고……. 대답을 들던 순간, 나는 금방 ‘스타일리쉬한 걸?’ 이라고 말했던 내 입을 마구 쥐어박아 주고 싶었습니다. 고된 항암치료 때문에 머리가 빠진 줄도 모르고 그런 유치한 농담을 했으니 말입니다.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 그동안 이 조그만 시골 마을에 박혀서 고통을 참으며 20대에 누려야 할 자유로움을 포기한 채 외로움과 친구할 수밖에 없었을 영준이를 생각하니 가슴이 저리고 목이 메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영준이에겐 20대 청년이라면 당연히 있어야 할 패기나 힘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그렇게 씩씩하고 늠름하던 아이가 지금은 아주 아주 피곤해 보이고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몸으로 동창생이 왔단 이야기를 듣고는 한달음에 찾아와 주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영준이를 만나고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잠 한숨 못 이루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3년 전, 나의 심장을 멈추게 할 듯 멋있었던 그 아이는 이제 다시 제 심장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13년 전 풋사랑은
이제 가슴 짙한 20대의 사랑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김없이 서로 문자를
주고받습니다. “월을 일은 월을 일이니까 힘내! 즐겁게 보내자!” 그
의 문자를 보는 순간 입가에 미소가 피어납니다. 영준이와 알콩달
콩 주고받는 문자는 어느새 제 삶의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그 수많
은 지역 가운데 하필 영준이가 사는 곳을 조사하게 된 것도, 그냥
지나칠 수 있었음에도 영준이와 재회하게 된 것도, 모든 것이 그냥
우연은 아닌 듯싶습니다.

스물다섯 나이에 제대로 된 연애 한번 못해 보고 운명적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 제게 이 만남은 신이 주신 선물이 틀림없다는 생각
을 해 봅니다.

12살 때, 영준이를 바라만 보며 혼자서 부끄럽게 웃었지만, 이제는 내가 그에게 웃음꽃을 선물해 주고 싶습니다. 2005년 크리스마스는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한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올 한해 나에게 가장 특별한 선물을 선사한 인구주택총조사. 15일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내 인생에, 내 가슴에 가장 깊고 크게 기억될 추억일겁니다.

* 원작자의 요청으로 등장인물의 이름은 가명으로 처리했습니다.

한 스푼의 사랑으로 만드는 세상

한 말순 한스푸드의 사랑으로 만드는 세상



내가 인구주택총조사와 처음 만난 것은 지금부터 10년 전이다.

남편 직장 따라 낫선 서울에 등지를 틀고 이제 갓 첫돌을 지난 아기와 한창 씨름하고 있던 새댁 시절이었다. 때마침 옆집 통장님의 소개로 우유 값이라도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시작했던 조사원. 그런데 막상 시작하고 보니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우유를 먹여 놓고 아기가 잠든 사이에 몇 집 돌고 와 보면 그새 깨어나 울고 있고, 옆집에 맡겨 놓고 나갈라 치면 엄마에게 붙어서 떨어질 생각을 아니하고…….

결국, 걸음조차 서툴러 뒤통거리는 아이를 옷으로 뽁뽁 싸매고 목도리에 장갑까지 중무장을 시켜 조사에 데리고 나가야 했다. 차가운 바람에 딸아이의 얼굴은 금세 빨갱게 달아오르고, 입술까지

과랑게 변하곤 했지만 엄마 손을 잡고 돌아다니는 게 좋았던지, 조사기간 내내 한번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버텨 주었다. 그 아이가 벌써 자라 지금은 초등학생이 되었고, 나는 이번 2005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조사 관리자 일을 맡게 되었다.

내가 조사를 담당한 곳은 목포시 유달동 구시가지이다.

이곳은 유난히 생활환경의 차이가 극심하게 드러나는 지역이다. 사무실 창밖으로 보면 한편은 정갈한 지붕에, 잘 가꾸진 정원수에, 반듯반듯 도로가 정리된 으리으리한 목포 유지들의 집들이 즐비한 반면, 조금만 왼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면 지붕만 붙은 채 미로처럼 엮인 판잣집들이 옹기종기 산 중턱부터 늘어서 있다.

양쪽 모두 조사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았다. 한쪽 편은 장기 여행이며 여가 생활로 노상 집을 비워 만나기가 어려웠고, 다른 한편은 생계를 잇기 위해 고단한 사람들이라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일터에 나가 있었다. 초등학생인 그 아이를 만난 것은 산동네 쪽이었다.

늦은 저녁, 한 조사원이 산동네를 방문한다며 지원을 요청했다.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며 인적 드문 골목길을 지나고 있을 때, 한 집의 문이 벌컥 열리더니, 열 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뛰어나왔다.

부딪혀 넘어질 뻔한 아이를 간신히 세워 놓으니, 아이의 얼굴은 이미 눈물로 범벅이었다. 깜짝 놀라 무슨 사정인지 물었다. 아이는 “엄마가, 엄마가……. 없어졌어요. 좀 전까지 있었는데…….” 라며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다. 엄마가 없어졌는데, 아마 이 부근 어디에 있을 거라며 찾고 있는 듯했다.

급한 김에 아이와 같이 엄마를 찾기 시작했다. 가로등 불빛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은 동네였다. 몇 분을 헤맸을까, 우리는 구멍가게 앞 조그만 공터에 혼자 쪼그리고 앉아 무언가에 정신이 팔려 있는 그림자 하나를 발견했다. 아마도 아이의 엄마인 듯했다. ‘엄마?’ 하며 내 곁에 있던 아이가 쏠살같이 그녀에게 달려갔다. 가까이 가 보니 아이의 엄마는 정신지체 장애인이었다.

방금 전까지 어려만 보였던 아이는 금세 어른이 돼 버린 듯, 엄마를 어르고 달래며 집으로 향했다. 아이에게 손목을 잡힌 엄마는 아쉬운 듯 겨우 자리에서 일어났다.

우리는 아이의 뒤를 따라 그 집에 들어섰다. 살림살이는 말이 아니었다. 방 안에는 제대로 정리가 안 된 냄비며, 그릇, 이불들이 쌓여 있었고, 비가 새는지 집안은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다. 막 저녁을 했는지 방 가운데 놓인 상에는 밥과 김치 한 보시기가 올려져 있었다. 일곱 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는 낯선 우리가 들어가도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아이의 엄마는 저녁상을 보자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허겁지겁 달려들어 밥을 먹기 시작했다.

“다른 어른은 안 계시니?” 우리가 묻자 아이는 고개를 저었다.

머리는 부스스하고 깔끔하게 꾸미진 않았지만, 얼굴이 동그랗고 예쁘장하게 생긴 아이였다. 조사원임을 밝히고, 우리는 아이에게 집안 사정을 물었다.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인 아이는 정신지체장애인인 엄마와 동생을 데리고 국가보조금으로 생활을 한다고 했다. 아빠는 집 나간 지 몇 년 되었고, 집안일을 돌보시던 할머니마저 돌아가셨단다. 몇 주에 한 번씩 사회복지사가 들여다보는 것을 빼고는 세 식구의 밥이며 빨래며 모든 것을 아이가 맡아서 한다고 했다. 지금도 저녁을 차리느라 잠깐 정신을 팔고 있던 사이 엄마가 없어져 찾으러 간 것이란다. 요 며칠 날씨가 따뜻해서 엄마가 자꾸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게 걱정이라고 말하는 아이의 얼굴은 나이답지 않게 수심이 가득했다.

초등학교 3학년, 고작 내 딸아이 또래 밖에 안된 아이의 얼굴은 이미 어른이 되어 있었다. 정신지체로 자기 앞가림조차 하기 힘든 엄마와 아직 철없는 어린 동생까지. 세 식구의 삶을 감당하기엔 그 작은 어깨에 걸린 짐이 너무나 무겁게 보였다.

무슨 수를 써야 했지만, 당장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거의 없었다. 사망을 둘러봐도 한숨밖에 나오질 않았다. 결국 우리는 가지고 있던 간식이며 과일 몇 가지를 건네주며 다시 오겠노라고 약속하고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

다음날도 그리고 그 다음날도 내 머릿속에는 일상에 지쳐 훌쩍 어른이 되어 버린 아이의 얼굴이 지워지지 않았다. 딸아이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너무 안쓰럽다며 도움을 주고 싶다고 했다. 나도 무언가 방법을 찾고 싶었다.

함께 일하는 조사원들에게 사정 이야기를 했다. 그러자 모두 한

처음이었다. TV속에서 안타까운 사연을 듣거나, 어려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항상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몸을 움직이며 봉사를 실천해 본 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함께 한 사람들 모두 몸은 조금 고됐지만, 마음만은 날아갈 듯

기쁘고 즐거웠다.



마음으로 아이를 돕자며 뜻을 모은다. 한 달씩 순번제로 돌봐 주자는 의견부터 관계기관이나 방송국에 아이의 사연을 전하자는 것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무엇보다 가장 우선은 엉망인 집을 손보고 생활에 대한 아이의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 먼저였다.

조사가 끝난 이른 아침, 우리 동 조사원들 모두가 청소도구를 챙겨 들고 아이의 집으로 향했다. 싱크대의 묵은 때를 지우고, 곰팡이 쓴 장판이며, 벽지를 걷어 내고 새것으로 갈았다. 이불이며 옷가지들을 걷어 내 빨고, 햇볕 좋은 곳에 널어 말렸다. 반나절 땀 흘린 노력으로 오랜만에 먼지가 걷힌 창가엔 화창한 오후의 햇살이 밀려 들어왔다.

가지고 갔던 쌀이며 부식들을 정리해주고, 이제는 일주일에 몇 번씩 이 아주머니들이 집을 방문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일 주일에 한 번씩 우리 집에서 딸아이와 함께 공부를 하라고 말했다. 아이에게 다짐을 받고, 청소도구를 챙겨 돌아오는 우리의 발걸음이 그리 가벼울 수 없었다.

처음이었다. TV 속에서 안타까운 사연을 듣거나, 어려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항상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몸을 움직이며 봉사를 실천해 본 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함께한 사람들 모두 몸은 조금 고됐지만, 마음만은 날아갈 듯 기쁘고 즐거웠다. 그리고 좀더 꾸준히 아이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기로 했다.

10년 전 처음 조사원 활동을 할 때는 나도 어렸고, 일하는 것만으로도 바빠 사람들을 보살필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이제는 관리자기도 하지만, 그만큼 세월의 연륜이 쌓이는 건지, 조금씩 다른 이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깊이도 생겨났다.

세상을 살아보니 '나눔'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리고 오늘들의 작은 도움을 계기로,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세상은 살만하다는 걸 아이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더 빛나는 사람으로 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11월에 만난 행복

- 제1판 1쇄 인쇄 | 2005년 12월 20일
- 제1판 1쇄 발행 | 2005년 12월 28일

- 글 | 이해영 외 30인
- 그림 | 윤명희
- 기획 | 신승우, 정선인, 조명윤, 박해인
- 진행 | 강세종, 장인행, 이근수, 최윤성
- 디자인 | 나무한그루책
- 펴낸이 | 오갑원
- 펴낸곳 | 통계청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 전화 | (042)481-2204
- 팩스 | (042)481-2470
- 홈페이지 | www.nso.go.kr

ISBN 89-5801-034-7 93310

비매품

© 2005, 통계청



마지막 면입니다.

 도저히 걸을 수가 없어 이름 모를 집 대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 신발을 벗고 발을 주무르는데 갑자기 그토록 보기 싫던 똥땡이 신랑이 너무나 보고 싶다. 새벽이슬 맞아가며 벌어진 쥐꼬리만한 경찰공무원 월급. 때번 받을 때마다 고맙단 말은커녕 이걸 가지고 또 어떻게 한 달을 사나 꾸념만 하던 내 모습이 너무나 후회스럽고 알미웠다.

‘백마 타고 온 내 남편’ 중에서

 새 옷을 사달라고 며칠째 조르는 아이에게 ‘옷을 사면 하루가 행복하지만, 사랑을 베풀면 평생 행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 줘야겠다. 아이들에게 삶을 얘기할 때 버려진 막내아들의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가르쳐 줘야겠다. 소외받고 잊혀진 성산마을 사람들을 만나고 오며, 산다는 것의 의미와 사랑의 의미를 되새겨 본다.

‘성산마을 사람들’ 중에서

 마주 잡은 두 손으로 어르신들의 굵은 손마디와 거친 손바닥의 느낌이 우리들의 가슴 속 깊은 곳을 찌르며 다가왔습니다. 생전 부모님 손조차 정답게 잡아 드리지 못했던 우리들, 남의 부모님의 손을 잡으며 오늘은 왜 이리 어머니 아버지가 보고 싶은 걸까요.

‘다시 쓰는 부모님 전상서’ 중에서



2005
Census

